2013년 통권 제20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0, 2013.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연꽃 피네

이 재 숙

작년 연꽃 아직도 켄버스에 다 피우지 못했는데
덕진연못이 환하다 하네
꽃잎 한 번 벙그는 게 한평생이라고
주름이 고운 입술소리로 말하네
음악을 듣거나 하늘을 보거나
깊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네

그려 보았네 연꽃은 그릴 수 있으나 꽃을 피우는 희망은 못 그리겠네
연잎 색은 칠할 수 있는데 꽃을 위한 두텁고 스밈없는 배려는 못 그리겠네
대궁 올리는 물빛은 그리겠는데 하늘이 건반 두드리는 소리는 못 그리겠네

하루가 이토록 지루한데 일 년은 순식간이라네
켄버스에 붓질이 두려워지는 늦은 오후
뜨거워지는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돌아
다시 한생을 피워 올리는
한 줄기 바람 앞에 나 무릎을 꿇네.



이 재 숙

· 現) 전주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열린시문학회 대표
· 1999년 전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자유문학 신인상
· 국제해운문학상 대상수상, 열린시문학상수상
· 저서 : 시집 〈젖은 것들은 향기가 있다〉

표지작가안내



공간과 여인-사랑 / 162×130 cm / 한지에 수묵담채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및동대학원졸
- 전북대 박사과정
- 現) 전북대학교 강사, 전통문화고등학교 강사
- 現) 하니미술학원장
- 개인전 : 2013공간과 여인(우진문화공간),
  2012형신(形神)과의 호응(전주,공유갤러리), 2002박지예전(전북예술회관)
- 아트페어 제1회DIAS국제아트페어,대전무역센타(갤러리 인드링망소속작가로참여)
- 단체전 : 2013년 최북미술관 뱀띠전(무주,최북미술관),
  동행전 (전주,전북대학교진흥관), FABLES OF TIME(뉴욕-bcs갤러리),
  동방의눈 -여덟개의 시선(미루 갤러리) 외 다수
- 활동 (원묵회, 전북회화회, 인물작가회, 동질성,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 전화 : 010-2658-7822, (집) 063-228-7822

전북회화

전북회화

이천십삼년 12월

제20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송현성)
2013. 12. 10~15	정기전(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07 방정엽
08 박지예
09 안순금
10 송현성
11 이명자
12 엄기석
13 이봉금
14 이광원
15 이우정
16 이승훈
17 이철규
18 이환배
19 이철량
20 이진숙
21 박성수
22 고형숙

시

23 **회심(悔心)** | 이승훈

수필

24 **북** | 양정숙

전시리뷰

28 **이봉금 개인전**
32 **이철규 개인전**

전시탐방

34 **젊은 시각! 젊은 모색!** | 박성수

작가탐방

38 **최윤진 작업실을 찾아서** | 이봉금

회화이론/석사학위논문

40 **전주의 전시공간** | 김 원
48 **추사 김정희의 산수화에 관한 연구** | 김지영
52 **근대 전북 화단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박성수

탐구하는 예술가

56 **자기 운명과 싸우는 작은거인 로트렉** | 김영숙

미술관을 찾아서

60 **'표암 강세황-시대를 앞서간 예술혼' 특별전을 보고** | 이승훈
66 **김홍도를 만나다** | 이봉금

아트페어 관람기

70 **아트바젤과 동시에 열리는 리스트 아트페어** | 이철규
76 **나우 아트 페스티발** | 이봉금

20주년 특집

80 **전북회화회 발자취를 만나다** | 이철규

나의 여행기

82 **치앙마이** | 이진숙
88 **필리핀 세부를 다녀오다-스케치여행** | 이봉금

여적

92 · 93 **읽을만한 책 / 회원주소**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0. 2013.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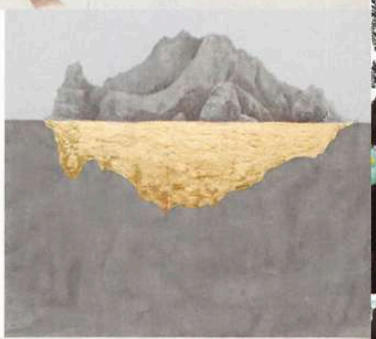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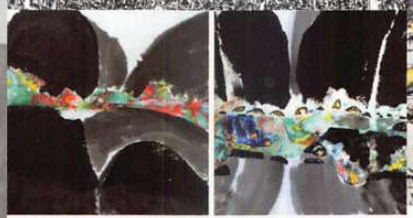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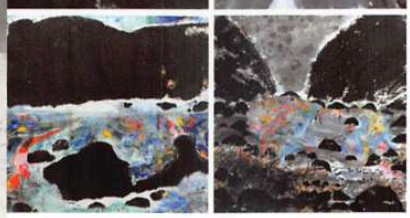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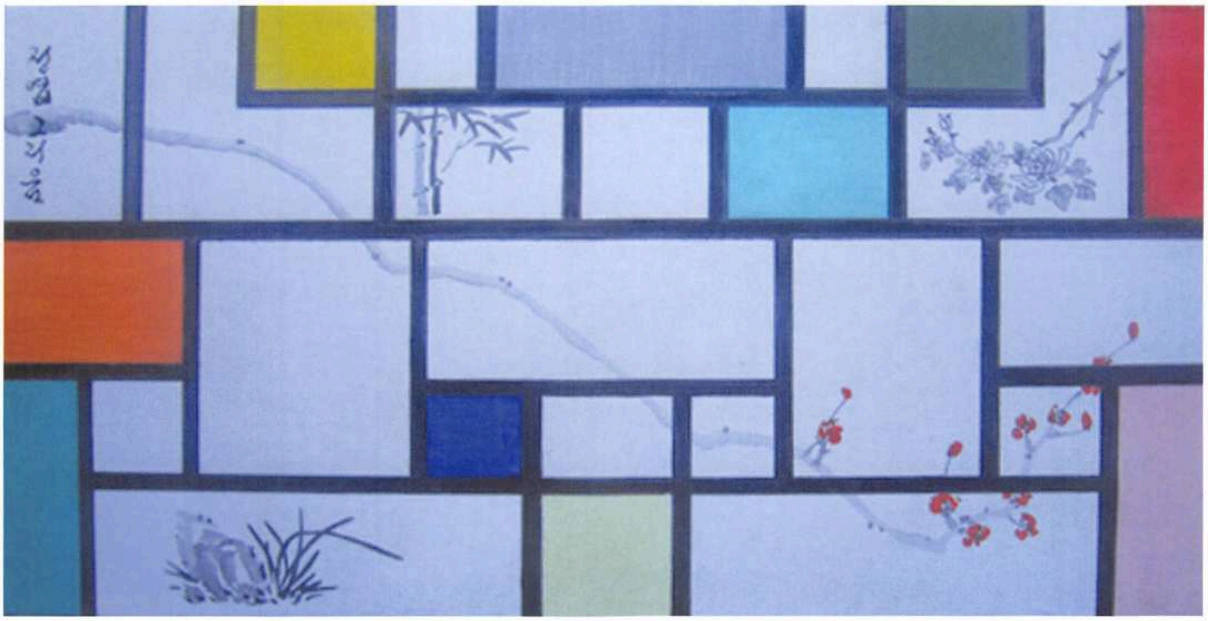
전북회화

2013. 12. 10(화) ~ 12. 15(일)

Opening _ 2013. 12. 10(화) pm 5:30

교동아트센터

고형숙 박지예 방정엽 엄기석 안순금 이광원 이명자 이봉금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철량 이환배 송현성



문살 – 차가운 추상 / 60×100 cm / 천+채색

햇볕이 눈부신 늦가을 오후, 쇠락한 계절을 밟고 은행로를 걷는다.
죽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한옥마을의 젊은 분위기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생각해본다.

어릴 적 시골집에 가을볕 따스할 때쯤이면 게으르셨던 아버지께서 꼭 하시던 일이 있었다.
문짝을 떼어내 묵은 종이와 문풍지를 뜯어내고 한지로 새롭게 교체하는 일이었다.
새하얀 종이가 새롭게 발라지고 힘없이 축 늘어지던 종이가 마르고 나면 탄탄해지고
더욱 하얗던 모습이 참 신선했던 것 같다.
사이사이 꽃잎이나 잎사귀 등으로 멋을 더한 전통문살의 기억이 이맘때쯤이면 그리움으로 다가 온다.
나이 먹은 탓일까?
그냥 무심하던 주변의 사물이 다시 보이고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졸 • 전북회화회 건지회 미협회원 • 現) 남원여고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 손전화 : 011-681-7127



공간과 여인-사랑 / 162×130 cm / 한지에 수묵담채

공간과 여인

본인이 오랫동안 보아오고 경험한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중년여성으로서의 삶을 인식하기 시작 하면서
새롭게 얻어지는 사색들 즉 알수 없는 어떤 불안과 초조 그리고 기대와 사랑 등을
되돌아보기 시작 하는 자신을 새롭게 엮어 보려는 작업이다.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및동대학원졸 • 전북대 박사과정 • 現) 전북대학교 강사, 전통문화고등학교 강사 • 現) 하니미술학원장 • 개인전 : 2013공간과 여인(우진문화공간), 2012형신(形神)과의 호응(전주,공유갤러리), 2002박지예전(전북예술회관) • 아트페어 제1회DIAS국제아트페어,대전무역센타(갤러리 인드랑망소속작가로참여) • 단체전 : 2013년 최북미술관 뱀띠전(무주,최북미술관), 동행전 (전주,전북대학교진흥관), FABLES OF TIME(뉴욕-bcs갤러리), 동방의눈 -여덟개의 시선(미루 갤러리) 외 다수 • 활동 (원묵회, 전북회화회, 인물작가회, 동질성,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전화 : 010-2658-7822, (집) 063-228-7822



민화이야기 / 95×110cm / 수묵 채색 2013

민화 책을 가까이 두고 틈틈이 펼쳐 살펴본다. 그림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익살스런 표정과 불균형적인 괴이한 형상들을 묘사했을 옛 사람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정밀한 것 같지만 단순하고, 미흡하지만 세련되어 있고, 무디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 하나 뛰어난 감각이 베어 있어 현대적인 느낌마저 드는 그림. 무엇보다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을 파악하여 그 느낌을 내게 전달해 주는 그림은 놀라울 뿐이다.

민화속의 이야기를 그려 보았다. 오래전 스케치북을 펼쳐보다 화면에 옮기고 싶은 충동에 붓을 들었다. Basquiat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 그림을 어떻게 묘사할지 모른다.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라는 말을 생각하며... 나의 직관을 믿으며...

안 순 금 (An, Soon-geum)

• 개인전 3회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 現)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 • 전화 : 010-2635-6314, 063) 546-2517 • E-mail : t12-4@hanmail.net



가을 가로수 / 130.3×97cm / 수묵채색 2013

붓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내가 그리는 그림이 남에 눈에 어떻게 보일지 괜한 걱정부터 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를 하나만 두고 그 물체를 볼 때 그 느낌
아직은 미숙하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싶다.

본 그림은 주변에 소홀히 하며 지나치는 가로수 수많은 가로수중에 하나를 보면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들여다 본다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나무들 여름에는 시원함을 가을에는 아름다운 색을
바라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이고 싶다.

송 현 성 (Song, Hyeon-seong)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졸 • 現) 전주입시미술학원 운영
• 주소 : 전북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 5/1403 • 전화: 010-6794-4568 • E-mail: pridehs2@naver.com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 cm / 수묵담채 2013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물을 보면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서 물을 그리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데 물은 이상한 매력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물속에 삶을
그리고 그 속에 희로애락을 담아보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한다.

흐르는 물처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가며 삶의 물결을 바라본다.
고요히 흐르는 물줄기, 소리없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삶을 받아들인다.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개인전 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전북회화회, 한국미협 회원 •인터넷묵객 서예문인화협회 추천작가
•현)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61-76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329 서호 2차아파트 201동 608호 •TEL : (자택) 902-5895, 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꿈의정원 / 80×40cm / 장지에 황토와 혼합재료

7월의 덕유평전은 하늘정원이다. 야생화들의 꿈의정원이다. 동자꽃, 당잔대, 원추리, 일월 비비추, 범꼬리, 당잔대, 노랑물봉선, 노루오줌, 가는장구채, 산오이풀, 말나리, 짚신나물, 긴산꼬리풀 등등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판 꽃 잔치를 벌인다.

덕유평전에 피어나는 야생화들은 긴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쉬며, 하늘의 흐르는 유성처럼 반짝인다. 그리고 지친 도시인들에게 안식과 휴식을 제공한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수줍움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닮은 나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둠속에 반짝이는 유성처럼 유유히 흐르는 어둠을 밝히는 꽃처럼 수줍게 피는 덕유평전의 꿈의정원을 사랑합니다.

엄 기 석 (Eom, Gi-seok)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 개인전 4회 • 초대전 다수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삼호아파트 2동 609호 • 전화 : (H)063-242-8673 (S)063-711-7754 (H.P) 010-3681-8673 • E-mail : egs3344kr@hanmail.net



기억의부유 / 126x80cm / 장지에 수묵채색 2013

The Memory

하나의 기억이 반짝 빛을 발한다.
잊혀 져서 까맣게 변해버린 기억 하나가 신비롭게 떠오른다.
물위로 떠오르는 물고기처럼, 자기만의 색으로 떠올라 햇살 속에서 부유한다.
언젠가는 다시 잠재된 기억 속으로 가라앉겠지만...
어느 좋았던 기억 하나 떠오른 날에...

변해버린 것 이전의 모습을 재현할 수 는 없어도 떠오를 수 있다는 안도감에 행복을 느끼며, 사라져간 기억들과 서서히 빛이 바래고 있는 기억들.. 그리고 아직 선명한 기억들을 그림으로 형상화 해 보았다.

이 봉 금 (Lee, Bong-Keum)

• 전북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 개인전 제5회 •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 주소 : (560-89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안리즈아파트 101/504 • 전화 : 010-9277-7231 • E-mail : pumucle20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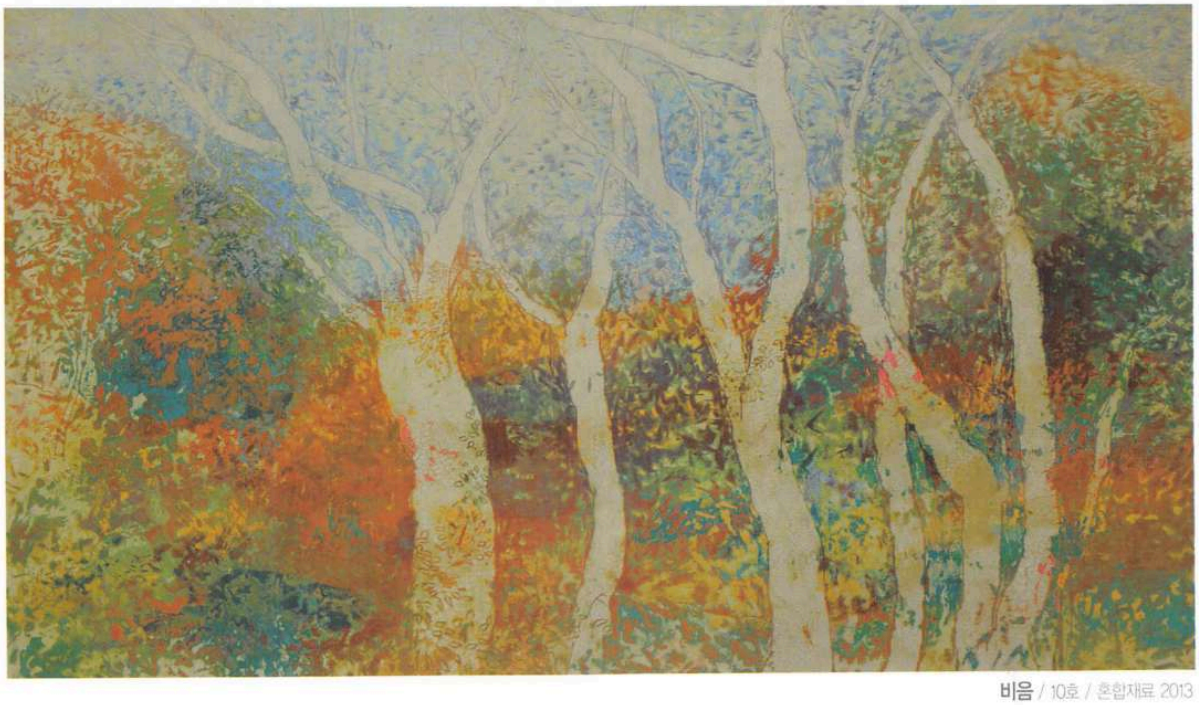


세월의 여백 / 80호 / 장지, 먹, 채색

겨울의 문턱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조용한 갈망의 시간을 여백으로 남겼다.
한번씩 나를 돌아보게 하는 늦가을의 단풍
집착의 허물을 벗고 솔직한 외로움을 끌어안으며
지난날을 이야기해 본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과 전공) •개인전 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焕奐**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현)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0-3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비음 / 10호 / 혼합재료 2013

이농 아농

그대 마음이 산이되고 내 마음이 물이되어 함께걷는 들녘이

내... 너의... 뜰이되고 잠시 머물러 쉬어 머무는곳

잔잔한 풀잎은 침대가 되고 솜털 같은 구름은 포근한 이불이 되어 달콤한 깊은 잠도 청하고

바람이 들려주는 관현악 연주속에 날개달라 날아도 보고 눈뜨면 지천에 널린 풍성한 먹거리...

똥배 나올만큼 새콤달콤 맛보다가 스르르 하늘이 잠기면 편안한 그대 가슴에 갇혀 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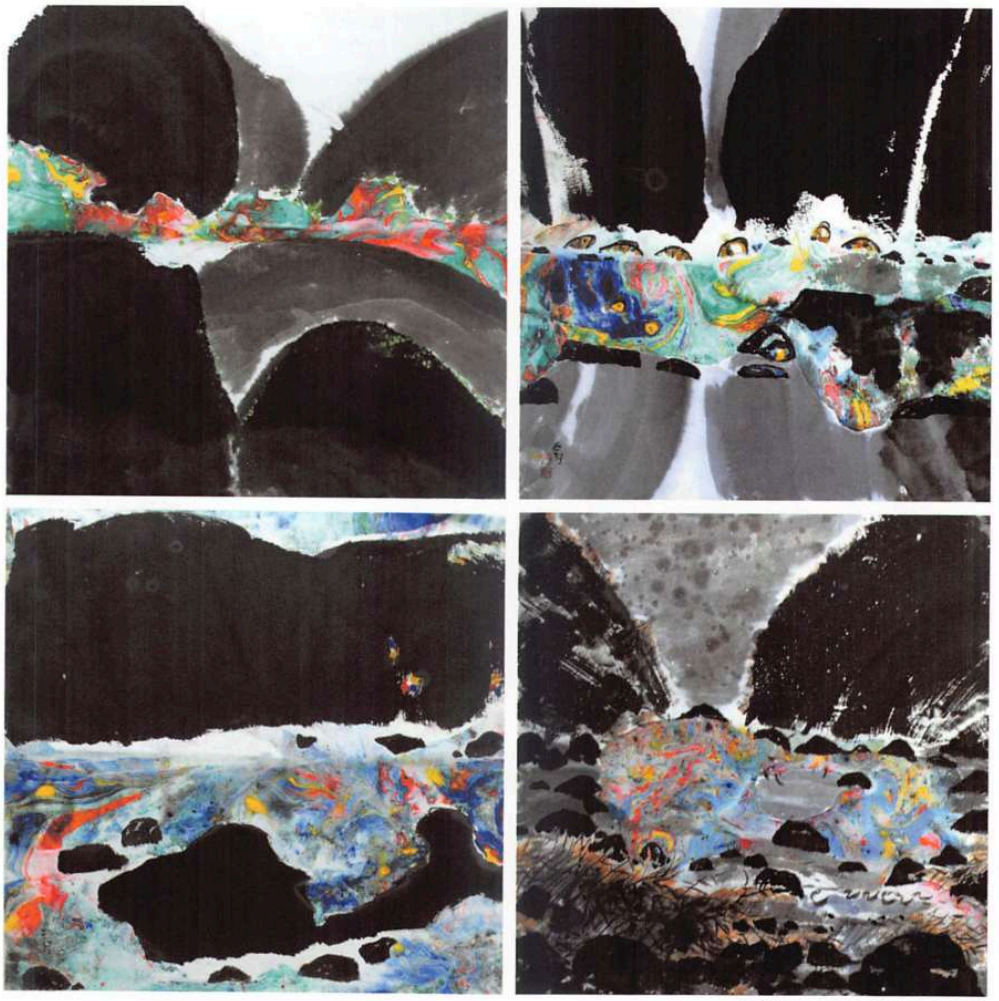
또 세상이 열리는 다음날...

내 사랑하는 그대 손잡고 나드리가리다.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개인전 4회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우묵회, 한국화 구상회, 건지회 회원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 현대아파트 101-202 •전화 : 010-3299-2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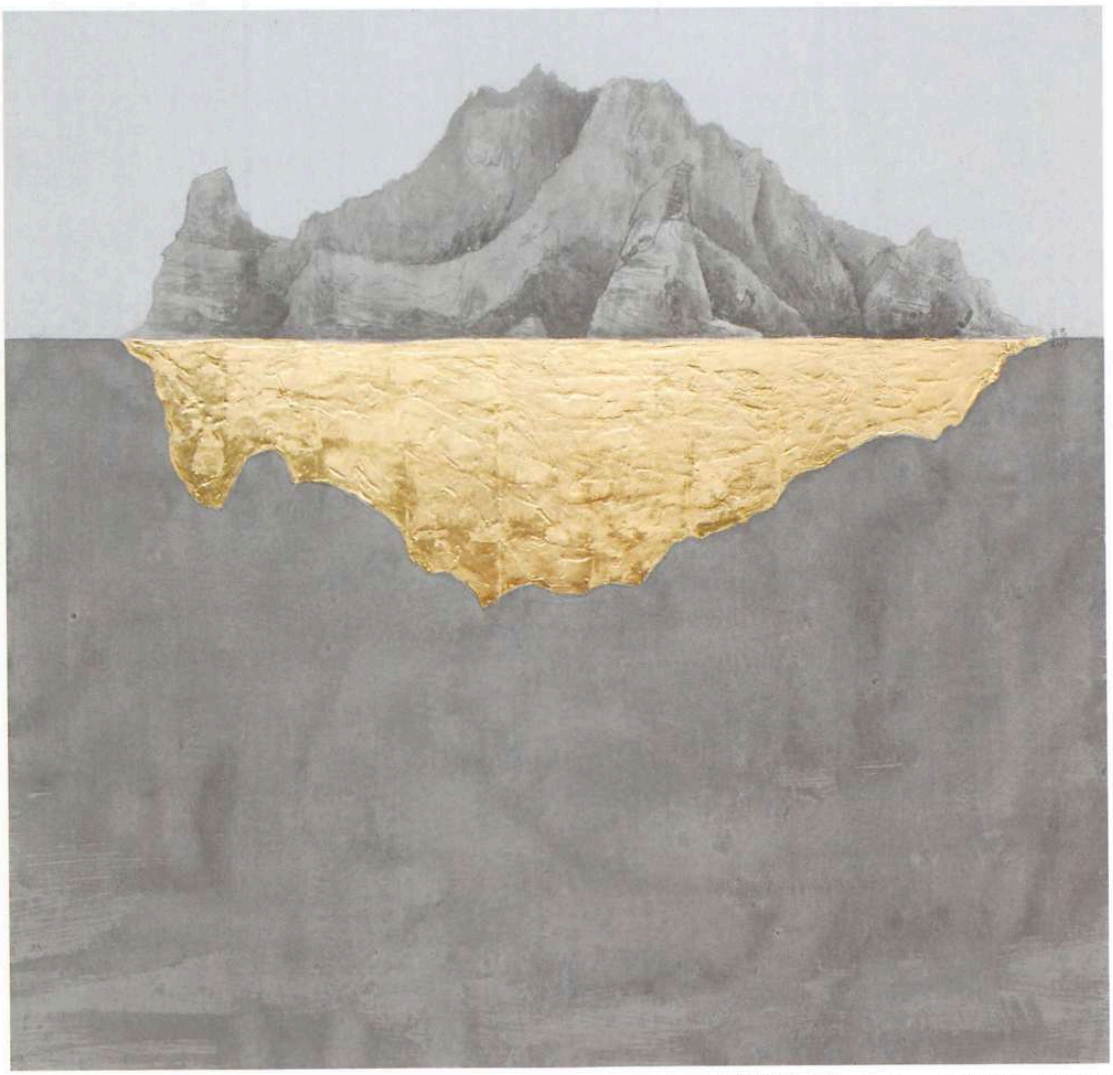


사계 / 20호 4점(총80호) / 紙本彩墨

여행은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한다. 봄에는 전북 순창 장구목으로 여름엔 완주 위봉 폭포 곁으로, 가을엔 고창 선운사 계곡 단풍으로, 겨울엔 익산 웅포 금강변 억새밭으로 찾아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채색이 주는 상징적인 색의 계절 맛이 찬란하다. 샤갈과 클림트 등 많은 화가를 말 하지 않아도 색채는 계절을 아름답게 한다. 색채도 젊어 보이고 청춘을 불러오게 하고 아름답게 나이들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꽃도 척박한 땅에서 더욱 향기가 짙다라고 한다. 인생도 나이 들면서 청춘의 맥박을 고동치게 한다. 사계는 색의 상징을 마블 효과로 표현하여 소통하기 쉽게 하였다. 인생의 맛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승 훈 (Lee, Seung-hoon)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및 同 大學院 美術學科 卒業 •個人展 第3回 •2010 全北아트페어 參加 •그림과 시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出版
•韓國美協, 益山美協, 山墨會, 全北繪畵, 아트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在職 •주소 : (570-090)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E-mail : miseg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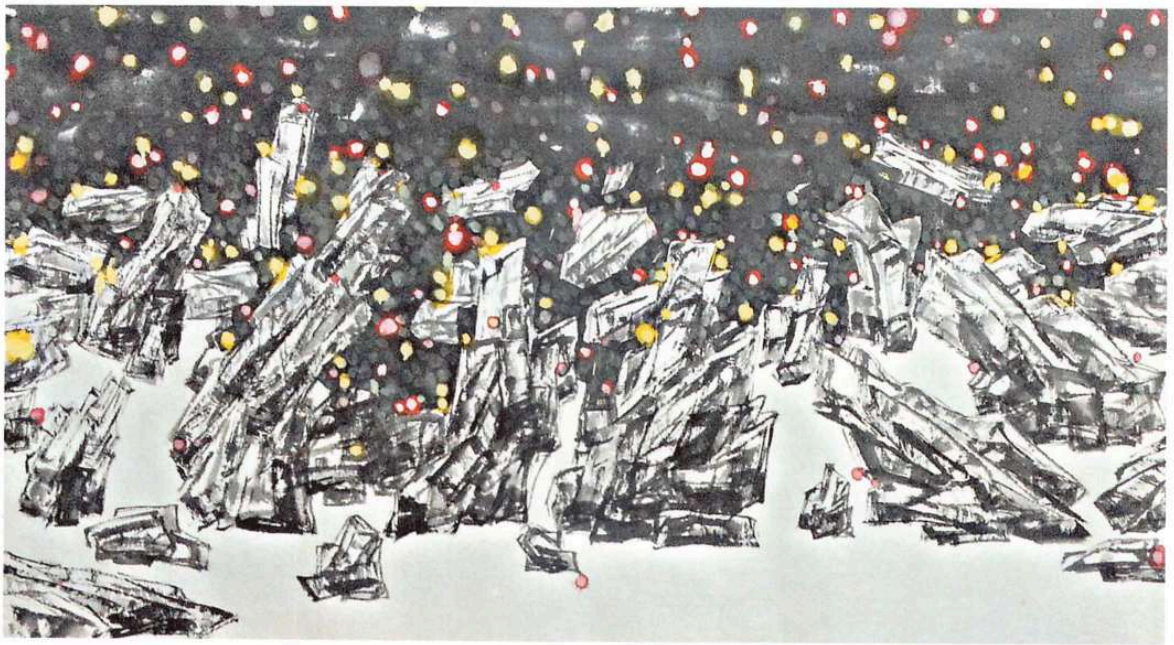


독도무진도(獨島無盡圖) / 122×122cm / 한지에 수묵, 순금박 2013

독도는 우리고유 의 영토이며 영원한 상징이다
독도는 보물섬이다.
수면위로 나타난 독도를 수묵으로 영원성을 표현하였으며
수면 밑의 독도는 무한한 지하자원을 가진 보물섬으로서 순금박으로 표현하였다.

이 철 규 (Lee, Choul-gyu)

•전주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6회(서울, 전주, 미국 등) •전북 청년미술상 및 대한민국 청년작가상 •ART FAIR 21(슈타텐하우스, 독일 퀼른)
•2012 AAF Singapore(F1 Pit BD, 싱가폴) •2012 KIAF(KOAX, 서울) •2012 EUNIQUE 공예 디자인 페어(MESSE, 독일 칼스루헤) •국제현대회화교류전(時間, Time)전(Bes Gallery, 미국 뉴욕)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이상과 허상에 꿈꾸다(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013 ART Karlsruhe(MESSE, 독일 칼스루헤) •우진청년작가전(우진문화공간, 전주) •2013 KIAF(COAX, 서울)
•작품소장:전북도립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전주역사 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백운장학재단 •현) 예원예술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주소 : 560-28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75-2 좋은하우스 2층 203호 •TEL : 070-7572-4247(집), 063-640-7205(학교), 010-4279-3775 •E-mail : cicu111@hanmail.net



墨想 - 2013 / 145×75 / 수묵담채 2013

먹향의 깊은 맛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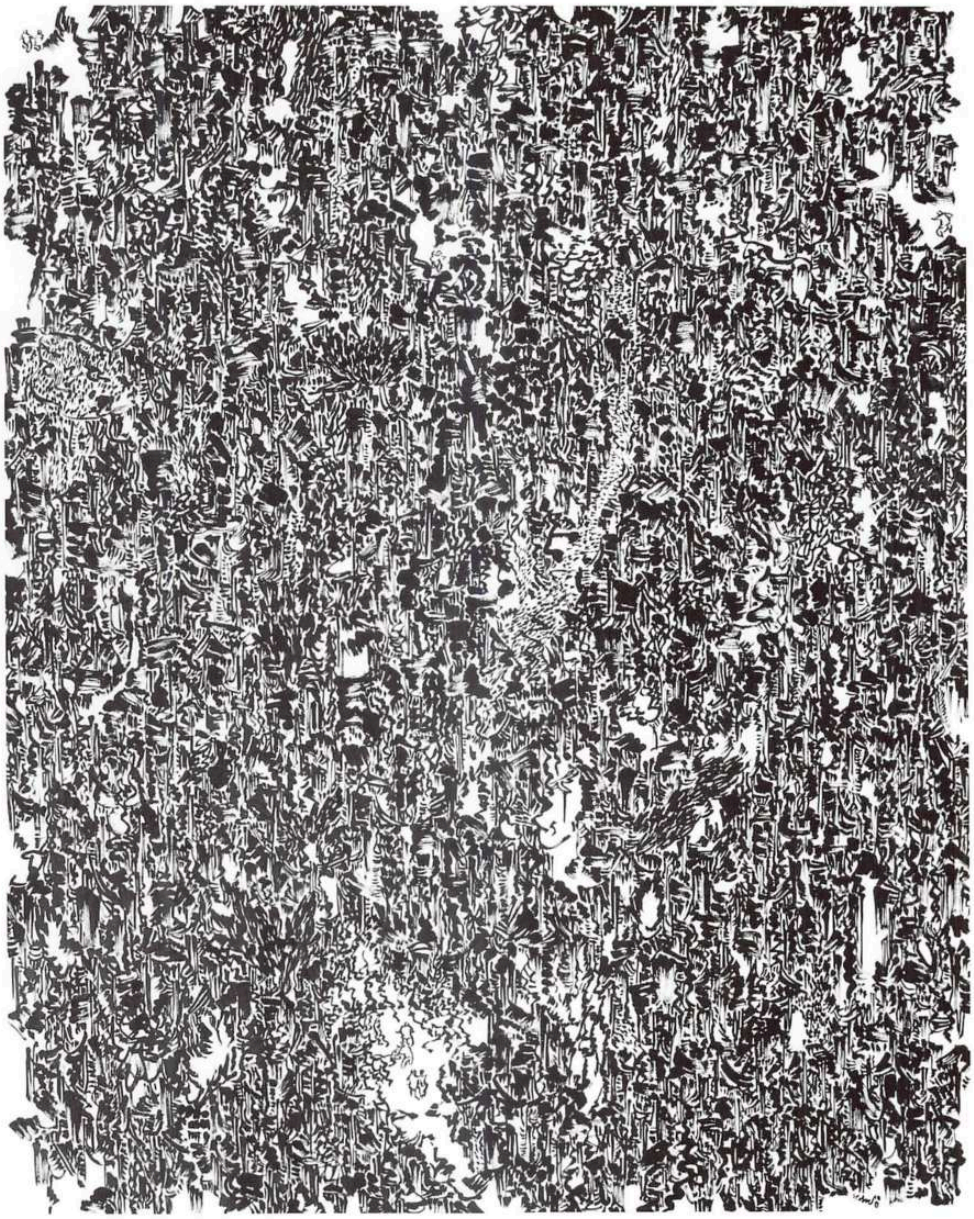
외갓집 뒷동산엔 커다란 바위가 많이 있었지

그곳에 가을이 되면 온통 홍시로 붉게 물들곤 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 풍경이 남아있나 보다.

이 환 배 (Lee, Whan-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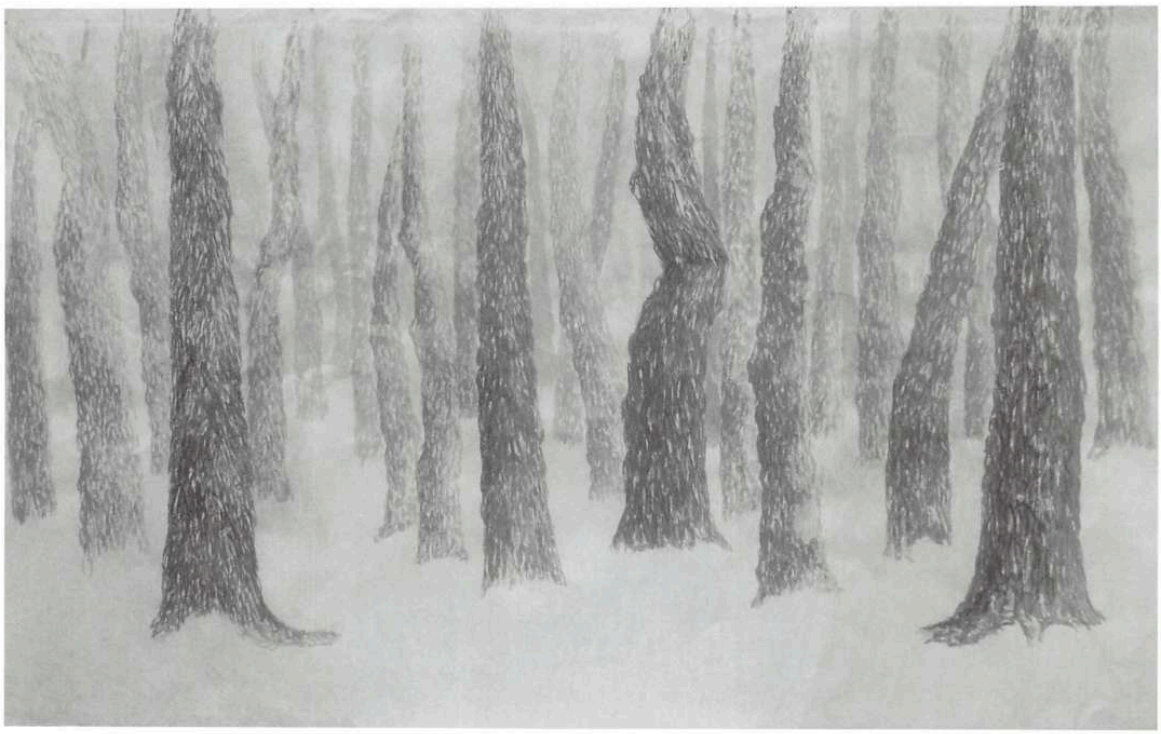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現)그린성 총원장
•주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진흥W-park 107/1101 •전화:010-3673-1562, 063)283-6512



city 1365 / 132×160.5cm / 캔버스에 먹 2013

이 철 량 (Lee, Choul-rya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1986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2003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2007 한국화 1953-2007년(서울시립미술관)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2013 KIAF(Gallery MEE)
*현)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TEL : 011-650-9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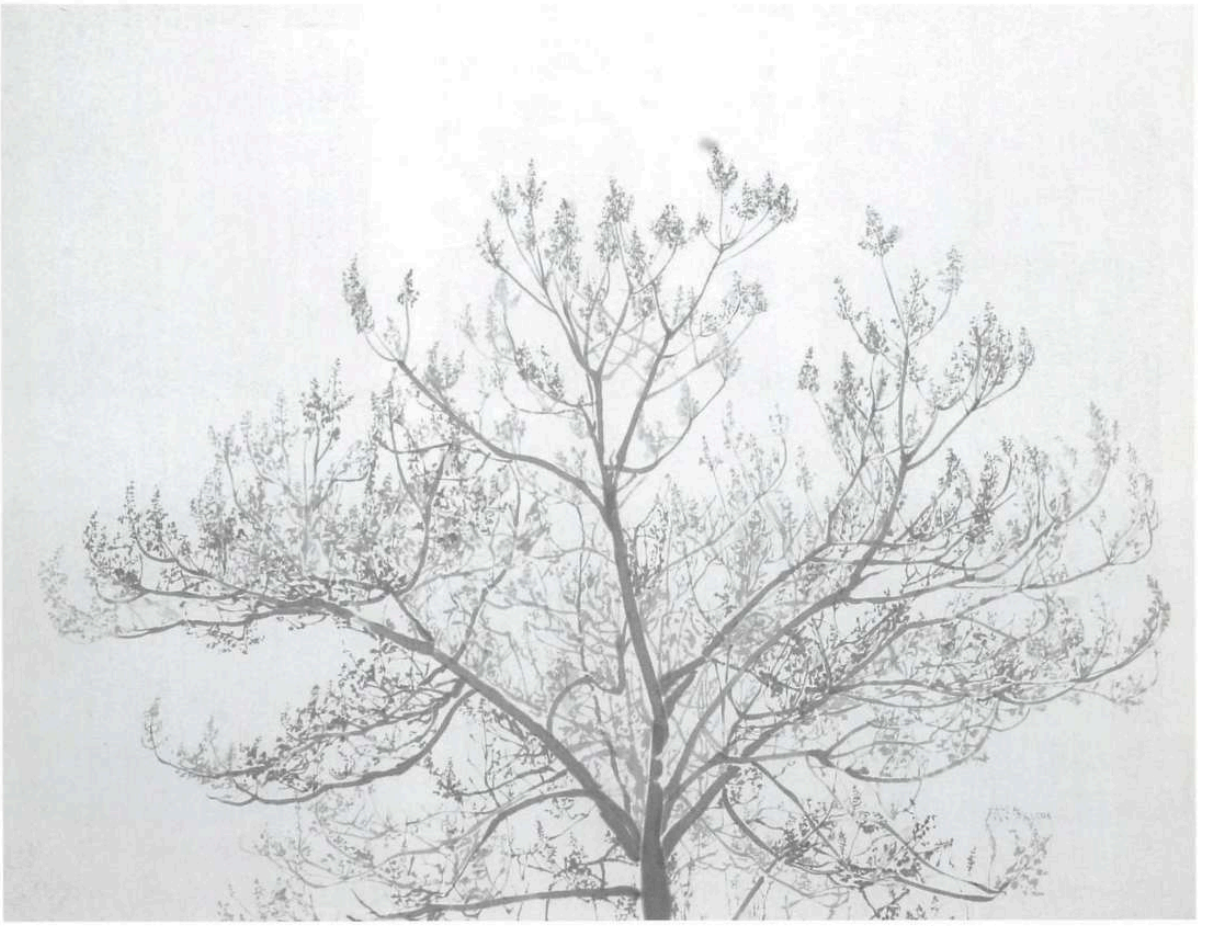


겨울에는 / 145×140cm / 한지에 수묵 2013

찜통 속보다 더한 더위가 왔다. 그 더위 속에서 나를 보겠다며 나에게 찾아 온 소나무들,
굽은 듯 하면서 곧게 뻗은 이 녀석들을 화면 가득 채우고 하나씩 다듬고 키우다 보니
세월은 어느 덧 가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나뭇잎들이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심지어 어느 녀석은 성질 급하게 벌써 옷을 다 갈아입었다.
올 한해 괜스레 부산을 떨었지 정작 나에게는 걷어 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허무하다.
그래도 나뭇잎들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준비하듯이 나도 새로운 나를 찾아야겠다.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출품 •현) 원묵회, 전북회회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한국미협회원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전화 : 010-4605-9876 •E-mail : waltzz@nate.com



나무 / 132×160cm / 화선지에 수묵 2007

내가 쓰고 있는 재료들은 우연적인 요소와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재료로친숙한 것들을 찰나에 그리는 순간 생경함에 매료가 되어버린다.
가끔 세상이 생경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생경함은 강렬한 실존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러한 느낌을 좇아 작업을 하게 된다.

박 성 수 (Park, Sung-soo)

• 1980 전주 출생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2012년 fortyfivedownstairs 갤러리, 호주 외 9회 • 단체전 3회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바라보다 / 94×64cm / 한지에 수묵 2013

같은 풍경을 두 달 정도 지속적으로 지나친 적이 있다. 그 풍경을 꼭 바라보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는 아니었으며, 정해진 시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반복의 시간이었다.

같은 풍경을 두 달 정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상적인 것들의
작은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소리 없이 변화되는 것들의 움직임을 그림 안에 표현해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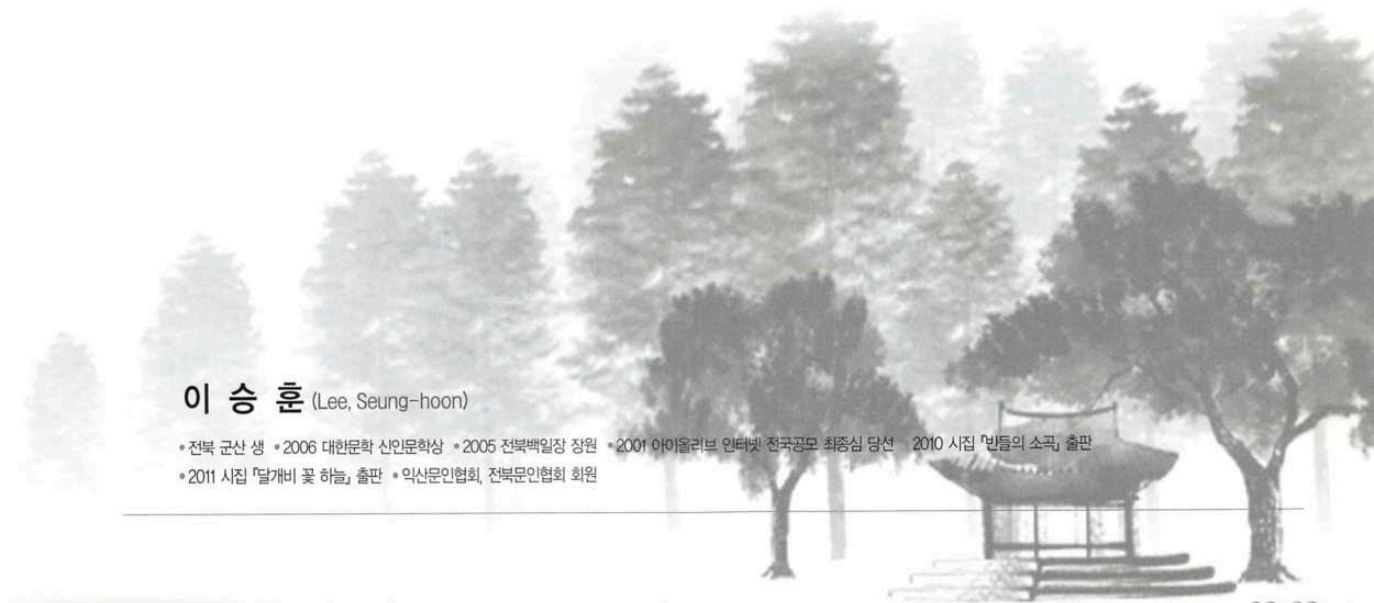
고 형 숙 (Ko, Hyoung-sook)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과 졸업 • 개인전 7회 및 단체전 80여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206-2번지(우 565-842) • 전화 : 010-9170-1833 • E-mail : mimi1001@hanmail.net

회 심(悔心)

서야 **이승훈**

우리 마을 앞산
작은 암자를 품고
느티나무를 금강역사상으로 삼고
산수국을 고봉밥처럼 내 놓은 오후
범종루에 살 던 굴뚝새가 풍경을 울리며
오수를 깨운다
욕망에 가린
말씀 한 마디
저잣거리로 나온
가슴앓이
쌓이는
마음



이 승 훈 (Lee, Seung-hoon)

• 전북 군산 생 • 2006 대한문학 신인문학상 • 2005 전북백일장 장원 • 2001 아이올리브 인터넷 전국공모 최종심 당선 • 2010 시집 「반들의 소곡」 출판
• 2011 시집 「달개비 꽃 하늘」 출판 • 익산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회원

북

글 **양정숙** (조선대학교 E-tonic 사업단 전담 교사)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북, 솔, 인두, 숯다리미, 불손, 다듬이 방망이, 홍두깨, 등등. 북을 집어 들고 헤어졌던 어린 시절 친구가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요모조모 살피며 눈을 맞추었다. 주인은 이를 귀목나무 북이라 알려주었다.

바게트빵처럼 생긴 기다란 통나무 중앙에 고구마 하나가 누울 정도 깊이의 직사각형으로 파낸 그릇 속으로, 실오라기 한 가닥이 겨우 빠져 나올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정교하고 매끄럽게 손질된 것으로 보아 무척 정성을 들여 만들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보자 윤오영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이 떠올랐다. 수필에 나오는 주인공 노인은 장인이었다. 명예를 걸고 방망이를 깎는, 어떤 이윤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최고품의 방망이만을 추구하는, 자손심이 강한 그런 장인이었다. '이를 만든 사람도 그 노인처럼 장인 정신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보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유선형으로 양 날개가 날렵하게 생긴 몸을, 손을 펴서 이리저리 쓰다듬어 본다.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온기로 살아난다. 한 쪽 꼬리를 쥐니 손 안에 쏙 들어온다. 이쪽저쪽 손을 바꿔 가며 살살이 훑어본다. 가슴이 싸해온다. 동지섣달 긴긴 밤, 자다가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베틀에 앉아서 찰카닥 찰카닥 베를 짜고 있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매운 시집살이도, 올망졸망 딸린 시동생들을 기르는 일도 손익계산에 넣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자신의 업보로 여기며 그래도 자존심만은 잃지 않고 지켜온 올곧은 가정을

주말이면 열리는 '문화 장터'로 나갔다. 우리 선조들이 썼던 물건을 놓고 글을 쓰다가, 거기에 가면 옛 물건을 더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였다. 도로 가에는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어린 시절에 같이 끼고 살았던 물건들이 진열되어 마치 키 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후손에게 넘겨주었다.

다시 북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마치 베니스에서 봤던 보트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역사를 뒤적여 보면 우리 조상이 서양 보다 훨씬 앞섰던 시대가 있었다. 고려 고종 때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냈고, 세종대왕은 세계 최초 지시 우량 관측기구인 측우기를 발명해 냈다. 그렇다면 베니스 주택가에 실핏줄처럼 연결된 물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보트는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이 북을 본떠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이는 14-5세기경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던 베니스 상인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우리네 안방을 몰래 엿보고 간 결과물일 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다듬이 방망이는 무게가 있고 트지 않는 박달나무를 사용했는데 북은 귀목나무를 쓴 것을 보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 보아 이 나무는 습기에 강한 모양이다. 베를 짜려면 북에 꾸리로 감은 실을 담아 놓고 엉키지 않게 촉촉이 물을 적셔 술술 빠져 나오도록 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발갛게 절은 나뭇결이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이는 손때가 묻었든 다른 도구를 사용했든 반질반질 길이 나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몸이 거칠고 날렵하지 않으면 실을 할퀴기 때문에 베를 짜는데 순조롭지 못하다.



육이오가 막 지나서였다고 기억된다. 내 할머니와 어머니는 사이 좋은 동업자였다. 큰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혼자서는 힘에 겨웠을 것이다. 손을 꼽아 보니 그 때 어머니는 이십대 후반의 나이였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눈물을 달고 살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 다닐 때도 서러움을 그렇게도 이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펐던 것보다도 큰 살림을 혼자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겁이 나서였던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할머니가 비워둔 자리에는 어린 딸, 여덟 살 짜리 내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하던 일을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밤에 실 잣기 품앗이를 가면서 나에게는 과제가 주어졌다. 물레로 뽑아 놓은 실로 북에 담겨질 꾸리를 감는 일이었다. 자정쯤 되어 품앗이에서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꾸리 감기를 계속했다. 품앗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어린 나의 손을 어루만지며 많이 안쓰러워했다. 어린 네가 무슨 죄냐. 할머니가 계시면 잠을 자고 있을 네가, 하시면서.

그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을까. 어머니 말을 잘 듣는 딸이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을 채우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칭찬이라는 선물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랬다. 네가 감아 놓은 꾸리로 베를 짜면 얽히지 않고 잘도 풀려 나온다고.

글을 쓰다가 풀리지 않아 행여나 하고 소재를 찾아 나선 것이 마치 횡재라도 한 것처럼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또한 품속의 북이 금방이라고 실을 풀어내며 나에게 말을 걸어올 것만 같다.

'정숙아, 실을 감고 있는 어린 너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구나.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지? 이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야. 오늘날의 커다란 산업도 이렇게 시작해서 발전해 오지 않았겠니?' 라고. ▣

약력

- 등단년도 : 1995년1월 월간 수필과 비평 신인상
- 現) 한국문인협회, 광주 문인협회, 전라수필문학회 회원
- 수 상 : 대한문학상(수필부문) 여수 해양문학상(소설부문) 광주 전남 아동문학인회(동시)
- 수필집 : 『엄마 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재밌당가』
- 現) 조선대학교 E-Ionic 사업단 전담 교사
- 전화 : 010 3337 6519 / (062) 527 6519

013 부채문화관 기획
이천십삼년 + 전북 강화 + 전시리뷰



이봉금 개인전

바람이 머무는 곳

2013. 7. 18 (목) - 8. 7 (수)
초대 : 2013. 7. 18 (목) p.m.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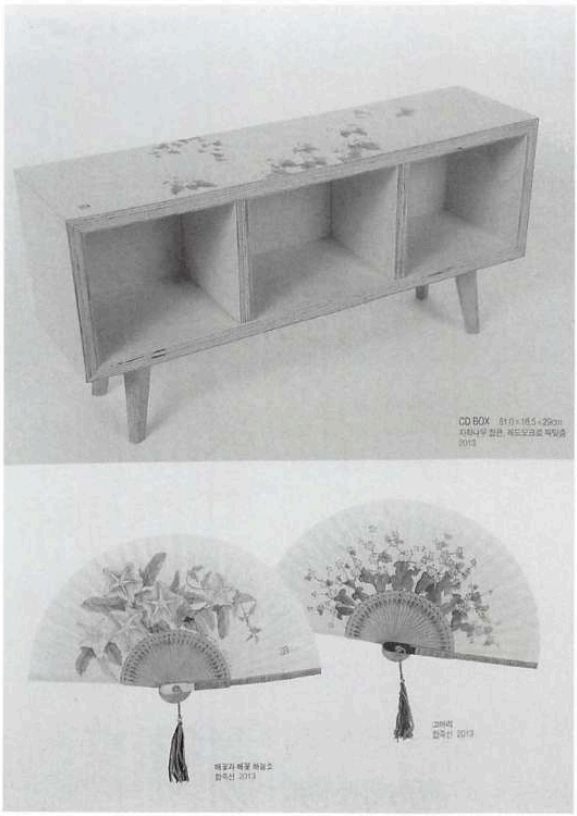
매직트리 가구제작
노덕원 선자장 합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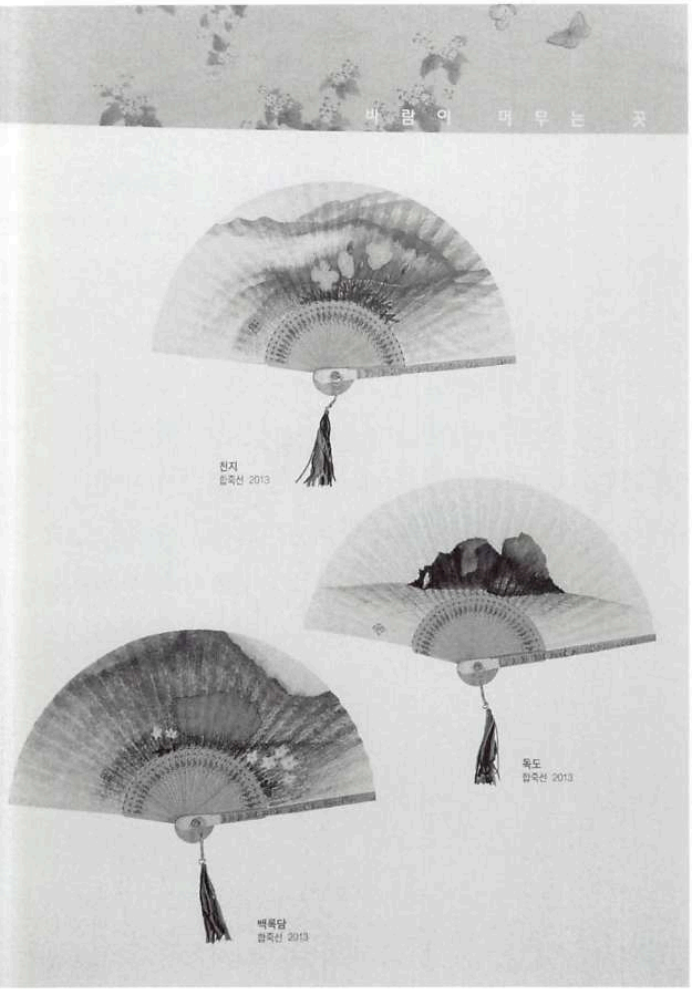
전주문화재단 전주부채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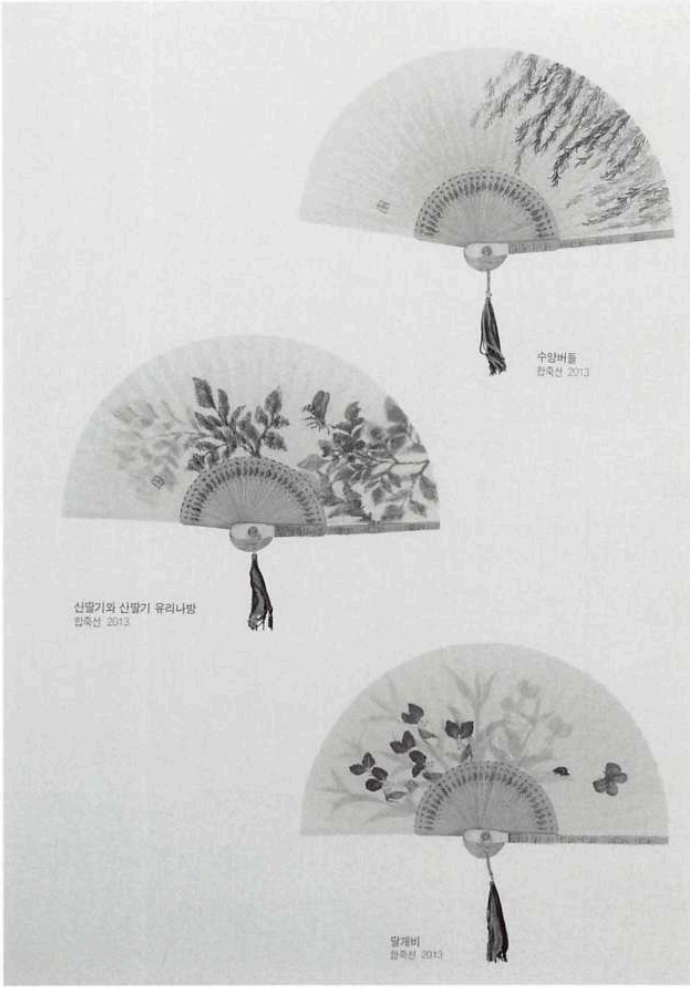
이봉금 개인전
'바람이 머무는 곳'

▪ 전시기간 2013. 7. 18(목)~8. 7(수)
▪ 전시장소 전주부채문화관

2013년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다. 짧은 봄을 뒤로하고 급하게 찾아온 여름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 곁에 머물다 갔다. 부채를 기증받아 이루어진 부채전을 기획해주신 부채문화관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전시의 주제가 '바람이 머무는 곳' 이었던 만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선화에 담았다. 또한 결혼 5주년을 기념하여 남편이 만든 나무가구에 그림을 그려 넣어 부부 전시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부채와 가구가 함께 어우러진 전시가 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회화의 변신을 시도해 보았고,

그림이 다른 분야와 만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상승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인 생활회화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볼 가치를 느낀 전시였다.



달개비
합죽선 2013



이 봉 금 Lee Bong Keum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지안리즈 아파트 101-504 (우 : 560-899)
전화 : 010-9277-7231
E-mail : pumucle200@naver.com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2 제 4회 개인전 - 공존(共存) (교동아트스튜디오, 전주)
2012 제 3회 개인전 - 新草蠢圖-共存, 석사논문청구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2011 제 2회 개인전 - 共存 (까사 디 라고 갤러리, 군산)
2009 제 1회 개인전 - 共存 (우진문화공간, 전주)

단체전
2013 건지한국화회전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
국제경기안산아트페어 개인부스전 (안산예술의 전당, 안산)
2013 한국여성미술제 (이형아트센터, 서울)
기획전 - 최명희 문학관 "혼불" 선면전 (전주부채문화관, 전주)
기획전 - 계사년 뱀띠전 (최북 미술관, 무주)
기획전 - 송구영신전 (전주부채문화관, 전주)
2012 대한민국 현대한국화 페스티벌 (대구)
녀수(女水)클럽전 "한뼘의 나눔" (군산, 모세스 영아원)
전주한옥마을아트페어 (Yong Artists Art Fair) (한옥마을 특별야외부스, 전주)
아시아 그리고 '쌀' 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건지한국화회전 (지프떼끄, 전주)
전북회화회전 (교동 아트센터, 전주)
초대전 - 삼도헌 한옥 갤러리 (삼도헌, 전주)
초대전 - 최북미술관 개관전 (최북미술관, 무주)
초대전 - 선재미술관 개관 4인전 (선재미술관, 전주)
2012 한국여성미술제 (이형아트센터, 서울)
2011 아시아 그리고 '쌀' 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녀수클럽전 (효사랑병원, 전주) / 자화상전 (서신갤러리, 전주)
전북회화회전 (교동아트, 전주) / 건지한국화회전 (교통아트, 전주)
자화상전 (서신갤러리, 전주) / 토끼전 (전북대학교예술진흥관, 전주)
2010 건지 한국화회 (전주 시민갤러리, 전주)
아시아 그리고 '쌀' 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초대전 - 한국화 신바람전 (전북대학교예술진흥관, 전주)
초대전 - 형상의 탐구 (아카갤러리, 전주)
아시아 블루닷엠 기획아트 페스티벌 (부산)
그 외 단체전 00회

수상
2009 한국미술대상전 우수상
2005 온고을대전 입선

합죽선 : 노덕원 선자장
가 구 : 매직트리 DIY 가구공방



주최 : 전주문화재단 주관 : 전주부채문화관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560-0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경남동 37) 67-6) | 063-231-1774 | http://tan.jjcf.or.kr

1차 전시 17회

이철규 개인전

네 번째 금이야기 (Gold story)

- 전시기간 2013. 06. 19(수)~06. 25(화)
- 전시장소 인사아트센터 제1전시장(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2차 전시

이철규 초대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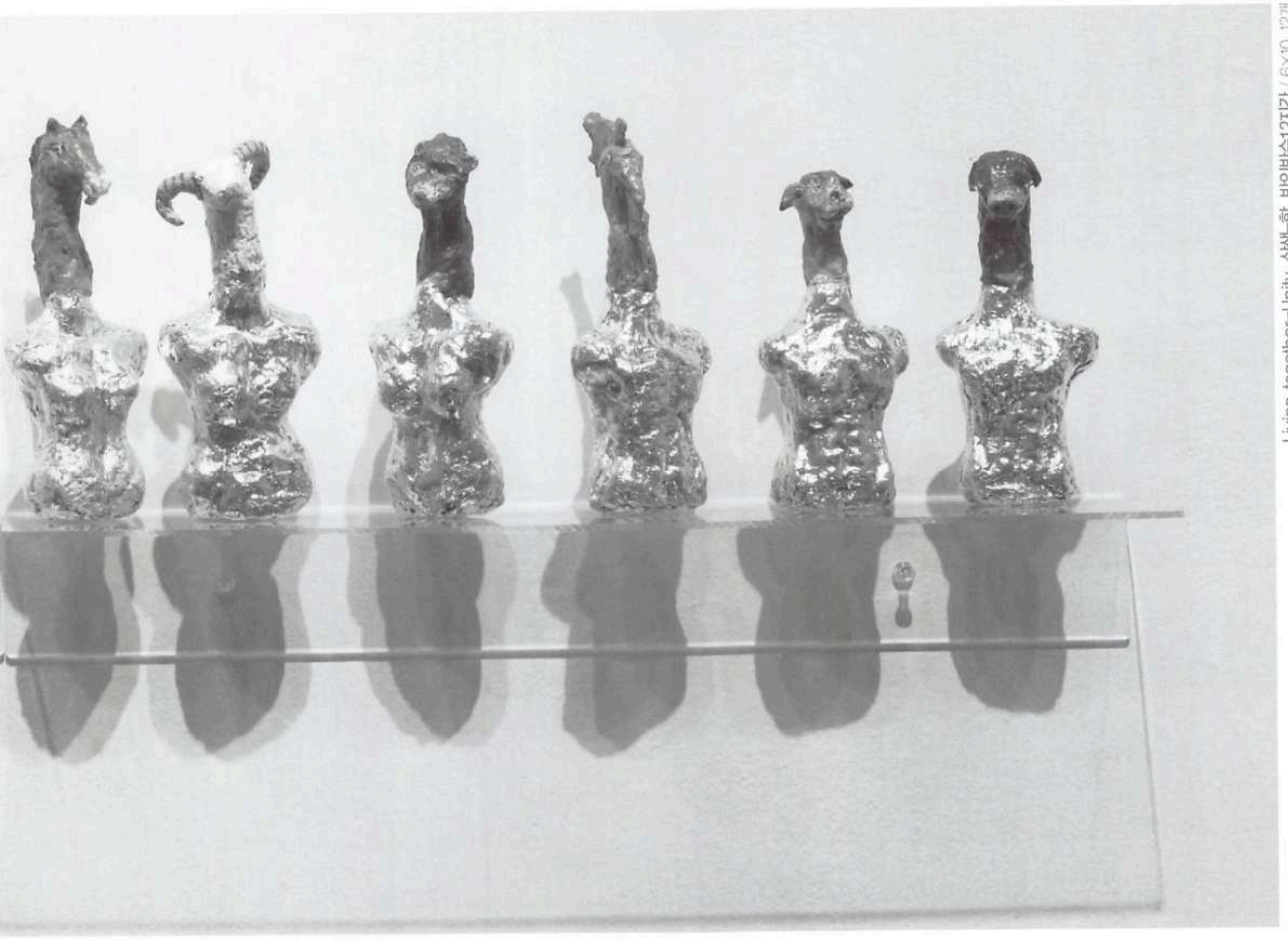
다섯 번째 금이야기 (Gold story)

- 전시기간 2013. 09. 12(목)~09. 25(수)
- 전시장소 공유갤러리



작가 이철규의 작업을 살펴본다면 몇 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작가의 작업이 다분히 전통적인 형상들을 조형의 틀로 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른바 '손맛'으로 대변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통해 표출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문명은 기계문명의 절정이다. 이러한 문명 상황 하에서는 기계적인 가치는 점차 쇠퇴하고 모든 아날로그적 가치가 존중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모든 아날로그적 가치는 모두 예술의 영역으로 수용되어 보존되고 존중될 것이다. 일단 작가의 작업은 금박이라는 대단히 강한 시각적 자극을 지니고 있는 재료를 작업의 지지체로 삼고 있다. 이의 조형화는 반복적인 수공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토용(土俑), 혹은 토우(土偶)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상들은 아날로그적 손맛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일단 작가는 전통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작업의 핵심 요체로 삼고 있는 셈이다. ▣

김상철 (동덕여대, 미술평론)



Living together-Unity, 상봉-합, 반인반수12지간 / 6×10, 12개

REBOOTING
젊은 시각! 젊은 모색!
C.ART 2th Exhibition

글 **박성수** (전북회화회 회원)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전북 지역의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c.art 그룹의 전시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영어이름인 c.art와 한글 발음으로 '씨앗'이라는 중의 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의 전시현장을 다녀왔다.

전시장에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작가들의 참신한 작업들이 조심스럽게 걸려있었다.
현재 c.art를 이끌고 있는 김지현 작가를 통해 작품설명과 더불어 그들의 각오를 들어볼 수 있었다.

Group C.ART
2013. 10. 9수 ~ 2013. 10.15화
Opening _ 2013. 10. 9(수) PM 6:30
우진문화공간

● c.art를 만들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전북의 젊은 작가들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미술시장, 그리고 정체된 지역 미술계의 상황과 맞물려 대다수가 작업 활동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취업률과 학교지원율로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로 인해 미술대학은 축소와 폐과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전북지역에 있는 대학교 졸업전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한데 모여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마음이 맞는 10명이 모여 작년에 첫 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인 저를 포함한 젊은 작가들은 불안정한 창작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그 대안이란 무엇인가요?

경기침체등으로 당장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중앙에 비해 전북지역은 미술과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작가들간에 교류하고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미술행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가들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평가들을 직접 초빙하여 현장의 소식을 듣고자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지역 선배작가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참가하셨던 평론가 이진명 선생님을 모시고 치열한 미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수 있었으며, 군산에서 작업을 하시는 강용면 선생님을 모시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진명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카를 만하임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독이 존재의 사유구속성이라는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천에서는 잉어밖에 날 수 없다' 라는 말로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는 환경안에서 사유할 수 밖에 없는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천이라는 한계, 환경을 결국 작가는 작업으로 승화를 시키게 되면 함축적으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록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10년 20년 동안 길게 보고 인내를 가지고 하다보면 그 환경이 좋은 작업의 모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그렇다면 이번 전시 작가의 작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연 작가는 변형 캔버스를 오브제로 이용한 작품을 하는데 이는 변형 캔버스가 독립적인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과,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개체적 환경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갠버스 안에 인물은 김도연 작가 본이이지만 보통 캔버스 안에서 자신만의 어법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과는 다르게 그녀는 캔버스 안에서 자기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김판묵작가로 그의 작품 속에 나오는 방독면과 가면은 왜곡된 소통, 모순, 본능, 안도등 이 모든 음흉하고도



치밀한 속내를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나 자신을 모두 배제한 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가면을 꺼내어 쓰고,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들은 방독면을 통해 여과한다고 합니다.

또 최우수 작가는 정신적 치유, 깨달음 혹은 빛에 대한 열망을 원의 형태로 보여줌으로서 원 안의 작은 조각과 기호들로 표현했습니다. 작은 조각들은 그가 말하는 무한한 정신계계의 일부를 표현한 것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치유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매년 올해와 같이 미술계 전문 큐레이터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 왔던 중견작가 선배님을 초빙하여 작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워크숍 형태의 세미나와 개인작업 프레젠테이션등의 프로그램을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보다 깊이있는 작업을 매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독일에서의 'Fluxus'나 영국의 'Y.B.A'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큐레이터, 컬렉터, 혹은 다른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단체를 이루었고 그 시너지 효과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단체또한 비록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예술관이 크게 퍼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제 2년된 땅속의 씨앗이 머지않은 미래에 싹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2013. 10. 박성수)





최윤진 작업실을 찾아서...

글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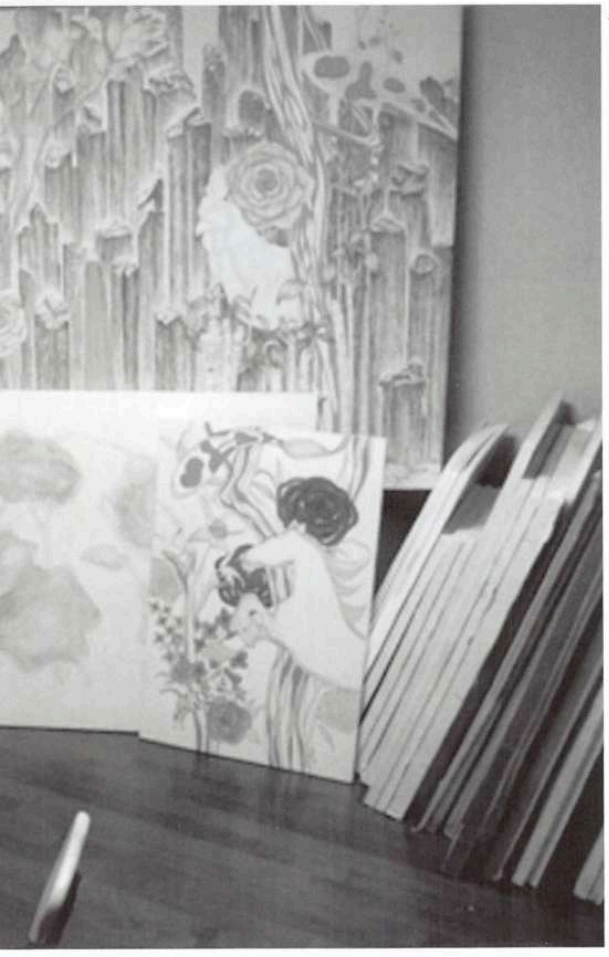
최윤진

生. 1990 군산
2013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2009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 졸업
2013 초대전 – Night-Time Fancy (오블리제 갤러리 카페, 전주)
초대전 – New Heaven (차녀 갤러리 카페, 전주)
2013 제2회 전주 부채 단오 예술제 (한옥마을 부채문화관, 전주)
2012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아트페어 (한옥마을 태조로쉼터, 전주)
단체전 4회
roooooooor@naver.com
roooooooor.blog.me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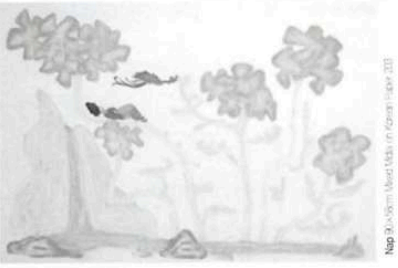
늦은 밤 가져 나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집 앞 호수공원을 산책한다. 산책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피로를 느낀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쓰다듬고 위안한다. 고요한 수면 위로 반짝이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나뭇잎이 떨어진 촉촉한 흙을 밟으며 나 홀로 숲길을 거닌다. 흙냄새, 풀냄새 맡으며 터벅터벅 걷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 응어리졌던 설움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진다. 자연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내면을 치유해준다. 우리의 삶과 함께 호흡하고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무한한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 이러한 나의 작업은 자연을 관심 있게 보고 관찰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느껴본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에서 나온 비현실적이고 자유로운 이상화된 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해보며 오늘도 나는 종이 위에 꿈을 펼친다. 나의 작품을 보고 모든 관람객이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낯선 곳에서 자유와 휴식을 취하며 작품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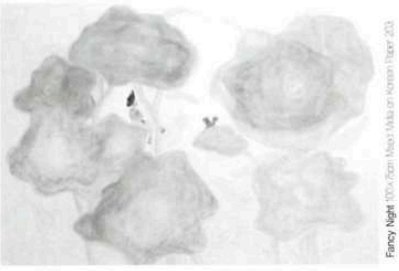
최윤진 작업공간



Take A Walk 130×8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3



Nap 130×8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3



Fancy Night 100×7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3



Garden 85×56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3

작업 방향, 특징

나의 작업은 변화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상상과 은유를 통해 변환시킨 것이다. 나만이 가진 개성과 감성을 드러내며 마음속 이상향의 풍경을 그리고 늘 새롭고 신선한 일을 꾸미며 시도하고 변화한다. 작품마다 한복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는 서구화된 현대문명사회에서 쇠퇴하여가는 전통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머리에 쓴 가채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신분상승, 우리들의 이중성을 뜻한다. 갈수록 도시화되는 세계와 커지는 우리의 욕망은 멈출 수 없다. 그로 인해 자연의 오염은 더욱더 심해지고 삶에 지친 현대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 할 것이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어둡고 힘든 길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며 동물과도 의사가 통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싶다. 지루하고 제약된 상황에서 벗어나 힘들고 오염된 험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공감 할 수 있는 이상향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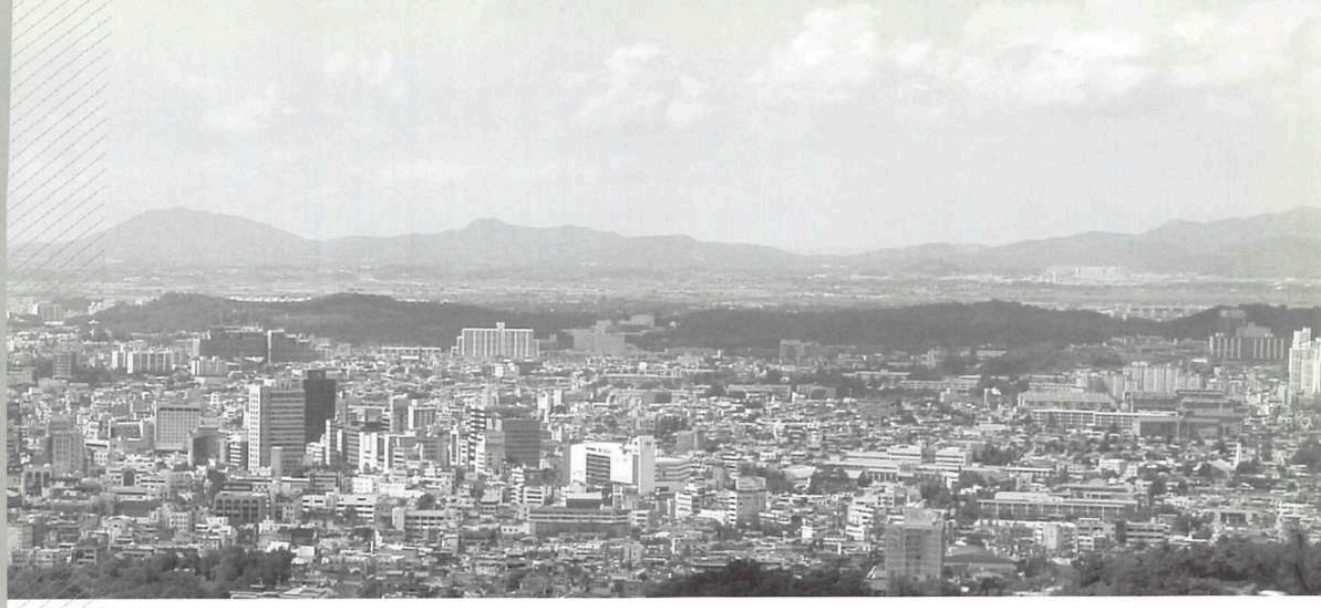


전주의 전시공간

글 김 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민족미술인협회)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관람문화가 확산되면서 전시공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소비가 많아지면서 향유의 층도 확대되고 다양해진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 행정과 상업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어 전북화단 화가들의 대표적인 활동 근거지중 하나이다. 기록물 상으로는 일제강점기 전주 '공회당(公會堂)'이 1923년 《동아일보》에 기재된 규수서화전람(閨秀書畵展覽)가 최초로 확인되고 있다. 1925년 이곳에서 황가4형제 중 황용하 의 개인전이 열렸으며 일반인에게 무료관람하게 하였다. 이후 1927년 아동도화전람회(兒童圖畵展覽會)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전주 공회당의 정확한 공간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1927년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전주일보도화전람회(全州一圖畵展覽會)가 열렸는데 이 기사를 통해 전주 공회당 공간의 규모와 관람열기를 알 수 있는데 2일 동안 천여명을 수용할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미술작품 수 또한 많았음을 짐작하게 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인원을 통해 두터운 수요층을 확인할 수 대목이라 하겠다.

전주일보도화전람회(全州一圖畵展覽會) 전북 전주 제일보통학교(全北全州第一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이십이일(二十二日)부터 이십삼일(二十三日)까지 전주 공회당(全州公會堂)에서 도화전람회(圖畵展覽會)를 개최(開催)한바 관람자(觀覽者)가 천여명(天餘名)에 달(達)하여 성황(盛況)을 이루었다더라.《동아일보》, 〈湖南地方(호남지방)〉, 1927.03.26



1931년 양화백전람회(兩畵伯展覽會)를 개최하는데 발기(發起)에 참여한 화가는 이강원, 김희순, 박정근 등 50여명과 초대작가로 소정 변관식과 이경배가 있다. 이응로가 전주 중앙동 4가 24번지에 '개척사(開拓社)'라는 상점을 열고 건물도색과 간판제작 하였으며 1933년 전주 공회당에서 개인전을 하는 등 일제강점기 전주 공회당을 중심으로 화가와 수요층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1951년 유병희는 종군 시 보고들은 기록화 50여점을 모아 전북 최초의 종군미술전을 전주 공회당에서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작품의 내용으로는 전쟁의 비극과 극한 상황 속의 인간갈등을 묘사하여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유병희 종군시록화전 이후 기록물에서 공회당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전주를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전주부사(全州府史)에도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정 건물의 회의장과 같은 곳이 사용되어 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당시 전주 공회당에서 이루어 졌던 전시를 신문기사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명	년 도	기 사 제 목
동아일보	1923.09.12	閨秀書畵展覽(규수서화전람)
동아일보	1925.05.14	全州(전주)에 書畵展覽(서화전람)無料入場(무료입장)을 許(허)한다고
동아일보	1927.03.22	湖南地方(호남지방)-兒童圖畵展覽會(아동도화전람회)
동아일보	1927.03.26	湖南地方(호남지방)-全州一圖畵展覽會(전주일보도화전람회)
동아일보	1931.02.18	兩畵伯展覽會(양화백전람회)
동아일보	1933.10.11	全州個人展(전주개인전) 李應魯氏開催(이응노씨개최)

표-1) 전주공회당 전시 기사 연보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전쟁을 전후로 부족했던 문화시설의 역할을 '미군공보관'이 충족하게 되는데 '한미공보관', '미군공보관', '미국공보원' 이라고도 불렸다. 1952년 5월 합동수채화전에 참가했던 하반영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80에 위치했으며

녹색 돔 형태의 건물이 2동 자리 잡고 있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미군에 관한 선전활동 이외 공연, 전시, 작품슬라이드감상, 미술 강의 등이 이루어졌고 전시는 미군의 주최로 이루어 졌으며 그림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의 영향으로 많은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1964년 《경향신문》의 기록을 보면 전국 8개 시(市)에 미국공보원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공보관들은 영화기재, 잡지, 책, 전시물, 슬라이드, 녹음기, 발전기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기능으로서 도서관, 전시장뿐 아니라 잡지와 신문을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 (중략) 대전(大戰)후 미국공보원(美國公報院)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갖가지 문화 활동을 전개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 부산(釜山), 대구(大邱), 인천(仁川), 청주(淸州), 대전(大田), 원주(原州), 광주(光州), 전주(全州)등지에서였다. 도서관 시설이 있었고 영화며 각종전시 및 간행물(신문, 잡지 등)을 만들어 배포했었다. 그러다가 6.25동란을 전후하여 그들의 지방 활동은 깨끗이 축소되었고 대개의 경우 그들의 시설은 철수 되었다. 대전(大田)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전부 혹은 일부시설을 우리의 지방관청이라든지 민간대표에게 넘겨준 일이 있지만, 한국 관청 혹은 민간은 그것을 인수하여 문화관(文化館), 공보원(公報院), 문화원(文化院)등의 이름으로 바꾸었고 오늘과 같은 문화원(文化院)의 남상(濫觴)이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주로 군청(郡廳)소재지에 잇달아 나타난 문화원(文化院)들도 거기서 영향되고 자극된 것 이었다. (중략)《경향신문》, 〈文化院(문화원)의 나아 갈길〉, 1964.02.12

1952년 피난중이였던 홍익대학이 홍대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5월에 합동수채화전이 개최되었으며 11월에는 전북초등고생 종합미술전람회가 열렸다.

1954년 5월에는 중국계미국인 국제화가 통킹만의 수채화전이 열려 신상미술회회원들이 환영 찬조(贊助)작품과 더불어 전시회를 가졌으며 다과회, 작품슬라이드 감상과 함께 미술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런가하면 한께 '한벽루'에서 스케치를 하고 예술을 토론하였다. 이후 6월 동경국제미술학교를 졸업한 이경훈이 주축이 되어 '신상미술회' 창립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미국문화원, 전북일보, 삼남일보의 후원으로 미국문화원에서 이루어 졌다.



그림-1) 1954.05.05일, 통킹만 환영행사, 전북미술약사

이 시기에는 문화예술의 활동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탄생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보면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간 운영했던 전주 '미국공보관'은 '전라북도공보관'으로 인수되어 운영되게 된다.

도 공보관 개관식(道公報館開館) 전라북도 공보과에서는 지난 팔(八)월 십칠(十七)일 당지에 도공보관을 설치하고 성대한 개관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는 칠(七)년 간에 걸친 다대한 업적을 남긴 전주미국공보관의 폐지에 따라 이를 인수하고 개관한 것 이라 한다.《경향신문》, 〈 道公報館開館式(도공보관개관식)》, 1954.09.03

'전라북도공보관'은 1954년 11월 신상미술회전시를 시작으로 1956년 박근영 개인전등이 열렸다. 미국공보관에서 전라북도공보관으로 이름만 바꾸어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었던 공보관은 1960년도 다시 신축되었는데 연면적 1,365.19㎡,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1960년 3월 성심유치원 미술전시회, 1961년 현역군인화가 황태운의 전국순회 전시가 열렸으며 1962년 공보관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를 시인 김해강을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여 출범하게 된다. 전북 도내(道內)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창의적인 예술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함이며 전라예술제를 중심으로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총 10개 협회가 가입되었으며 '전라예술제(全羅藝術祭)'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62년 제1회 '전라예술제' 미술응모전의 아동, 중등부로 구성된 전시회가 열렸으며, 1963년 제2회 전라예술제 미술전시회와 사생대회가 전북 공보관과 다가산(多佳山)에서 이루어졌다. 9월에는 최양자 개인 시화전이 여렸으며 작품은 〈귀뚜라미〉 외 16점이었다. 그해 10월에 영생고등학교 제1회 미전이 열렸다. 제44회 전국체육대회(全國體育大會)를 참가한 재일교포(在日僑胞)팀 총감독 배옥현(裵玉鉉)이 당시 3학년에 재학한 안혜숙(安惠淑)의 그림을 감동을 받아 일본으로 돌아가 생활이 어려운 안혜숙을 위해 장학회를 구성하고 나대환, 허태성, 안주중과 뜻을 같이하여 2만원어치의 화구와 현금 6만원을 후원하고 영생고 졸업 후 일본유학을 약속하였다. 1964년 1월 당시 5세의 김지은의 그림 67점의 전시로 화재가 되기도 했다. 7월에는 장윤우 순회 시화전이 열렸고 11월 제3회 전라예술제의 미술, 시화전이 15일부터 19일 까지 개최되었다. 1968년 '한국청년작가연합회(韓國青年作家聯合會)'의 지방순회 국제 미술 강좌가 전주에서 열렸으며 세계 일주 여행, 동연합회 창립전 작품(同聯合會創立展作品)이 슬라이드로 소개되었다. 같은 해 서라벌예대 미술작품이 순회전시를 하였다. 1969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미술협회는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미술대전(全羅北道美術大展)'에 대한 조례를 7월 30일자 내무부 승인을 받아 제1회 전라북도미술대전을 개최하고 공보관에서 전시를 하였다. 당시 공보관에서 있었던 전시회에 대한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1962년 전주공고 졸업앨범,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신문명	년 도	기 사 제 목
경향신문	1954.09.03	道公報館開館式(도공보관개관식
경향신문	1961.03.19	現代詩畵展(현대시화전)을計劃(계획)
경향신문	1961.05.20	第一回薔薇展示會(제일회장미전시회) 全州(전주)장미會主催(주최)로
경향신문	1961.05.22	薔薇(장미)꽃을 우리家庭(가정)에
경향신문	1962.03.04	地方公報實態(지방공보실태)등 把握(파악)
동아일보	1963.05.17	展示(전시)
경향신문	1963.05.21	第(제)2回(회)「장미展(전)」
동아일보	1963.09.06	소식
동아일보	1963.12.02	가난한女高生(여고생)에 畵道精進(화도정진)길마련
동아일보	1964.01.04	5세 어린이 미술전
동아일보	1964.07.23	張潤宇巡廻詩畵展(장윤우순회시화전)
동아일보	1968.02.06	地大(지대)순회美術講座(미술강좌)
동아일보	1968.09.10	文化行事(문화행사)
매일경제	1980.06.18	東洋畵家(동양화가) 一坡(일파) 朴永根(박영근)씨

표-2) 전라북도공보관 전시 기사인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72년을 전후로 하여 전라북도공보관을 전북예총이 운영하게 되어 '예총화랑'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였으며 1974년 풍남백화점 입점 이전까지 운영하였다.

> 1969년 10월 27일 도전(道展)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공예와 조각부문은 작가빈곤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미술의 앞날이 암담하였다. 그리고 비구상은 빈곤하였으며 대체로 구상경향만이 풍성한 수확이었다. 협소한 장소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관람객은 심심치 않게 밀려드는데, 총 출품작 168점 중 85점이 입상, 그 중 특선작은 24점으로 100호짜리의 대작들이 많았으며 간혹 10호짜리의 작은 것도 한몫 끼었다.《전북매일신문》, 〈第1回道展(제1회도전)〉 1970.9.13

1960년대 이후에 들어 초반 전주에서는 전시공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첫 번째로는 다방전시를 꼽을 수 있다. 전주의 다방역사를 보면 6.25직후 구 전주극장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던 '고향'다방이 전주 다방의 효시(嚆矢)이며 서울에서 피난을 내려온 연예인, 언론인 등의 출입으로 성시(成市)를 이루자 그 옆에 왕궁다방, 무영다방, 중앙동에 아담다방, 경원동에 삼양다방이 생겨났다. 다방의 규모는 대체로 66.115702㎡ 내외이다. 다방전시의 시작은 1952년 4월에 전주 카멜다방에서 시화전을 열어 인기를 끌었으며 군산, 이리, 남원 등 순회전시를 열었던 것을 시작으로 전북문단, 화단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1966년 아담다방에서 전주일요화가회(日曜畵家會)창립 1주년 합동전이 열렸으며, 1972년 1월 27일 옥다방에서 전북초대작가상설전시회를 개최하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그림을 교체하면서 전북화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1970년대에 들어 경원동을 중심으로 다방전시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전시장의 부족이 가장 크고 수요층의 왕래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 경원동 일대는 전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홍지서림과 고전음악 감상실로 애호가의 사랑을 받았던 필하머니에서 그림을 걸어 놓고 판소리 감상회, 시 낭송회 등 이 정기적으로 열렸다.

이상다방은 젊은 시인들의 모임이 잦았다고 한다. 이처럼 다방은 만남, 회합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이용자층은 노동자부터 지식층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잦은 문인, 국악인, 화가들의 출입과 문화행사가 진행된 점에서 다방은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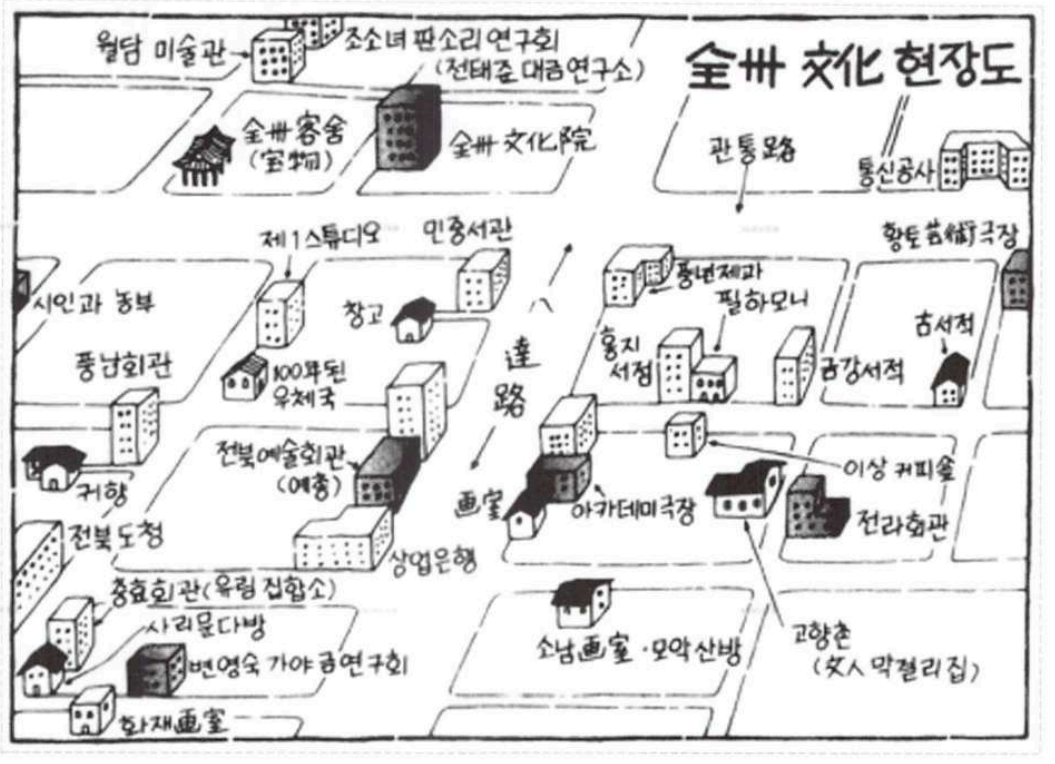


그림-3) 1987년 6월 27일 전주문화현장도, 경향신문

박민평의 증언에 따르면 그림전시를 주로 하던 다방은 아담다방, 설다방, 삼양다방, 사립문다방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특히 사립문다방은 화가 유휴열이 운영하기도 했다. 전주화단에 한국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 다방전시가 활성화 되면서 서양화 그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방전시 개최방법은 하반영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안면이 있는 다방주인을 통해 보통 무료로 대관을 하였으며 대관료 대신 전시가 끝나면 그림 1점을 주인에게 주었다고 하며 작품 관람을 위해 찾아온 수요자에게 커피판매를 도와 매출을 높였다고 한다. 그림 판매대금은 대게 작가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잦은 다방 전시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잦은 다방전시와 이에 따른 매입 권유 때문에 전시회공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화랑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1974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상설 전시장인 '百濟畵廊(백제화랑)'이 개관하게 되는데 서화수집에 평생을 보낸 권영도가 소장품 800점을 보존과 전시를 위해 고사동1가 132번지에 문을 열었다. 규모는 165.289㎡로 부대시설로 '百濟畵廊(백제화랑)'을 두어 대관전시를 진행하였다. 전북화단에서 화랑의 등장은 대관공간을 이용한 순수 미술품전시의 전문 공간 태동을 의미하며 그것은 많은 수요층들의 욕구충족 해소 뿐 아니라 화가들의 활발한 미술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저널』 2005년 8월호에 기고(寄稿)되어있는 유대수의 글 「화랑 전북미술의 흐름과 미술의 흐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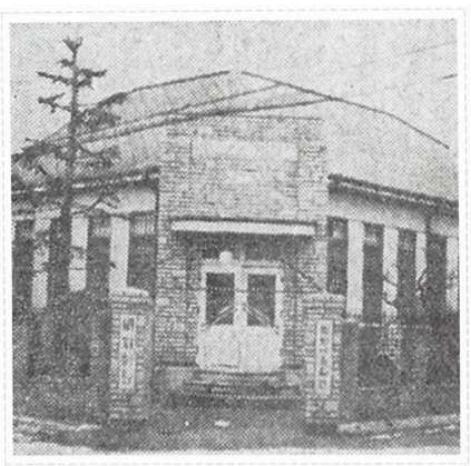


그림-4) 1974년 12월 23일, 월담미술관 백제화랑, 경향신문



그림-5) 1975년 12월 15일, 전북예술회관건립 모금전, 경향신문

"이는 당시 여타의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시도들이었으며 전북미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였다. 당시 월담미술관과 백제화랑에서 개최된 전시기사를 신문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명	년 도	기 사 제 목
경향신문	1974.08.03	月潭(월담) 權寧壽(권영도) 愛藏展(애장전) 韓國近代書畵(한국근대서화)한눈에
경향신문	1974.12.24	月潭美術會館(월담미술회관) 개관 소장품8百(백)점 전시
동아일보	1975.02.07	韓國(한국) 전통山水畵(산수화)의 元老大家(원노대가) 小亭(소정) 卞寬(변관식)선생 回顧展(회고전)
동아일보	1975.05.22	金永基(김영기) 韓國畵展(한국화전) 全州(전주) 百濟(백제)화랑서
경향신문	1975.09.02	李炳三(이병삼) 초대油畵展(유화전) 全州(전주) 百濟(백제)화랑서 朴種禹(박종우) 河麟斗(하린두) 詩畵展(시화전)
경향신문	1976.08.05	文化(문화)의 香薰(향훈)따라 千里(천리)길 (30) 全州(전주) 活氣(활기)넘치는 畵壇(화단)

표-3) 월담미술관, 백제화랑 전시 기사 연보

점차 활동하는 작가의 수는 증가 하였지만 실제로 전시공간은 확대되지 못했다. 다방이 그 대안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편 부작용도 많았다. 1973년 후반 경 전라북도 도청직원들의 휴식장소로 애용되었던 다방이 작품 전시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되자 전라북도 당국은 급기야 다방에서의 전시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도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은 늘어가지만 전시 공간 부족으로 형편상 좋음 그림이 낙선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여기저기 나누어 전시가 진행되는 사태가 계속되어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전북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었다. 당시 '전북예총' 미술협회, 전북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소희는 준공에 부족한 기금마련을 위해 1975년 12월에 서울국립공보관에서 전북미술회관 건립모금전 '한국원로중진작가미술전(寒國元老重鎭作家美術展)'을 개최하였으며 200여점이 출품되었다. 예술문화의 중앙편재를 지양하고 균형있는 문화의 지역분산이 요청되는 우리 문화풍토에서 전북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뜻을 같이한 전북작가 이외에



그림-9) 1975년 12월 15일, 전북예술회관건립 모금전, 경향신문

김은호, 이마동, 장욱진, 서세옥, 허백련, 박영선 등이 같이 하였다. 이외 무용발표회, 미술전 등으로 2,000만원을 마련하여 전라북도에 기증하였다. 1981년 문예진흥원에서 지방문예활동지원을 위해 지방예총의 문예 사업을 지원하고 전북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후 경원동1가 104-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680㎡ 규모로 6개의 전시실과 780석의 공연장 시설을 갖추고 1982년 2월 9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위치해 있다. 당시 전북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신문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명	년 도	기 사 제 목
동아일보	1975.12.11	元老(원로) · 重鎭(중진) 美術展(미술전)
동아일보	1975.12.11	東亞(동아)포우스트
경향신문	1975.12.11	元老(원로) · 重鎭(중진)작가전 公報館(공보관)
경향신문	1975.12.15	藝術(예술)의 꿈싣고 200여點(점) 출품 全北(전북) 미술회관 建立基金(건립기금)마련 전국 元老重鎭(원로중진)작가 전람회
동아일보	1975.12.17	全北美術館建立(전북미술관건립)위한 美術展(미술전) 성황
동아일보	1981.03.14	文藝振興院(문예진흥원) 靑少年(청소년) · 地方文藝(지방문예) 중점支援(지원)
전북일보	1982.02.09	藝材(예목)길러낼 産室(산실)로 活用(활용)

표-4) 전라북도 문예회관건립 기사 연보

위에서 언급했던 이외의 전시장을 기록물에서 보자면 전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이전 전북예총이 전주시 경원동 1가 126-44의 4층, 연건평 1266.1157㎡으로 전(前) 전주시립도서관을 매입하여 전북문화예술회관 개관 이전까지 임시예술회관으로 사용하였으며 제6회 전북도전을 개최하였다. 현재는 '성모간호교육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1945년 10월 동광미술연구소의 제1회 동광미술전람회가 '성심여자중학교'에서 개최되었고 1969년 《동아일보》에 이태훈 산악사진전이 '전주여성회관'에서 열렸으며 1971년 《동아일보》의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지방순회미술전이 열렸던 전주 '예술화랑' 등이 있었다. ▣



추사 김정희의 산수화에 관한 연구

글 **김지영**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추사의 산수화 분석

고림도(枯林圖)

소림모옥도(疏林茅屋圖)

운산도(雲山圖)

영영백운도(英英白雲圖)

○ 추사의 산수화 분석

추사 김정희는 1786년(정조10)에 태어나 1856년(철종7)에 타계한 조선 말기의 대학자이자 서화가다. 그는 조선 회화사에서 새로운 화풍의 전개와 발전을 주도하였으며 단순한 예술가, 학자가 아닌 시대의 선각자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 추사에 관한 연구는 각 분야별로 많았지만 특히 서예와 묵란화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사의 서예와 묵란화가 한국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사는 산수화를 통해서도 천부적인 예술성과 고도의 정신예술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추사는 산수화에서도 뛰어난 경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작품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추사의 산수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산수화 작품에 추사의 정신성과 함께 나타난 특징을 찾아보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 고림도(枯林圖)

추사의 〈고림도〉(도3)[1]는 주산(主山)과 고림을 소재로 한 점경산수이며 황공망의 화법을 담은 작품이다.

'고목사이로 인적도 없는 길, 깊은 산 종소리는 어디서 울리는가.. 당인의 시의를 빌어 이곳 집의 등불 아래서 그렸다' 라고 쓴 제발이 말하고 있듯이 심산유곡(深山幽谷)의 전경을 화면 가득히 담았다.

화면의 상반부에 수직으로 우뚝 선 가파른 고봉의 준법은 미점준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지법은 황공망의 북경 고관박물관소장의 〈산수도〉를 연상시킨다. 또한 가운데 구륵법으로 그려낸 나뭇가지가 눈에 띄며 그 옆의 나무들에는 점엽법을 썼다. 그리고 작품 원경의 산석을 표현할 때 사용한 피마준은 황공망의 〈부춘산거도〉(도1)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며 이것은 입체적인 바위표현을 강조할 때 쓰인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피마준은 산석이 기하학적이며 단순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 준법은 중국의 수없이 많은 문인화가들이 황공망의 산수화를 방작(倣作)할 때 썼던 준법이다. 이는 중국 남당 때 동원(董源 907~962)으로 시작되어 원말사대가 중에서 황공망이 많이 그렸다. 그리고 조선 중기에 이르러 많은 문인화가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도판3〉 김정희,〈고림도〉 지본수묵,25.7x46.1cm,개인

● 소림모옥도(疏林茅屋圖)

추사의 〈소림모옥도〉(도4)[2]는 나무 몇 그루와 집 두어 채를 근경에 배치하고 원경에 큰 산을 그렸다. 근경과 원경을 구성하는 방식이 황공망의 구성법과 유사한데 추사는 이러한 화풍을 기초하여 이 작품을 그렸다. 하지만 황공망의 산수는 피마준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추사는 거친 갈필을 사용하였으며 입체감이 드러나지 않는 바위가 깎인 것 같은 산을 그렸다. 그리고 산비탈의 중간부분을 짧은 필치의 갈필로 엷게 칠하고 수목이 우거진 근경은 강한 농묵을 썼다. 이어서 중경을 지나 원경의 산에 이르면서 먹의 농담이 연해지게 그렸는데 이는 산의 멀고 가까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림 좌측의 나무들은 추사가 산수를 그릴 때 즐겨 사용했던 선의 끝을 날카롭게 삐쳐 그리는 기법의 정두엽법을 사용하였고 나뭇잎은 점엽법으로 농담을 줬다. 그런 다음에 나뭇잎과 나뭇잎의 사이에 간격을 주기도 하고, 나뭇잎의 두께를 얇고 두껍고 다양하게 표현하여 공간감을 줬다.



〈도판4〉김정희,〈소림모옥도〉 지본수묵,12.3x23.5cm,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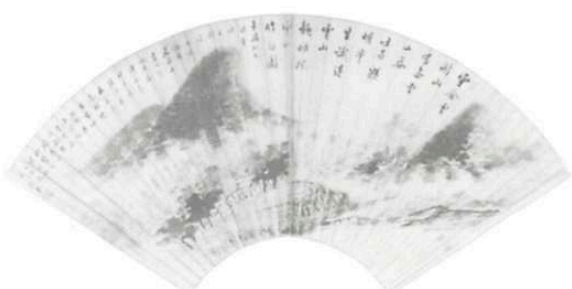
이처럼 추사는 산의 구조적인 묘사는 생략하고 필의 운용에 의해 형성된 개념적인 산만 그렸지만 생략을 하더라도 표현해줄 것들은 간략하게 표현하여 사의적인 문인화풍의 산수화임을 나타내고 있다.

1) 〈고림도〉는 1996년 최순택의「추사의 서화세계」에서 소개된 작품이다.
2) 〈소림모옥도〉는 2010년 김현권의「김정희파의 한중회화교류와 19세기 조선의 화단」에서 소개된 작품이다.

● 운산도(雲山圖)

〈운산도〉(도5)는 운산을 점을 여러 번 겹쳐 찍어서 형태를 표현하는 미점준(米點皴)[3]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미법산수라 부르며 작품 내의 화제에서도 추사는 미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원나라 때의 고극공(高克恭) 이후 명, 청대의 문인들이 즐겨 사용하였고 조선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성행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화가는 강세황과 신위가 있다. 하지만 추사는 그들의 작품과는 다르게 미점을 중첩시킨 적묵법을 사용하였으며 적묵법은 강세황 등의 화가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기법이다.

추사의 〈운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윤곽선을 그리지 않았으며 세세한 표현을 자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과 구름, 안개, 나무 등을 물기가 많은 점들을 찍어 담백하게 표현하였다. 이 때 소혼점과 대혼점을 적절히 분배하여 그렸는데, 이로 인해 안개가 자욱한 표현이 완성되었으며 화면 가득히 오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추사는 이 작품을 그릴 때 첩첩이 쌓인 산과 산세를 묘사하려고 적묵법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담묵을 칠한 후 그 먹이 마르면 좀 더 짙은 먹을 입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깊은 양감을 표현하였다. 그런 후에 먹을 계속 겹쳐 칠하면서 먹이 층층이 쌓이도록 하였고 그로인해 중후한 느낌을 자아내었다. 이런 표현은 색이 깊어짐과 동시에 물체의 형상이 세밀하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



〈도판5〉김정희, 〈운산도〉, 지본수묵, 28.8×60.1cm, 개인

● 영영백운도(英英白雲圖)

추사는 55세인 1840년 6월에 두 번째로 중국 연경에 가려 할 때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제주도 유배 길을 떠났고 1848년 유배에서 풀려났다. 당시에는 당쟁으로 유배를 당한 죄인의 거처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 중형을 줬는데 추사의 유배거처에도 울타리가 둘러졌고 추사는 더욱더 괴로운 유배생활을 했다. 그러기에 〈영영백운도〉(도7) 작품은 추사가 9년에 걸친 제주도 유배생활의 적막함과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 갈고 닦은 처절한 정신력과 예술의 경지를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아름다운 흰 구름 저 가을 나무를 둘렀네. 조촐한 곳으로 그대를 찾아오니 그 누구 때문인가 산천이 멀어서 옛날에는 나를 찾아주지 않더니 이제는 어떠한가, 아침저녁으로 만나기를 바라네.'

위의 화제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내용으로 보이며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추사의 그림에 추사의 절친한 황산(黃山) 김유근(金流根)[4]이 쓴 것이다. 제목이 '황산유고..추수백운도에 붙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추사가 제주도 유배기에 그렸다고 전하고 있지만 한양에 거할 때 제주에 유배 했던 집을 떠올려 그린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화제를 쓰거나 글씨를 썼기 때문이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의 중심부 왼쪽에 조그만 오두막 집 하나가 있고, 오두막을 둘러 싼 소나무 여러 그루가 건필법의 마른붓질로 그려졌는데 녹각화법을 사용한 나무에 개자점(介字点)[5]을 찍었다. 이 작품은 필묵에

3) 미점준(米點皴) : 미점준은 북송(北)의 문인화가 미불(米芾1051~1107)과 미우인(米友仁: 1087~1165) 부자에 의해 이룩된 산수화풍으로 이들의 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4) 김유근(金流根): 본관 안동, 자 경선(景先)호 황산(黃山)시호 문정(文貞). 1810년(순조 10)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사서 · 검상이 되었다. 1822년 이조참판, 1825년 대사헌 등을 지냈다. 1827년 평안도관찰사로 부임 도중, 면회를 거절당한 전직관원에 의해 일행이 살상을 당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도돌아왔다. 그 뒤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돈령부판사에 이르렀다.

5) 개자점(介字点) : 수묵산수화 점법의 일종이다. 세개의 작은 필획(筆劃)을 한 단위로 하여 '개(介)' 자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한다. 개(介)자점에 가깝다

의한 농담 묘사와 선에 의한 운필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원근감이 잘 나타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먼 산을 흐릿하게 그려 나머지 여백의 부분을 상상하게 하고 있다.

그림 속의 여백을 가장 뛰어나게 구현한 화가가 중국 원나라 때의 예찬인데 그는 화면의 대부분을 빈 공간으로 두고 나무 몇 그루와 텅 빈 정자, 그리고 넓은 강, 강 건너 산을 그리는 간단한 구성방식으로 그 이전 누구도 표현해내지 못한 강력한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나타냈다. 조선에도 예찬의 여백 구도법이 전해졌는데 추사는 예찬의 회화 정신을 중국 화가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해했고 이념적으로 더욱 순수하게 순화시켰다. 이러한 추사의 〈영영백운도〉는 여백을 이용하여 시원한 공간감으로 복잡한 요소들을 그리지 않았기에 문인 산수화의 함축적인 표현이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조선이 고유 문화를 꽃피운 진경시대의 세계화에 성공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진경시대의 학문 조류인 북학 사상을 본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조선 사회의 변화 논리에 힘을 실어준 장본인이다.



김정희 묵란도

〈도판7〉 김정희, 〈영영백운도〉, 지본수묵, 23.5×38cm, 개인



근대 전북 화단의 형성에 관한 연구

글 박성수 (전북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전북 근대 화단의 형성 배경

전북의 지리적 여건

근대의 정치적 상황과 전북 화단

조선시대 완상문화와 향유층의 확대

○ 전북 근대 화단의 형성 배경

전북 지역은 드넓은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물산(物産)이 풍부하였다. 안정적인 지역 환경은 많은 선비들이 모여 살게 된 이유가 되었고 그러한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는 특히 문인화가 근대에 들어 성행하게 된다. 근대 전북 화단의 대표적인 선비화가로는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이 있으며 그의 고매한 선비 정신을 이어 받은 제자로 조주승(趙周昇 1854-1903)과 송기면(宋基冕 1881-1954) 등이 있다. 이러한 사승관계에서 비롯된 선비화가들은 근대 전북 화단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선비정신이 그윽한 전통 문인화는 호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

한편 근대시기에는 그림에 대한 향유층이 확대되고 다양화 되었다.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직업화가들에게 좋은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근대 전북 화단에서 직업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벌인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채용신(蔡龍臣, 1850-1941)과 황종하(黃宗河) 형제 들이 있다.

이렇듯 근대 전북 화단의 작가들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작품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랑받고 전승되어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실상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 근대 전북 화단의 형성 배경을 연구해 보고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북화단의 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고림도(枯林圖)

전북은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라 불려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전라북도의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전북의 회화뿐만이 아니라 판소리와, 음식에 이르는 전통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을 전라북도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라라는 말은 북도의 전주와 남도의 나주에서 그 첫 자를 빌어 만든 말이다. 따라서 "온(全)고을에 비단(羅)을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으로, 이는 수려한 산수와 누우런 황금 벌판의 자연경관을 비유한 것이다. 전라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호남(湖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리어 왔다.[1]

1) 국토지리정보원 편, 『한국지리자-전라제·주편』, 국토지리정보원, 2004, p.25.

깔아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으로, 이는 수려한 산수와 누우런 황금 벌판의 자연경관을 비유한 것이다. 전라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호남(湖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리어 왔다.[1]

호남지방의 지리는 소백산맥이 남서로 가로지르는데 노령산맥이 파생하여 2대 산맥을 이루며, 여기서 크고 작은 산줄기들이 복잡하게 늘어져 있다. 또 지역상으로는 전라북도와 금강 줄기로 갈라지는 충청남도의 남부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금강, 만경강, 영산강, 동진강 및 섬진강 등이 북동지역에서 서남지역으로 흘러 한국 제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와 전남평야의 원천을 이루며 농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2]

호남평야와 같은 지리적 특성은 바로 농사와 관련이 있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쌀을 주생산물로 하는 농업국이었다. 그리고 벼농사의 역사는 약 3,0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군신화 속에서도 풍백 · 우사 · 운사 · 주곡 등 농경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농경신을 섬기면서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대사회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대사회뿐만 아니라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의 경영도 쌀 생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그리고 종교와 의례 등이 쌀의 경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3] 이렇듯 인간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쌀은 전북지역의 주된 생산품이었으며 그로인해 문화 전반에 걸쳐 풍부한 자산을 이룩할 수 있었다. 높고 낮은 산과 비옥하고 너른 평야, 그리고 긴 해안선과 바다를 함께 끼고 있어 풍성하게 산출되는 갖가지 산물을 바탕으로 하여 일찍부터 풍류와 멋을 아는 예술의 고장이자 맛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풍족한 삶은 바로 다양한 예술을 잉태 할 수 있는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후환경 그리고 다채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전라(全羅)지역은 역사적으로 본래 마한의 땅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옛 영토에 속했으며, 후삼국 시대에 견훤(甄萱)이 후백제를 창건한 지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기도 하다. 멀리는 고려시대로부터 가깝게는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우국 열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국난 극복에 앞장선 의기의 고장이다.

더불어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고대의 바닷길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 교역로에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의 유입통로이자 문화의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고대 시대의 개방성과 선진성은 대외적으로 전라지역이 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해류에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남동쪽으로는 제주도를 넘어 일본과 접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적 입지에 힘입은 바 컸다.

이처럼 지리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이 결합된 특수한 여건은 전북이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환경으로 인해 지주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계층 또한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하게 되었고 그 들의 학문과 서 · 화 또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20세기에 들어 전북 화단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국가의 도읍이 한양에 굳건히 자리 잡은 후, 이지역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인간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지리적 위치성, 다시 말해 상대적 원격성(遠隔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원격성이란 역사적으로 중앙정부가 있는 왕도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중앙과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일컫는다. 반드시 중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대에서는 중앙의 각종 파문(波紋)과 정보,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 등이 이 지역에 도달

2) 장미아, 「1920-60년대 전북 서양화단의 표현경향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19.
3) 임헌희, 『열린전북』, 열린전북, 28호, 2011, pp.125-126.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리 조락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많은 경우 중심부에서 벗어난 주변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격성은 다른 한편에서 전라지역에 문화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부여해 왔다. 전라지역의 언어, 민요, 민속, 민예, 민가 등에서 국토공간의 타 지역에 비해 그 특색이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전라지역은 대외적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하나의 총체적인 문화공동체이자 대내적으로 굳건한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는 개성 있는 생활공간이자 인문적 실체임에 틀림없다.[4] 이렇듯 근대 전북지역 화단의 형성은 풍부한 물산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중앙과의 상대적 원격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문화풍토를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 근대의 정치적 상황과 전북 화단

근대 국내의 정치적 상황은 전북 지역 문인화가들이 작품 창작에 몰두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1910년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해이다. 이 무렵 호남에서는 평소 어지러운 국내의 정세를 서로 토론하고 의지하던 문우(文友)이자 당대의 학자였던 해학(海學) 이기(李沂, 1848-1909),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을 모두 잃는 비운에 맞는다. 이기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1년전에, 그리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던 그해에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며, 이정직 또한 울분과 화를 못이겨 그해에 서거하게 된다.[5] 황현은〔자식들에게 남기는 글〕에서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500년이나 선비를 길러 왔는데, 나라가 망할 때에 국난을 당하여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찌 원통치 않은가? 나는 위로는 황천(皇天)이 상도(常道)를 굳게 지키는 아름다움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는다" 는 글을 남기고 음독 자결 하였던 것이다.

평소 황현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정직 또한 선비의 고매한 인격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근대 전북 화단의 토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근대 전북 서화계를 이끌었던 벽하 조주승, 유재 송기면, 설송 최규상, 오당 강동희, 학헌 최승현, 유하 유영완등이 바로 이정직의 제자들이다. 이들 또한 이정직에게 고매한 인격과 학문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비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근대화시기에 전북의 선비화가들은 짐짓 일제의 강압에 의한 식민 사대주의로부터 큰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벼슬길도 여의치 못한 상황은 평소 여기(餘技)로 삼던 문인화를 통해 민족정신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서화에 몰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말기부터 이어져온 남종화의 유행에 의해 사군자(四君子)가 많이 그려지던 시기였기도 하지만 유독 전북 근대 화단에서 사군자, 그중에서도 지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나무가 많이 그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 남송 말기부터 원대(元代) 초기에 몽고족의 지배하에 나라를 잃고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은둔생활을 한 문인들 사이에 대나무가 많이 그려졌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의 주권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침탈되던 시기에 전북의 이정직과 그의 제자, 그리고 전북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많은 선비들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은거하며 무언(無言)의 저항 수단으로 서화에 몰두하였던 것이 전북 근대 화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조선시대 완상문화와 향유층의 확대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루어진 서화문화의 인식 변화는 근대 중앙화단은 물론이고 지방 화단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서화문화의 인식변화는 조선시대 후기 완상문화로부터 갑오개혁이후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극대화 되었다. 조선시대의 완상문화는 다음과 같다.

4) 국토지리정보원 편, 앞의 책, p.35.
5) 이용업, 『전북미술약사』, 전북문화역사학회, 2007, p141.

사대부 서화가들은 교양의 하나로, 또 자기표현 방식의 하나로 서화를 제작했으며, 이것은 정치를 본령으로 삼는 사대부들에게 대체로 여기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에 서화는 사대부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종종 완물상지(玩物喪志)[6]로 경계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 때부터 사대부사회에서도 완물상지의 담론을 넘어 서화의 제작과 비평, 소장에 탐닉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화세족(京華世族)[7]을 중심으로 서화취미가 대대적으로 유행하여 서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바, 화원과 민간화가, 사대부 서화가들의 서화 생산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이다. 그 징후로 서화가 일반 서민들의 집에 장식되기 시작하였다.

"벽에는 종규가 귀신을 잡는 그림과 신선이 사슴을 탄 그림을 건다. 병풍으로는 금강산 1만2천봉이나 관동팔경을 그리고, 작은 병풍에는 꽃·새·나비등을 그린다. 혼인에 쓰는 병풍에는 백자도나 행락도나 곽분양의 행락도나 요지연고를 그린다. 그리고 공적인 잔치 때는 제용감에서 모란을 그린 큰 병풍을 이용한다. 또 문벌이 높은 집안의 혼인 때에도 이를 빌어다 쓴다.[8]

위 인용문은 서울에 사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화가 서민들의 집에 장식되고, 그들의 생활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림의 내용은 사대부들이 즐기던 소재이다. 서화취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문화풍조가 되었고, 예술취미로 인정하는 쪽이었다. 박제가는 서화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푸른 산이나 흰 구름이 먹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처럼 서화가 민생에 무관하다 하여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완물상지를 넘어 서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의 심미적 속성은 실용성을 넘어선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이 시기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서화취미가 경화세족을 넘어 중인과 서민 대중에게로 유행되고 일반화되었던 것은 상층계급으로서 사대부들이 즐기던 서화취미에 대한 추수(追隨)와 신분상승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조선후기 경화세족으로부터 발생한 서화취미가 중인과 서민 대중에게로 확산되자, 자연히 서화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인은 서화가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화를 주문했으며, 도화서 화원은 여기에 응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전기에 그 활동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민간화가가 출현하여 작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가 하면, 작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과 개방된 공간이나 점포에서 서화를 판매하는 서화포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9]

이렇게 조선후기에 와서 양반사회를 넘어 중인과 서민들까지도 서화를 즐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여러 모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화가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관에 매여 있는 도화서 소속의 서화가 이거나 사대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오개혁으로 인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사대부 문화의 하나로 존재했던 사대부의 서화 제작도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도화서 역시 없어지게 된다. 이는 과거 국가나 관의 요구에 응하거나, 혹은 사대부의 취미로 존재했던 서화제작이 갑오개혁이후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서화제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화의 감상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많은 대중과 접촉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조선 후기 완상문화로부터 이어진 서화의 취미는 근대화시기에 으르러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서화의 생산자나 수요자 둘 모두로부터 더욱 대중화될 수 있었다. ▣

---

6) 완물상지(玩物喪志)는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큰 뜻을 잃는 다는 말로 『서경』의 여오(旅獒)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중국 은(殷)나라의 마지막 군주가 성격이 포악하고 백성들에게 재화와 보물들을 거두어들여 호화로운 궁전을 세우고 유흥에 빠져 백성들의 원망이 높았다. 이에 주(周)나라의 무왕이 은의 수도를 목표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미 민심을 잃은 주왕은 궁전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었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건국의 공신들에게 각지에 제후로 봉하고 더불어 먼나라에도 사신을 보내어 자기의 문덕과 무공을 전하고 신하로서 자신을 왕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였다. 어느 날 서방의 먼 곳에 자리잡은 사신이 와서 큰개 한 마리를 헌상했고 무왕은 이 진기한 선물을 기쁘게 받고 사자에게 큰 선물을 내렸다. 이것을 본 소공(召公)이 글을 올려 간언하자 무왕은 은나라의 멸망을 교훈삼아 큰 개는 물론 헌상품을 모조리 제후와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청치에 전념했다.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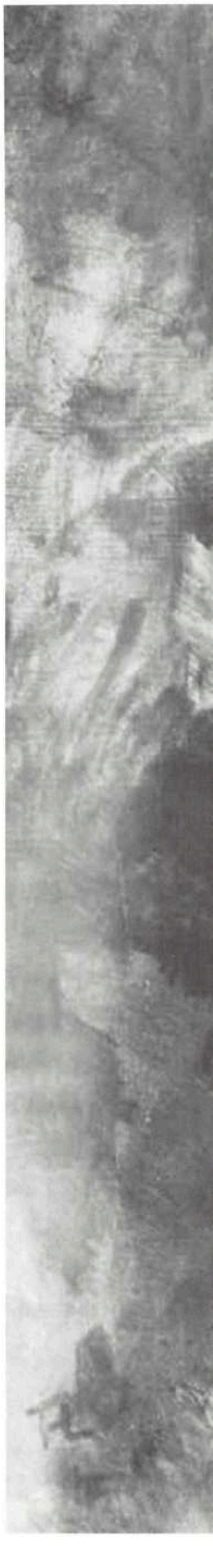
7) 경화세족(京華世族), 서울에 살면서 권력과 벼슬을 독점하던 세력

8) 유득공 저, 李鍾徒 譯, 「京都雜志」, 『朝鮮常識』, 東文選, 1991, pp.198-200 ,김취정,「개화기 화단의 후원과 회화 활동」, 고려대학교 대학원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전공, 2007, p.148 재인용

9) 조선후기에서부터 근대 전환기 까지의 완상문화와 서화 문화의 인식 변화는 이성혜, 「근대전환기 성화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p. 7-25참조.

자기 운명과 싸우는 작.은.거.인. 로트렉

글 김영숙 (예원예술대학교)



곱추 화가 **투르즈 로트렉**(1864-1901)은 프랑스 남부 알비에서 구 명문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허약하게 태어났지만, 집안의 '쁘티 비주' (작은 보석)로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로트릭은 14세 되던 해에 그만 발을 헛디뎌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만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길가의 도랑에 빠져 오른쪽 다리마저 부러지게 된다. 이런 불운은 사촌 간이었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에서 연유한, 매우 희귀한 유전적 질환인 농축이골증 (뼈가 잘 부러지고, 자라지 않음)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제 로트렉은 성장이 멈추고 보통 사람의 가슴에 겨우 닿을 정도로 작은 사나이가 되고 마는데, 후에 그는 까마귀 부리가 달린 지팡이를 짚고 산고모를 푹 눌러 쓴 채 코걸이 안경을 한, 검은 수염의 모습을 갖게 된다.

결국 로트렉의 아버지가 즐겼고, 또 아들 로트렉에게 전수해 주고 싶었던, 승마와 사냥과 같은 귀족의 전원생활은 로트렉에게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로트렉은 그림 속에서 자기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고호가 자기의 상처난 영혼을 자연 속에 투영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구하려 했다면 로트렉은 인간들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영혼의 안식과 평정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점은 로트렉이 비교적 초기에 자신의 엄마, 로트렉 백작부인을 그린 그림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찻잔, 혹은 책을 앞에 두고 두 눈을 내리깐 채 고요히 앉아 있는 로트렉 백작부인의 모습엔 로트렉이 일생 동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그대로 얹혀 있는 듯하다. 그녀의 엄숙하고 차분한 표정과 자태는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심연을 가슴 깊이 담고 있으면서 이 심연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려는 침착한 의지력이 돋보인다. 아마도 로트렉은 이러한 엄마의 모습 속에서 황금빛 어린 시절과 화려한 귀족들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된 자기 운명을 지켜나가는 기본 자세와 힘을 배웠으리라.

당시 몽마르트는 원래 밭과 풍차가 있었던 파리 외곽의 시골이었는데 싼 집세 때문에 1850년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반사회적인 인사들,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860년대에 파리 시에 편입됐다.

하늘이 자기에게 내린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작은 거인이 아닐까 한다





1880년경에는 까페와 댄스홀들이 들어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이고 새로운 예술이 실험되는 곳이었는데, 1889년이 되자 그 거리에 물랑 루즈가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로트렉은 물랑 루즈에서 자기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는다. 숱한 사람들이 삶의 질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술과 춤에 위로를 구했던 물랑 루즈. 그 안에서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했던 무희들과 창녀들에게서 이제 로트렉은 새로운 영혼의 동지들을 발견한다. 로트렉이 그린 창부들의 모습은 마네가 그린, 자기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뽐내고 있는 모습도, 자기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는 듯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아니다. 로트렉이 그린 창부들의 모습은 그저 밥벌이를 위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지친 생활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또한 로트렉은 창부들끼리 애정 행각을 벌이는 침대 위에서의 모습도 그려냈는데, 더 이상 남성을 믿지 못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처럼 로트렉이 그린 창부들의 모습은 마네처럼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이끌어내려는 지나친 감상주의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아마 실상이라는 게 있다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실상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 바로 로트렉이 그려낸 창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들은 화려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힘겹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것은 바로 로트렉이 얼마나 냉혹한 냉철함으로 인간과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물랑 루즈의 실내 풍경 안에 살짝 터무니 없이 작은 키의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은 또 다른 그림들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절대 부탁을 받아 그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만을 그린 로트렉. 그가 자기의 내면을 가장 많이 투영하고, 이를 가장 근접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은 아마도 [젊은 아가씨의 초상], [숙취], [세탁부], [물랑 루즈에서 나오는 잘 아브릴] 등일 것이다. 그녀들은 각각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고뇌의 분위기, 네모난 굳센 사각턱에 앙다문 입술로 ([젊은 아가씨의 초상], [세탁부]), 또는 진한 압상트 술잔을 앞에 놓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기르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삶의 삼중적 고통을 눈앞을 응시하는 복잡한 시선으로 ([숙취]), 또는 이곳에서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듯, 애환과 비애, 덤덤한 체념을 온 전신으로 퍼뜨리며 밤거리를 걷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물랑 루즈에서 나오는 잔 아브릴]) 자기들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로트렉은 이들의 모습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출렁거리는 내면의 고통과 화해하기 어려운 자기의 운명을 직시하면서 이것들을 견뎌내려는 숨막히도록 힘겨운 투쟁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듯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그녀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운명을 견뎌온 루트렉이었지만, 그의 타고난 허약한 체질과 비정상적인 생활환경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점차 자기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음과 알콜 중독에 빠져 들어간 로트렉은 비록 37세라는 짧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지만, 자기 연민이나 비굴함, 좌절과 자포자기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하늘이 자기에게 내린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작은 거인이 아닐까 한다. ▣

탄신 300주년 기념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 간 예술혼' 특별전을 보고...

글 **이승훈** (회원, 군산대성중학교)



강세황 초상 종이 위에 채색 50.9×3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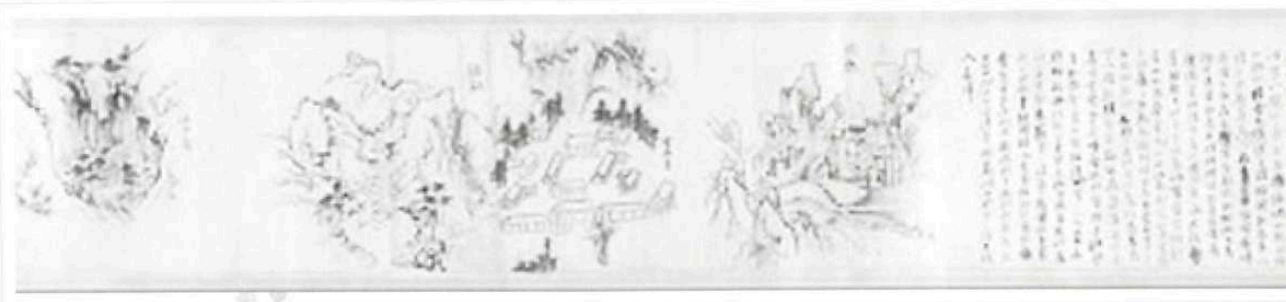
2013년 6월 25일~8월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초상화와 화첩, 문집 '표암 유고' 등 시·서·화 대표작은 물론 그가 비평의 글을 남긴 당대 이름난 화가들의 작품까지 선보인다. 모두 81건 103점이 전시되었다. 탄생 300주년 기념전이 된다. 특히 부안의 '우금암도'와 '송도기행첩', 중국기행에서 본 풍속 등은 새로운 면모를 보게 해주었다. 1부의 주제는 문인화가의 표상, 2부는 가문과 시대, 3부는 문인과 이상의 꿈, 4부는 여행과 사생, 5부는 다양한 화목 청신한 감각, 6부는 당대 최고의 감식안 등으로 구분하여 화가의 진면목을 다 보게 하였다.



영통동구도(靈通洞口圖) 종이 위에 채색 세로 32.8cm, 가로 53.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세황을 생각하면 대표적 그림으로 영통동구도이다. 이 그림은 송도기행첩에 전하는 그림으로 크지 않은 작품인데 그 그림 양식이 서양화법이 가미 되었다는 것이다. 바위산이 명암법으로 그려져 입체감이 나타난다. 바위 사이로 길이 나 있는 데 선비는 나귀타고 산골짜기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1757년 개성과 북쪽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린 그림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마련한 강세황전은 탄생 300주기에 맞추어 열린 전시이다. 이원복님의 한국미술7천년 미의 산책(이가서)에 의하면 탄생 300주년 10년 앞서 2003년에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예술세계를 다각적으로 '18세기 예술의 큰 스승, 표암 강세황의 시 서 화 평' 이 전시 되었다고 전한다. 이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시평을 전했다. "후회 없이 열심히 산 이들도 쓸쓸하고 가슴 시린 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는 자화상을 비롯한 당당하고 의연한 초상, 조촐하고 담박한 산수, 깔끔하고 조촐한 화훼초충, 조선 선비 그림의 백미인 사군자, 유려한 글씨, 따사로운 시문 등 표암 유묵과의 만남"이라고 전했다. 이 번 전시에서도 그의 삶과 작품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 산수화 이외에도 그는 초상화는 물론 초충도, 화가의 평을 잘 쓰는 문화가의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울 남산 자락에서 나고 여섯 살에 시를 지을 정도였다. 안산에 이주 하여 안산 15학사로 불리는 사람들과 교유를 하였고, 젊어서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늦게 벼슬에 올랐었다. 오히려 젊어서 지식인들과 폭 넓은 교유(交遊)로 서양 문물을 포함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눈떴고 개성이 가득한 저술 활동과 예술 작품을 제작하였기에 더욱 탁월한 지식을 함양했을 것이다. 문예 전반에서도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비평가로서 업적이 남았지 않았나 싶고, 그의 활발한 활동과 탁월한 안목은 궁궐에서부터 궁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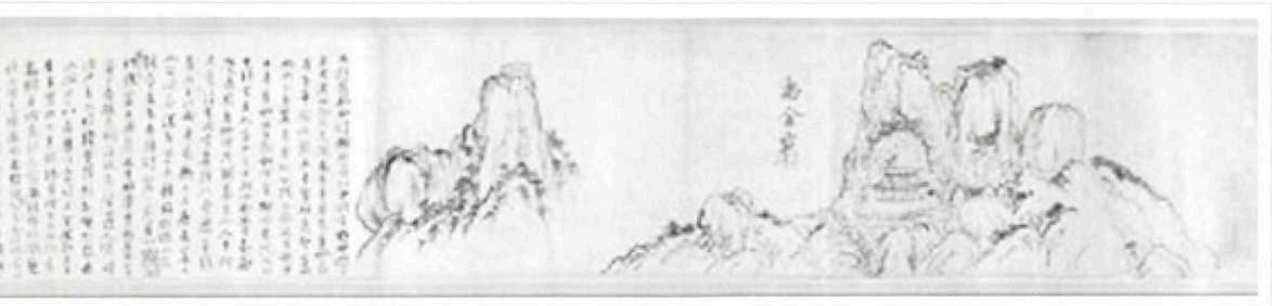


화원, 재야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문예와 비평으로 신분과 지위를 넘나드는 문화 코드가 된 것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30년간 안산의 처가의 근처에 살다가 61세에 관직을 얻어 한성부판윤(지금 서울시장)을 거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그 때는 대단한 사회였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강세황 집안은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라고 불렸다. 조부 강백년과 부친 강현의 뒤를 이어 삼대가 연속으로 기로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다. 기로소라는 것은 나이가 70이면 기(耆)라 하고 80을 넘으면 노(老)라 하여 태조가 덕망이 있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의 의미로 춘추로 연회를 열러 준 것이 시초이다. 이 모임에 임금이 연로하면 참석하기도 했다. 이 기로소 모임이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이를 칭송하는 김정희의 현판용 글씨가 남아 전한다. 바둑을 두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현정승집도'는 오늘날 사진 같은 역할을 했다. 가운데 책을 보는 사람은 강세황이라고 한다. 평생지기들인 11명과 안산에서 복날 개를 잡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큰 형(강세윤)의 과거시험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강세황은 출세를 포기하고 안산에서 시문을 즐기면서 생활하였던 것이다. 후에 영조가 양로연에서 강세황의 아들인 강인(1729~1791)을 통해서 아버지의 근황을 듣고 관직을 내리게 되었다. 처음 관직에 오른 것이 61세에 영릉참봉이다. 그리고 중국에 부사로 파견되기도 하여 건륭제를 알현하기도 했다. 화첩형식으로 그린 '무이구곡도'가 전시되었는데 중국 복건성의 무이산의 아홉 골짜기를 중심으로 그려진 것으로 성호 이익과 처남인 유경종의 발문이 남겨져 있다.

그는 여행과 사생에도 조예가 깊었다. 18세기는 조선의 문예부흥기이다. 실제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가 성행했던 시기이다. 강세황은 송도(개성), 전북 부안, 금강산 일대 경치와 건륭제 천수연에 가는 길에 중국 풍경을 그리기도 했다. 강세황은 "진경산수화는 그곳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단다. 따라서 기행문이나 시보다는 그림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겸재 정선(1676~1759)이 금강산을 현자의 구별 없이 관습적 화법으로 그렸음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현장을 현장처럼 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송도기행첩과 부안 우금암도, 영대기관첩, 사로사기첩 중국 기행 중 그린 그림 등은 사생의 묘미와 치밀함을 잘 보여준다. 강세황 일행이 중국 영대를 보고 문서를 작성한 글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다. "12월21일에는 황제가 영대에서 빙희(氷戱)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날 당일 새벽녘에 신 등이 서화문밖에 도착하였는데, 섬라(暹羅 타이, Thailand) 사신이 신 등의 다음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후에 황제의 난여(鸞輿)가 나와서 국왕이 편안한가를 물었으므로 신 등이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 등이 걸어서 영대 가로 따라가니, 얼마 뒤에 황제가 빙상을 탔는데



변산 우금암도(禹金巖圖) 종이 위에 채색 미국LA 카운티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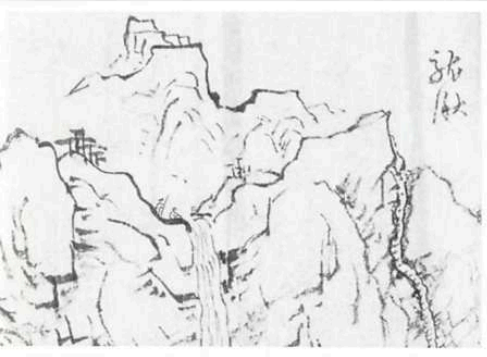
모양이 용주(龍舟)와 같습니다. 좌우에서 배를 끌고 얼음을 따라가는데, 얼음 위에 홍살문을 설치하고 거기에 홍심을 달아 놓았습니다. 팔기(八旗)의 병정(兵丁)들로 하여금 각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신발 바닥에는 목편(木片)과 철인(鐵刃)을 부착하고, 화살을 잡고 얼음에 꿇어앉아서 홍심을 쏘게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말 타고 달리면서 골로 만든 표적을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사로사기첩'에는 안개가 자욱한 호수에 섬들이 원근의 풍경으로 나타나 있다.

강세황의 아들이 부안 현감으로 재직할 때 전북 부안일대를 유람하고 그렸던 우금암 일대 그림이 전해진다. 이곳을 조선시대 그린 화가로는 유일한 것 같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우금암 스케치 그림은 지금의 산세 모습과 비슷하다.

'우금암도(지본수묵, 25.4×267.34㎝)는 변산 특유의 암산(巖山) 분위기에 맞게 갈필로 문지르듯 표현했다. 당시 표암은 가늘게 쪼개진 벽의 무늬를 "마치 비단과 같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강세황이 그림과 함께 적은 글은 '표암유고'의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아들 완이 부안현감으로 재임한 시기를 고려해 보면, 1770년 2월 혹은 이듬해 2월에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중앙박물관측의 설명이다. 그림의 구성은 이동 경로에 따라 우금암(禹金巖)→문현(文懸)→실상사(實相寺)→용추(龍秋)→극락암(極樂庵, 장소 미확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새전북신문 기사 2013년 7월 8일자 참조) 우금암은 부안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한 우금산(329m)의 정상부를 이루는 바위로 그 아래에는 천년 고찰 개암사가 있는데 최근에 고쳐지었다. 우금산에는 산성(전라북도 가념물 제20호)이 있다. 산성은 백제 의자왕 20년(660년)무렵 백제 부흥을 꾀하기 위하여 복선 장군이 유민을 규합하고 군비를 축적하고 항전하다가 나당연합군의 장군인 김유신과 소정방에게 패한 곳이다. 지금도 석성이 3km 정도 자연석과 다듬은 돌로 개암사 저수지 까지 이른다.

송도기행첩'은 송도(개성)와 북쪽의 오관산(五冠山), 천마산(天磨山), 성거산(聖居山)의 풍경을 그린 16점의 그림과 3개의 문장으로 되었다. 화첩의 글에서 스스로 말하길 "이 첩은 세상 사람들이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此帖世人不曾一目擊)"이라 하여 조선 시대 여느 그림들과 다른 면모를 발견해 주었다

강세황은 당대 최고의 감식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겸재 정선과 윤순(문신 서예가), 조영석(관아재), 심사정(현재) 등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 친필로 화평을 남겼다. 그는 화가이면서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 비평을 하여 자신만의 문예적 소양을 다방면으로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화평은 감식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오랜 문예적 소양의 발로로 보여 지며, 오늘날 조선 회화를 연구하는 데 이론적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위부터
부안 목포 위 두 사람
군와아지도(강세황 외 4명)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강세황은 김홍도를 많이도 사랑했던 것으로 본다. 김홍도가 38세에 그린 나비그림에 대하여 "나비의 가루가 손에 묻을 듯하니 인공-나비 세 마리 그림-이 자연의 조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부채를 펼쳐 감상하고는 경탄하여 한 마디 적는다..."고 평을 적었다. 김홍도에 대해서는 신필, 신품, 입신 등으로 극찬했다. "화가는 각각 한 가지에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지 못하는데, 단원은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특히 신선과 화조를 잘 그려 이것만으로도 일세를 울리고 후대에 전해지기에 충분하다"고 평했다. 김홍도의 여행길에서 만난 풍경을 보고 "신품의 경지에 들어갔다.", "웃음을 자아낸다.",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듯하다.", 풍속화를 보고는 "사람들의 풍속을 그리는 데에 뛰어나 길거리, 나루터, 점포 같은 것도 한 번 붓을 대면 손뼉 치며 신기하다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균와'에서의 모임이라는 그림은 '균와'라는 곳에 모인 강세황, 심사정, 허필, 최북, 김홍도, 김덕형 등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예술적 교류하는 모습을 그린 '균와아집도'이다. "책상에 기대어 거문고를 타는 사람은 표암(강세황)이다. 곁에 앉은 아이는 김덕형이다. 담뱃대를 물고 곁에 앉은 사람은 현재(심사정)이다. 치건을 쓰고 바둑을 두는 사람은 호생관(최북)이다. … 퉁소를 부는 사람은 홍도(김홍도)이다." '균와아집도(筠窩雅集圖)' 위쪽 오른 편에 쓰여 진 발문의 일부이다. '균와'는 어디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산 근처로 추정된다. 발문에 따르면 강세황은 그림의 위치를 배열했고, 최북은 색을 입혔고 김홍도는 인물을, 심사정은 소나무와 돌을 그렸다. 발문은 조선후기 학자이자 화가였던 허필이 썼다.

강세황 초상화는 여러 점 있다. 70세(1782년) 강세황이 스스로 그린 자화상과 71세(1783년)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하여 정조의 명으로 이명기(李命基, 1757~?)가 그린 초상 등이 대표적이다. 초상화가 크게 유행하던 조선시대에도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자화상은 흔치 않았다. 그런 이유로 "몸은 조정에 있지만 마음은 산림에 있다", "가슴에는 만 권의 책을 간직하고, 필력은 오악(五嶽)을 흔든다"고 자찬(自讚)까지 곁들인 강세황 자화상(보물 590-1호)은 그의 강한 자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이명기와 더불어 초상화에 있어서는 최고였던 궁중화원 한종유(韓宗裕,



강세황 초상화

1737~?)가 부채에 그려준 강세황 69세 초상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작품이다. 전시회 소개에 따르면 '야외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려진 점에서도 조선시대 초상화 가운데 흔치 않은 예이며, 강세황이 손자 강이대(姜彝大) 1761~1834)에게 준 것이라 스스로 적은 글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각별한 사연을 알 수 있다.' 라고 전한다.

그 예술혼은 후대 까지 이어졌다. 손자 강이오(1788~?)와 강이천(?~1801), 증손자 강진(1807~1858)에 이르기 까지 화업이 이어졌다. 강이오의 송하망폭도와 강안주유도, 강완의 묵국도, 강이천의 묵죽도 등이 함께 전시 되었다.

표암 강세황은 18세기 후반을 살면서 시·서·화에 능한 화가이면서 김홍도와 신위(申緯, 1769~1847, 문신, 시인, 서화가)등을 가르친 교육자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서화가이고, 작품에 수많은 화평을 남긴 평론가였다. 찌는 듯한 여름, 표암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길은 너무도 홀연한 기분이었다. 교통 사정으로 호남에 내려오는 서울 화가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 분이 내려올 계기에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간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보였을 것이다. 우리고장 부안 개암사 뒷산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 예술에 대한 노력과 삶이 여름의 더위가 녹아드는 듯하다. ▣

왼쪽부터
강세황 우금도
우금도 현재 모습







최 · 북 · 미 · 술 ·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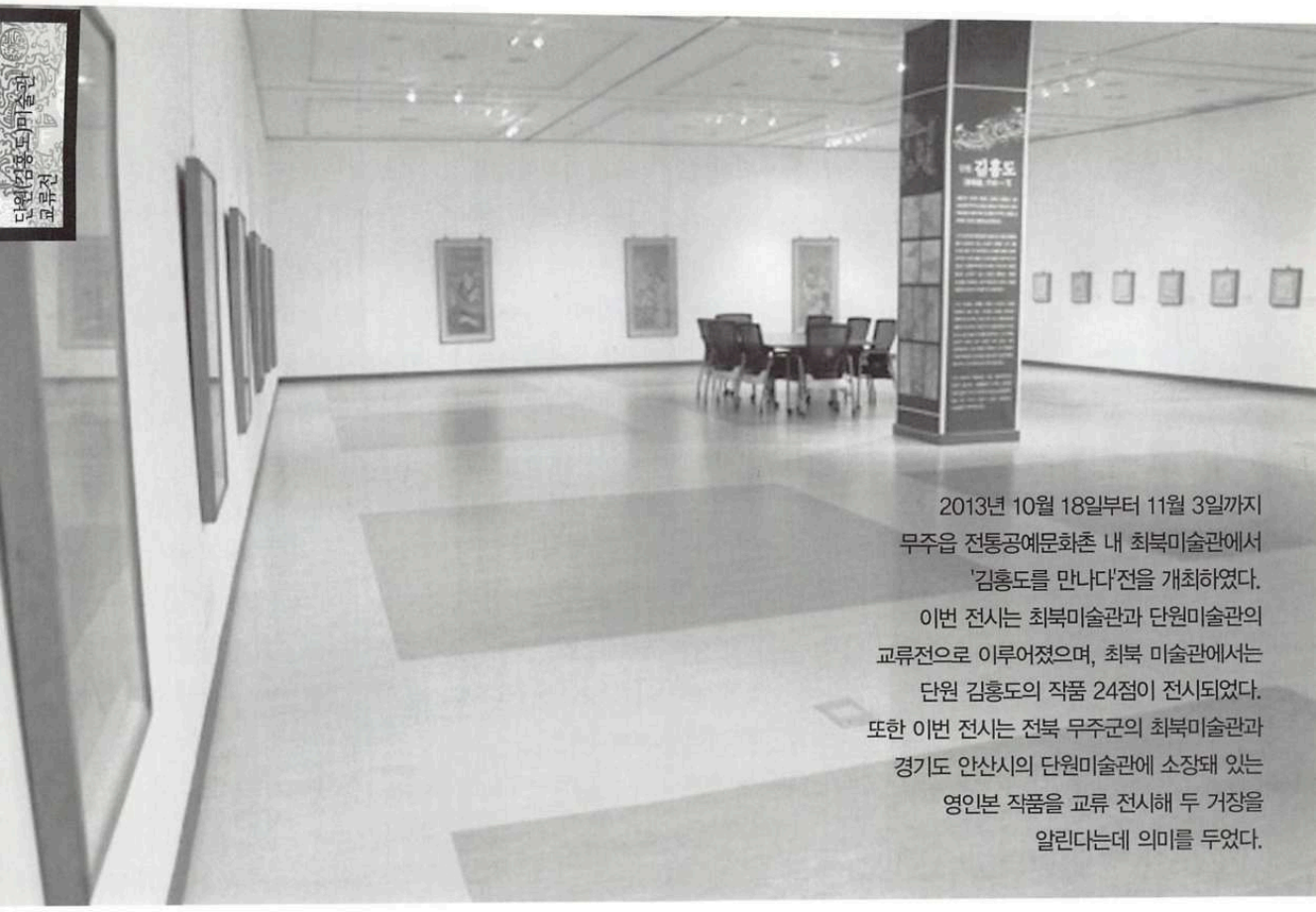
단원(김홍도)미술관 교류展

김홍도를 만나다!

글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김홍도에 대하여...

김홍도(金弘道)는 1745년(영조 21)에 태어났다. 출신 가문은 원래 무반에서 중인으로 전락한 집안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그의 나이 7, 8세 때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강세황(姜世晃)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어린 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강세황은 당대의 감식가이며 문인화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직장의 상하 관계로, 나중에는 예술적 동지로 강세황이 세상을 떠나는 1791년, 김홍도의 나이 47세까지 이어졌다. 김홍도는 강세황의 추천으로 이른 나이에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다. 20대 초반에 이미 궁중 화원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1773년에는 29세의 젊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 내 최북미술관에서
'김홍도를 만나다'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최북미술관과 단원미술관의
교류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최북 미술관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 24점이 전시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북 무주군의 최북미술관과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영인본 작품을 교류 전시해 두 거장을
알린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나이로 영조의 어진과 왕세자(뒤의 정조)의 초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듬해 감목관의 직책을 받아 사포서에서 근무했다. 1781년(정조 5)에는 정조의 어진 익선관본을 그릴 때 한종유(韓宗裕), 신한평(申漢平) 등과 함께 동참화사로 활약했으며, 이에 대한 포상으로 경상도 안동의 안기찰방을 제수 받았다. 이 무렵부터 명나라 문인화가 이유방(李流芳)의 호를 따서 단원(檀園)이라 스스로 칭했다. 이는 그가 이유방의 문사로서의 고상하고 맑으며 그림이 기묘하고 아취가 있는 것을 사모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희룡의 『호산외사』에 의하면 "(김홍도는) 풍채가 아름답고 마음 씀이 크고 넓어서 작은 일에 구속됨이 없으니 사람들은 신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강세황 역시 「단원기」에서 "단원의 인품을 보면 얼굴이 청수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보는 사람들은 모두 고상하고 세속을 초월하여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홍도는 회화에서뿐 아니라 거문고, 당비파, 생황, 퉁소 등을 연주하는 음악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일찍부터 평판이 높았던 서예가이고, 빼어난 시인이었다. 그의 작품에 고졸한 아취가 흐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멋과 문기(文氣)가 번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홍도는 1791년에는 정조의 초상을 그리는 일에 또 한 번 참여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포상으로 충청도 연풍현감에 발령받았다. 이는 중인 신분으로 그가 오를 수 있는 종6품에 해당하는 최고 직책이었다. 정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홍도는 충청위유사 홍대협(洪大協)이 조정에 올린 보고가


1


2


3


4

1) 주막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2) 고누놀이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3) 빨래터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4) 산행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발단이 되어 만 3년 만에 연풍현감 자리에서 파직되었다. 1795년 서울로 돌아온 김홍도는 그림에 전념했다. 그의 나이 51세로 원숙기에 접어든 그는 이때부터 단원화풍이라고 불리는 명작들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으로 행차하는 광경을 그린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조선시대 기록화의 기념비적 대작이고, 《을묘년화첩》과 《병진년화첩》은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온화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현한 명작이다. 김홍도는 이전의 작품에서 보여준 화원다운 치밀함과 섬세함 대신 대가다운 과감한 생략과 스스럼없는 필묵의 구사로 단원 산수화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김홍도는 만년에 이르러 농촌이나 전원 등 생활 주변의 풍경을 사생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경(寫景) 산수 속에 풍속과 인물, 영모 등을 가미하여 한국적 서정과 정취가 짙게 배인 일상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그는 산수뿐만 아니라 도석인물화에서도 자신만의 특이한 경지를 개척했는데, 화원이었던 그가 도석인물화를 많이 그리게 된 것은 당시 서민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도석신앙과 관계가 깊다. 굵고 힘차면서 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선이 특징인 그의 도석인물들은 후기에 오면서 화폭의 규모도 작아지고 단아하면서 분방한 필치를 띄게 되었다.

김홍도는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초충 등 회화의 모든 장르에 뛰어났지만 특히 풍속화를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선 후기 농민이나 수공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여 길쌈,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등 그들이 생업을 꾸려가는 모습과 씨름, 무동, 윷놀이 같은 놀이를 즐기는 모습, 빨래터와 우물가, 점심 등 서민의 삶과 정서에 밀착된 일상의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의 풍속화에는 박진감 넘치는 구성과 예리한 관찰,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으며, 활달하고 건강한 한국적 해학과 정감이 묻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흰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둥글넓적한 우리 서민의 얼굴이 한국적인 정취를 흠씬 느끼게 한다.

김홍도는 왕의 어진에서 촌부의 얼굴까지, 궁중의 권위가 담긴 기록화에서 서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속화까지 신분과 장르를 아우르며 그림을 그렸다. 화가 신분으로 종6품에까지 오르는 세속적 출세를 맛보았고, 비록 말년에는 가난과 고독 속에 생을 마감했으나 일생동안 시를 읊고 고졸한 멋을 즐길 줄 아는 진정 위대한 화인이었다. 김홍도의 작품은 조선시대 우리 문화와 역사를 고찰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며, 동시대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인 양기(良驥)를 비롯하여 신윤복(申潤福), 김득신(金得臣), 김석신(金碩臣), 이인문(李寅文), 이재관(李在寬), 이수민(李壽民), 유운홍(劉運弘), 이한철(李漢喆), 유숙(劉淑) 등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나이로 영조의 어진과 왕세자(뒤의 정조)의 초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듬해 감목관의 직책을 받아 사포서에서 근무했다. 1781년(정조 5)에는 정조의 어진 익선관본을 그릴 때 한종유(韓宗裕), 신한평(申漢平) 등과 함께 동참화사로 활약했으며, 이에 대한 포상으로 경상도 안동의 안기찰방을 제수 받았다.

이 무렵부터 명나라 문인화가 이유방(李流芳)의 호를 따서 단원(檀園)이라 스스로 칭했다. 이는 그가 이유방의 문사로서의 고상하고 맑으며 그림이 기묘하고 아취가 있는 것을 사모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조희룡의 『호산외사』에 의하면 "(김홍도는) 풍채가 아름답고 마음 씀이 크고 넓어서 작은 일에 구속됨이 없으니 사람들은 신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강세황 역시 「단원기」에서 "단원의 인품을 보면 얼굴이 청수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보는 사람들은 모두 고상하고 세속을 초월하여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홍도는 회화에서뿐 아니라 거문고, 당비파, 생황, 퉁소 등을 연주하는 음악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일찍부터 평판이 높았던 서예가이고, 빼어난 시인이었다. 그의 작품에 고졸한 아취가 흐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멋과 문기(文氣)가 번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김홍도는 1791년에는 정조의 초상을 그리는 일에 또 한 번 참여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포상으로 충청도 연풍현감에 발령받았다. 이는 중인 신분으로 그가 오를 수 있는 종6품에 해당하는 최고 직책이었다. 정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

● **작 품**

〈자화상〉(18세기 중반), 〈군선도〉(1776), 〈서원아집도〉(1778), 〈행려풍속도〉(1778), 『단원풍속도첩』(18세기 후반), 〈송월도〉(1779), 〈꽃과 나비〉(1782), 〈단원도〉(1784), 〈사녀도〉(1784), 『금강사군첩』(1788), 〈연꽃과 게〉(1789), 『을묘년화첩』(1795), 『병진년화첩』(1796), 〈마상청앵도〉(18세기 후반), 〈염불서승도〉(1804), 〈추성부도〉(1805) 등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김홍도 [金弘道] (두산백과)



동산아금(東山雅琴)
98.2×48.5cm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운대주면(雲臺晝眠)
98.2×48.5cm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군선도(群仙圖)
269×47.8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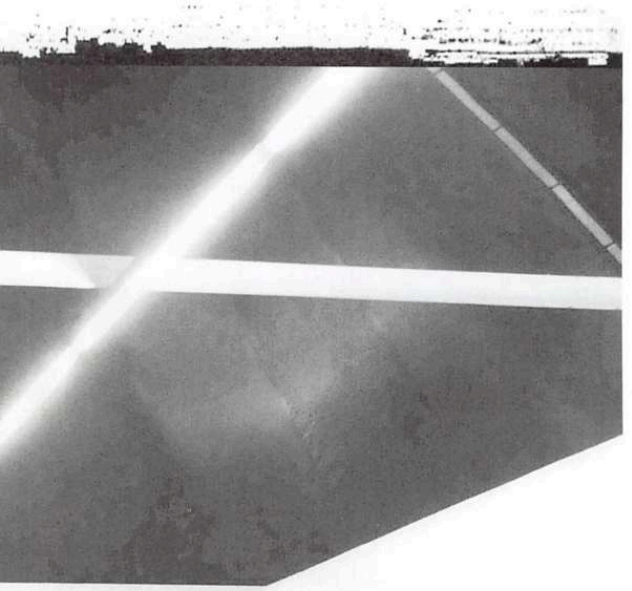


8

5) 벼타작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6) 논갈이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7) 기와이기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8) 노상과안 27.0×22.7cm | 국립박물관 소장 | 영인본



*리스테 아트페어 전시장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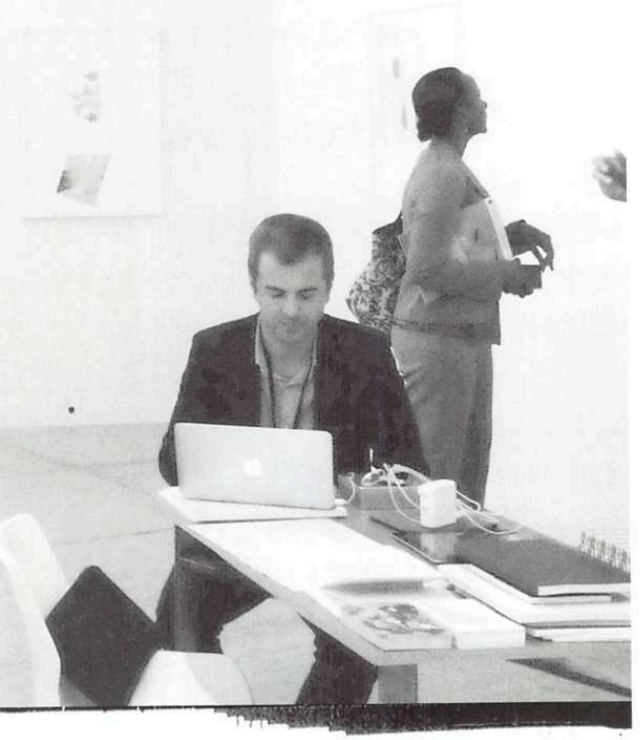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과 동시에 열리는 리스테 아트페어 (Liste Art Fair)'

관람기

글 **이철규** (전북회화회 회원)



세계 곳곳에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아트페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술축제가 연간 100여 회에 걸쳐 펼쳐지고 있다. 참고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그 규모와 인지도, 영향력을 인정받는 페어는 열 개가 채 안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예술 분야 전반에서의 강세를 대변하듯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편중돼 있다 보니, 최근 들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미술 시장의 기반을 형성한 아시아권(홍콩, 싱가폴, 상해, 서울 등)이나 중동권 국가들이 점차 아트페어의 새로운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시장과 같이 자금 유통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아트페어의 특성 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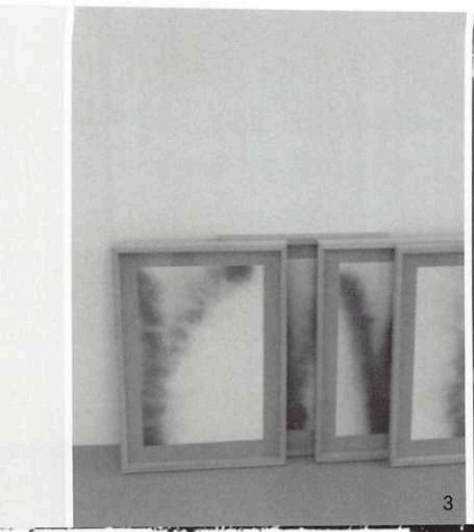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미술 시장의 불황은 영원할 줄만 알았던 메이저급 아트페어들의 위상에도 위기의식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원조격 아트페어들도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특색과 형태를 갖추고 미술 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신생 아트페어들의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본보기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으며, **리스테 아트페어(Liste Art Fair)**처럼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특성화 된 아트페어들도 나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 해 6월 독일 남부 칼스루헤에서 개최되었던 'EUNIQUE 공예 디자인 페어'에 참여하고 하루 시간을 내어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Art Basel'을 관람 차 스위스 바젤로 여행을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인지라 방문 당일이 VIP 오픈 일이라 일반인이 관람하기 어려워 아트 바젤이 열리는 장소인 MESSE에서 비교적 가까운 장소(옛 공장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전시 공간)에 매년 아트바젤과 같은 기간에 오픈하고 폐막하는 중소 아트페어 중 하나 인 Liste Art Fair을 관람 하였다.

Art Basel이 세계 메이저 화랑들과 대가들이 모여 만든 아트페어라면 Liste Art Fair는 유럽중심의 중소화랑들이 젊은 작가들을 데리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페어 라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여기서 잠깐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에 대해 소개하자면 먼저 바젤 아트페어는 여러 개의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300여 개의 화랑이 참여하는 갤러리 프로그램과 대형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전시 형식의 '아트 언리미티드(Art Unlimited)', 아트페어가 열리는 메세플라츠 광장에 대형 옥외 조각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Public Art Project)', 마지막으로 기존의 아트페어 형식과 달리 하나의 화랑이 한 명의 작가만을 홍보하는 '아트 스테이트먼트(Art Statements)'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와 더불어 필름 프로그램, 작가, 큐레이터와의 대담, 특별 강연





1) 리스테 아트페어 출품작
2) 휴지말이 겉 표면에 드로잉을 한 후 출품 한 작품
3) 벽면이 아닌 바닥에 진열 된 작품 같지 않은 작품들
4) 직접 총을 쏘아 만든 총탄자국이 그대로 나있는 대형 거울 작품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페어 기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바젤 아트페어는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근대미술까지를 포괄하는 폭 넓은 작품을 다루는 것이 특색인데 20세기는 물론 21세기 유럽과 미주대륙, 아시아, 호주로부터 온 최고의 갤러리들을 비롯해 미술 애호가와 아티스트, 미술계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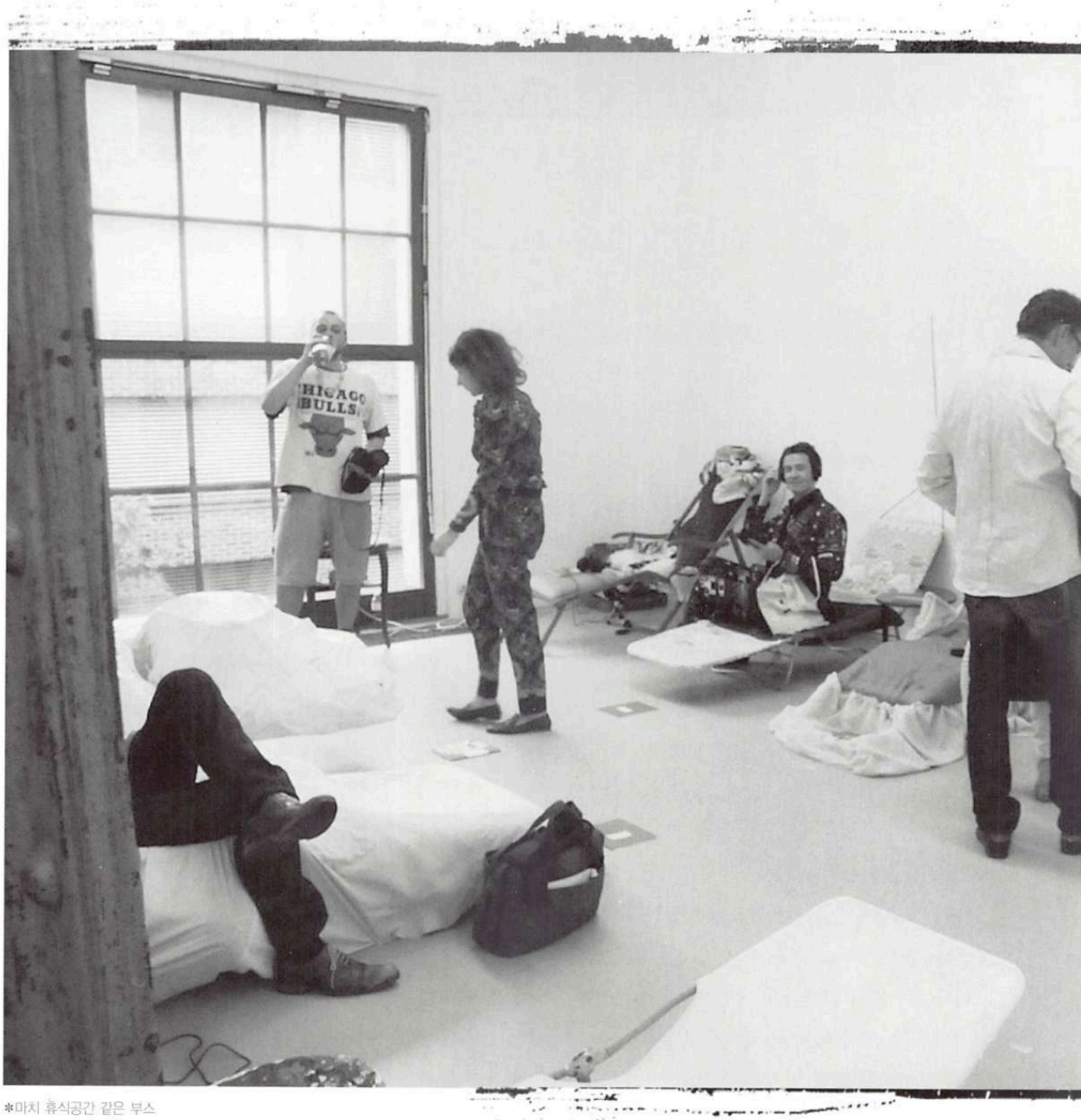
한편 다른 대형 아트페어와 마찬가지로 바젤 아트페어 기간에도 여러 개의 중소 아트페어가 열린다. 리스테(Liste), 볼타쇼(Volta Show), 스코프바젤(Scope Basel), 솔로프로젝트(Solo Project) 등이 그것이다. 이들 아트페어에는 주로 중소 규모의 화랑들이 참여해 비교적 젊고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작가들을 홍보하고 그들의 작품을 판매한다.

리스테 아트페어(Liste Art Fair)는 오픈 당일 모습이 아트바젤과 비교가 되는 데 아트바젤이 세계의 부호들이 점잖게 나비넥타이를 메고 명차를 타고 와서 글라스 잔에 칵테일과 와인을 마시며 세계적인 작가들의 비싼 그림들을 구입하는 그런 장면이라면 리스테는 VIP 오픈이 따로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으며, 전시공간이 좁았는지 길거리 노상에 천막을 치고 오픈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바지 차림의 젊은 작가들과 하객 손에는 와인 잔 대신 맥주 한 병 들고 담소하고 웃으면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에 몸을 흔들며 젊음의 자유스러움이 격의 없이 표현되는 오픈 당일의 독특한 모습이었다.

이런 오픈식을 보니 전시장 안에 전시 된 작품들의 양상들을 미리 알 수 있었다. 아트바젤이 기성작가에 주목하고 있다면 리스테는 젊은 작가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작품과 부스 광경이 평범치 않다. 일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아트페어에서 보듯이 좋은 전시장 환경에서 긴장감 있게 장식적인 작품 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 좁은 입구에 걸맞게 마치 설치미술처럼 파격적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화랑 부스들은 쉽게 한눈에 찾아 볼 수 없도록 지하며, 다락같이 생긴 공간이며, 혹은 옥상 등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작품을 감상하려면 숨은 공간 찾기처럼 미로를 헤매게 한다. 일반 아트 페어처럼 대형 전시 공간에 칸막이를 치고 한눈에 전시장 부스 위치를 판별 할 수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좋게 이야기하면 차별화를 주고 있다 할까!

작품들도 전시장 입구 분위기와 상응하듯 일반 아트페어처럼 장식적인 작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설치작품에서 레디메이드, 텍스처, 마치 낙서 같은 드로잉작품들 등 도저히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휴식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부스 형태로 만들어 전시작품 인지 아니면 휴식 공간 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는 시도 등 파격 그 자체이다. 특히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직접 총을 쏴 총탄자국을 그대로 나타나 있는 대형 거울을 작품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것도 세 점씩이나 전시 해 논 것이다. 가까이 가 보니 직접 총을 쏘지 않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국이다. 그리고 겉 표면에 약간의 드로잉을 한 화장실 휴지말이를 통째로 가져와 전시장에



*마치 휴식공간 같은 부스

작가의 자유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아트페어였다



디피 한 작품을 아트페어 판매하러 나왔다는 그 자체가 작가나 화랑이 한 통 속으로 무언가를 어필 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는다. 기존의 유명 아트페어들의 일반적인 속성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말이다.

리스테는 이런 형식의 아트페어였다.

리스테는 젊은 작가의 자유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아트페어였다.

리스테는 장식적인 것과는 달리 속물적인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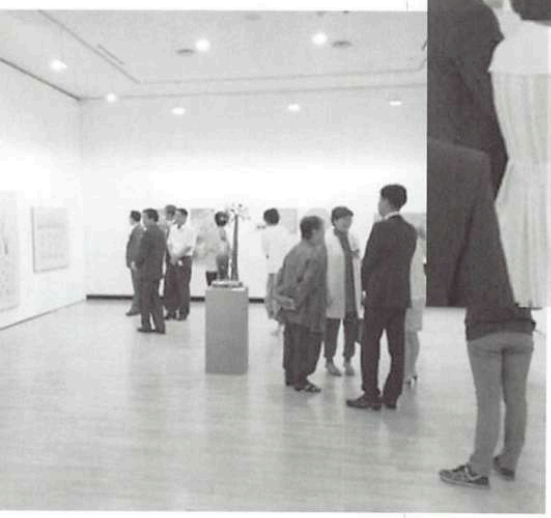
리스테는 파격이다.

10여 년 전 부터 많은 화랑 대표들은 미술시장이 젊은 작가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현상에 대해 "작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계적인 대가들에 비해 투자 매력이 크고 젊은 작가 특유의 독특함과 시대성, 그리고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대담성 등 신선한 감각이 주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좀 수그려 들긴 했지만 지속적 관심사인 것만은 확실하다. 리스테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아트 바젤(Art Basel)'이 아직 공식적인 관람객과 판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 해 약 5만이 넘는 관람객과 3억 달러의 판매고를 웃돌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인데 리스테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 졌다. ▣









2013 나우 아트 페스티발

【 전 북 아 트 페 어 】

● 개최취지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주최하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시행사로서 화랑 초대작가 및 본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작가를 초대하여 부스전시회 및 특별전, 기획전의 형식으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작품 관람과 작가와의 대화 등으로 전북미술시장 형성과 함께 판매를 통한 예술작품 소장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글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전북아트페어

사업목적

전북 미술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 미술시장의 개방화와 더불어 작가가 참여하는 부스전시회 형식의 전시는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 작가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더불어 미술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구축 및 미술품 애호가들의 작품에 대한 예술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제반 이해를 정립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작가 발굴의 등용문이 되게 하고 미술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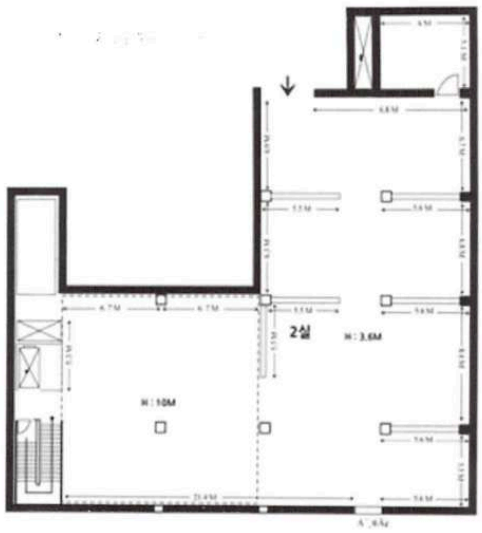
- **특별전(1층 메인홀)** : 본 운영위원회에서 초청한 작고작가들로 구성되는 특별전으로 진행이 된다.
- **화랑전(1층 메인홀을 제외한 전관 6개 부스)** : 화랑 자체 기획으로 구성한다.
- **기획전(2층 전관)** :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소, 공예, 판화, 서예, 문인화의 8개 분야 에서 역량 있는 작가들로 분야별, 2~5명으로 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조소, 공예는 작품 좌대 필히 지참.)

전시장 배치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F 평면도 (작고작가 특별전, 외광 부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2F 평면도 (미술 기획전)





작가 및 화랑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북의 화랑들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갤러리에서 추천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작가선정은 올해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협회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였기 때문에 추천제를 도입하였으나 내년에는 공모와 추천을 병행할지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 사업 운영진이 꾸려지면 회의를 통해 확실한 방향이 잡힐것입니다.

아트페어를 준비하는 작가와 화랑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화랑은 지금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개인 작가를 선정하게 될 수 도 있는데, 각 전문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을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아트페어에서 나우 아트 페스티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어떤 뜻을 표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아트페어는 시장논리에만 국한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파는 것이 중심이

*** 미협에 가입하는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지역
예) 전주지부에 전화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전라북도지회 미술협회
Tel. 063) 276-9475
Fax.063) 276-9476
홈페이지: www.jbfaa.or.kr

되는 시장논리의 한계점을 넘어서고, 판매와 관람을 축제분위기로 끌어가면서 시민과 작가들이 모두 즐기는 축제의 장을 지향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명칭을 나우 아트 페스티발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을 지향하고 있는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작품이 판매되면 작가 80%, 미협발전기금 20%로 판매액수가 배분되는데요 미협발전기금이란 무엇이고, 미협은 어떤곳인가요?

미협은 한국미술협회를 줄인말입니다. 한국미협은 각 지역별로 전북지회 전주지부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작가들을 위한 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연 5회 정도의 정기전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유지하고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협 발전기금은 회비가 일년에 2만원정도로 전북지역 작가이면서 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경우 한국미협, 전북지회, 전주지부의 3곳에 협회회원으로 등록이 되며, 각 각의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 회비로 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아트페어 및 정기적인 전시를 통상 연 5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의 발전기금은 전시관련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아트페어의 취지에 맞는 작품의 적정한 가격책정에 대하여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시장성을 지양하고 규격이나 연륜에 상관없이 작가가 원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트페어를 준비하는 작가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나 하고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공모형태로 전시인원을 모집할 수도 있고, 개인부스형태도 고려해보고 있는데 물론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현재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작가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꾸준히 열심히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신 전북미협의 서고은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내년의 나우 아트 페스티벌에서도 더욱 활기찬 전시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전북회화회 **이봉금**

* 아트페어 미협 전화번호

이가립 사무국장 : 010-6685-1966
고창미협 : 561-2264
군산미협 : 468-8847
김제미협 : 이정동 지부장 : 010-7326-9586
남원미협 : 626-1464
부안미협 : 김영동 지부장 : 011-656-8458
익산미협 : 라서경 사무국장 : 010-3356-6489
정읍지부 : 533-2557
진안미협 : 832-6276

전북회화

20주년

전.북.회.화.회 발자취를 말하다

글 **이철규** (전북회화회 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어느덧 전북회화회가 20주년이 되었다.
강산이 두 번 바뀐 긴 시간이다.

서른 즉 입지(立志, 뜻을 세우는 나이)초, 창립 전부터 참여했던 본인이 이제 지천명(知天命,하늘의 뜻을 앎)에 이르렀으니 20년 동안 전북회화화도 많은 굴곡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진행형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창립부터 현재의 전북회화의 특징들을 굳이 나이와 연관시켜 좀 비교해 보자면 뜻을 세운다는 서른의 나이에 전북 화단의 판을 한번 갈아보자는 힘찬 구호와 함께 즉 '뜻을 세우고' 10여 년 동안은 불혹(不惑), 즉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 마흔을 기념 하 듯 '작품들도 한결 정리되고 원숙해 졌으며 전북회화지라는 정기간행물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뎌왔다. 지천명이라는 오십에 다다르니 하늘의 뜻이라도 깨우 친 듯 저절로 잘 돌아가는 그룹이 되었다. 이제는 회원들의 참여가 인위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전북화단에 묵직함과 담담한 맛을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인이 베긴 그룹이라 할까? 즉 누구하나 모나지 않고 욕심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그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북회화회가 처음부터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작가 개인의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 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듯이 이제는 그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자평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근거 즉 '전북회화회가 20년을 지속해온 이유내지는 장점' 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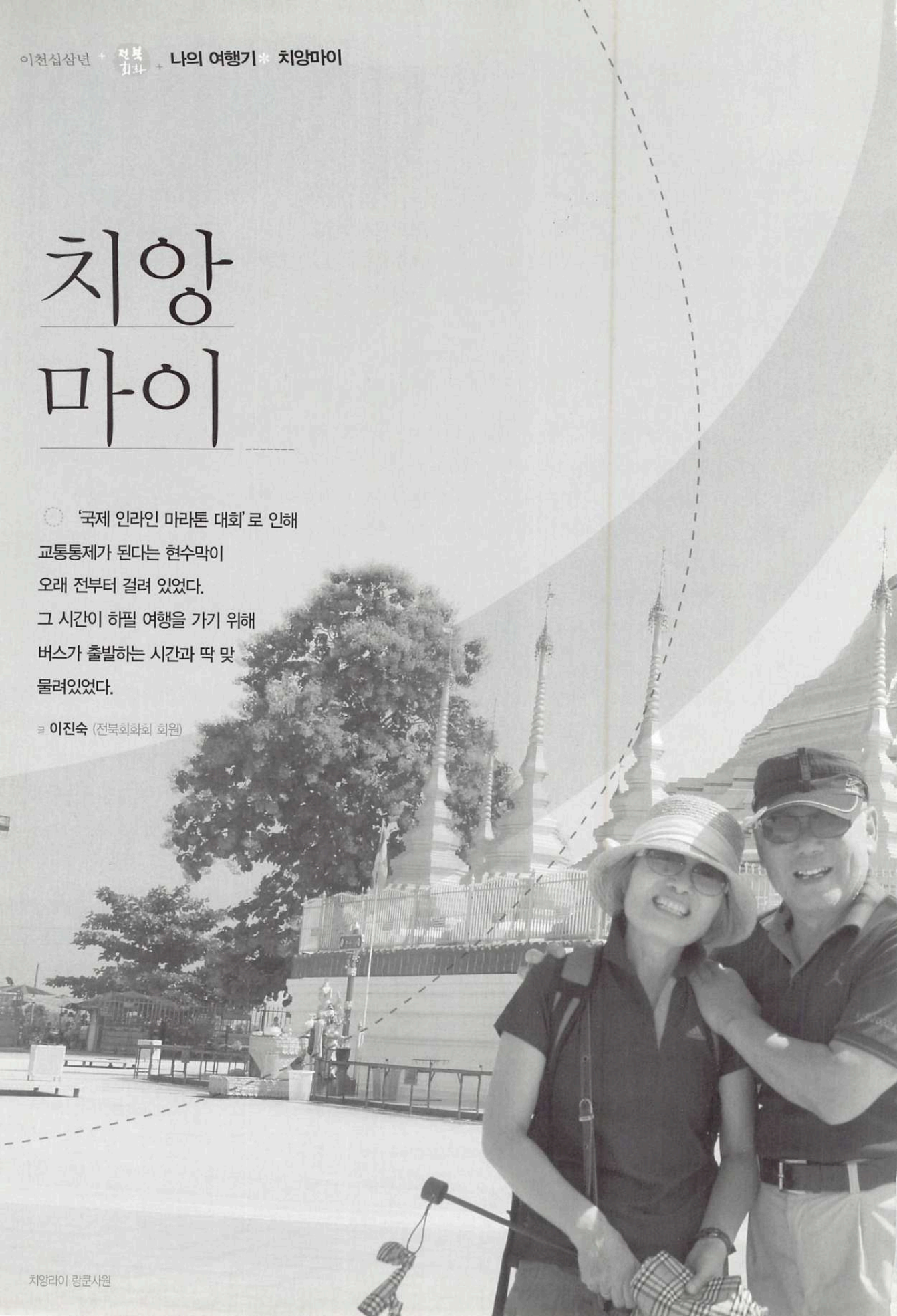
첫째, 회원들의 작품 성향들이 한국화의 전통을 고수하되 현대적인 조형과 기법들을 가미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해온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교적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경제적인 능력들이 뒷받침이 되다보니 회원들이 활동영역을 쉽게 넓힐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정기적인 모임에 있어 의사결정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이다. 또한 화가모임치고는 비교적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 생산성도 높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셋째, 타 지역 작가들과의 과의 활발한 교류전시를 통하여 전북회화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올해로 전북회화회지가 통권20호를 발간된다. 일반 소규모 그룹이 부록형식의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인력사정으로서나 매우 힘든 일이다. 철저한 분업화와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전북회화지 발간은 전북회화화의 역사이며 자랑이다. 그 만큼 애착이 많은 사업이며, 외부에서 전북회화회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심볼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다섯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 한 그룹이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과정에는 해체의 위기, 회원들과 탈퇴와 반목, 전시형식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특히 매너리즘과 형식적인 활동 등으로 참시 침체되었던 시기에는 해체의 이야기가 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회원들의 반성과 진로를 놓고 열띤 토론과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슬기롭게 잘 극복 해왔다는 점이다. 이제는 그 어느 그룹보다 유대관계와 참여도가 공고하고 능률적이 되었다.

이러한 장점들은 앞으로 전북 회화회의 미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창립 때부터 전북화단에 큰 변화를 주도하고 족적을 남기려는 커다란 포부와 여망들은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즉 야망에서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그런 역할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서있다.
이제 창립 때부터 한발 한발 묵직하게 디뎌온 전북회화회의 발자취들이 깊게 패여 후배들이 따라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 왔고 견뎌왔다는 자부심과 지혜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 하는 그룹으로 거듭 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치앙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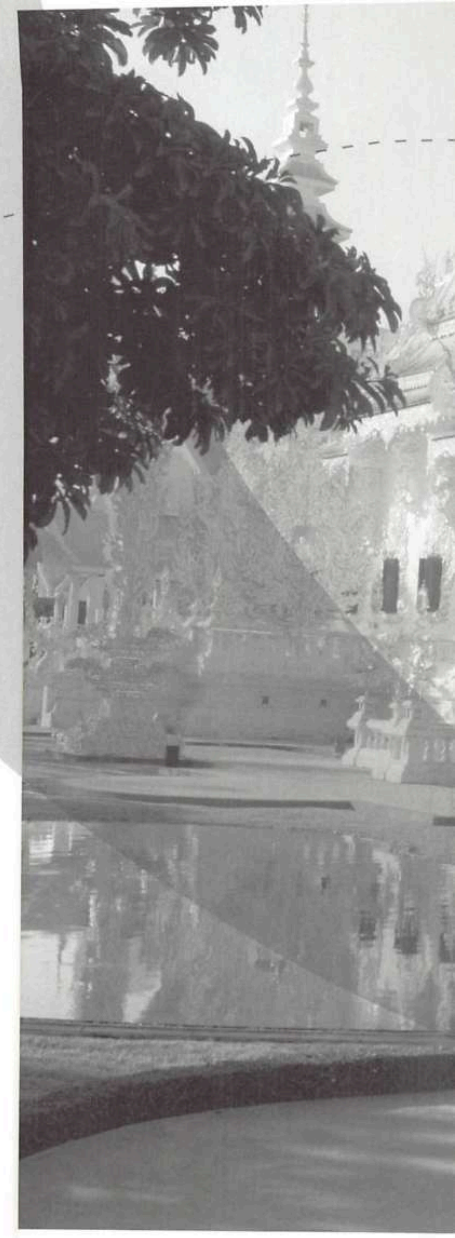
'국제 인라인 마라톤 대회'로 인해 교통통제가 된다는 현수막이 오래 전부터 걸려 있었다. 그 시간이 하필 여행을 가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과 딱 맞물려있었다.

글 **이진숙** (전북회화회 회원)



치앙라이 랑쿤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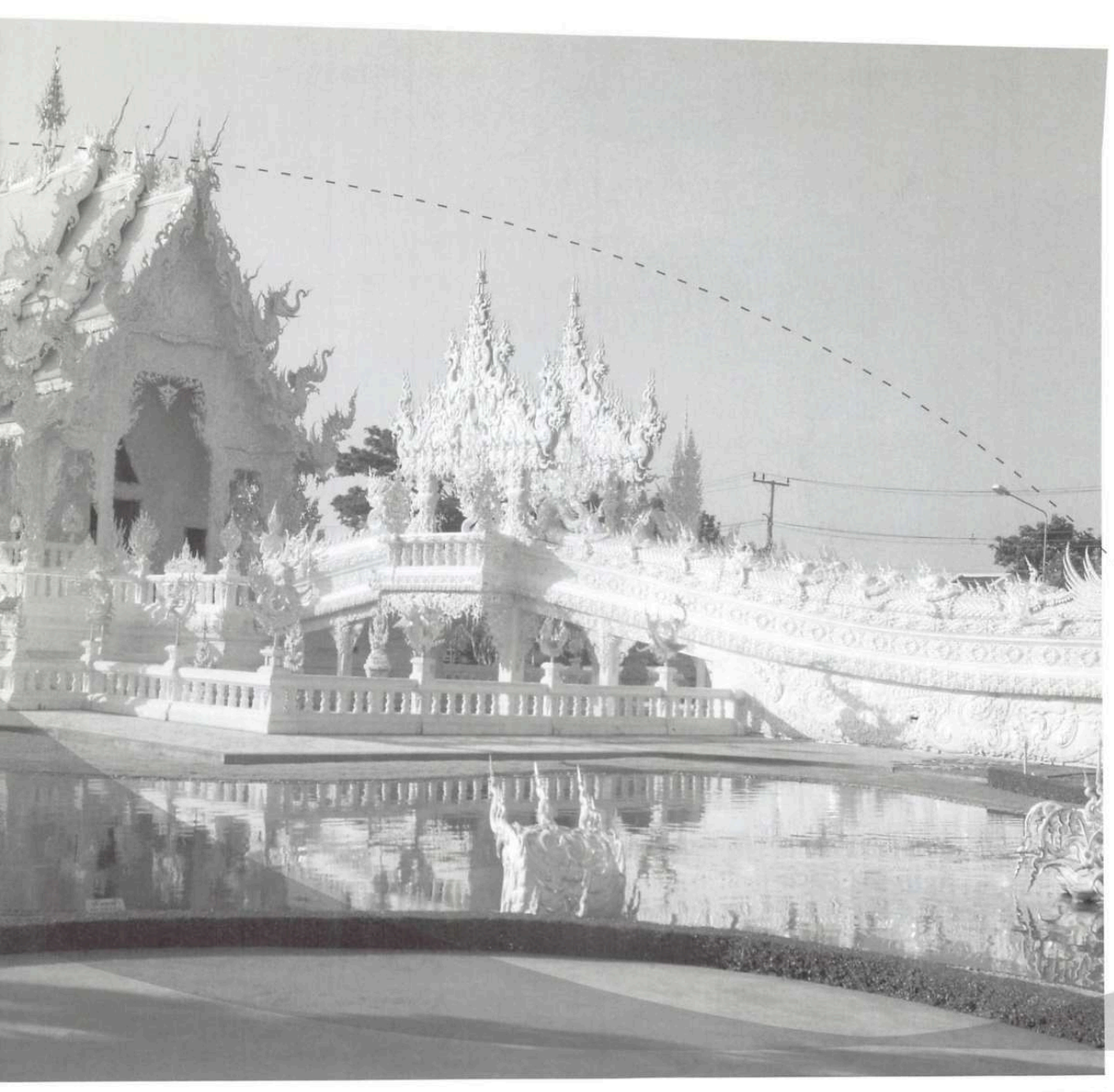


버스 출발 두 시간 전에 집에서 나왔다. 큰 거리에 나와 보니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당연히 차는 볼 수가 없었다. 30여분을 커다란 가방을 끌고 차가 다니는 큰 길까지 걸었다. 길은 온통 자동차로 꽉 막혀있다. 마치 주차장에 온 것 같았다. 평소에 이용하던 콜 택시회사에 전화를 했다. 잠시 후 택시 기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래도 그곳까지 갈 수가 없겠노라고……오랜 기다림 끝에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와 보니 그 곳 역시 차량들로 대만원. 버스에서 내려 다시 택시를 타고 우리를 싣고 갈 버스가 있는 곳까지 간신히 도착했다. 이렇게 어렵게 공항버스를 타고 힘들게 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번 여행은 시작 되었다.

여행은 항상 사람을 설레게 하고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 같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기대가 되는 곳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관광지와 휴양지로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란다.

여행 첫 날 체험한 고끼리 트래킹은 물론 새로운 경험이라서 재미도 있었지만 한편 측은한 마음이 더 컸다. 야생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매 맞아 가면서 자기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또한 고끼리 쇼에 나오는 많은 코끼리들을 보면서도 그림을 그리거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공을 차거나, 인사를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즐거움 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 이런 생각들도 나이 탓일까? 코끼리 체험을 끝내고 목이 긴 카렌족여인들이 있는 마을에 갔다. 카렌족은 약150만 명 정도라는데 그 중 일부는 여인들의 목에 금속제 링을 둘러 목을 길게 느리는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단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인권단체에서 여성인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폐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속마을처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아주 많은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시키고 있다. 그곳에 가보니 신기할 정도로 목에 링을 둘러 기다란 목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우리들 눈에 측은하게 보일뿐 그들은 그런 우리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목을 길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자들이 사냥터에 나가 사냥하는 동안 맹수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가장 지배적이란다. 맹수는 사람이나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 목을 물기 때문이란다. 이어서 치앙마이 구 시가지를 구경했다. 이곳도 다른 나라 구 시가지처럼 시 전체를 해자를 만들어 적의 침입에 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해자의 곳곳에 분수를 설치하여 밤에는 멋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츠위다껑 탑

다음날 우리는 태국 국경과 인접한 미얀마의 메사이라는 도시를 갔다. 국경을 걸어서 통과하니 아주 오래 전 일이 생각났다. 라트비아에서 리투아니아의 국경을 버스로 이동 하는데 국경수비대원 한사람이 차에 올라와 날카로운 눈초리로 살피더니 남편에게 동행을 요구하며 차에서 내렸다. 옆에 앉아있던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편이 돌아왔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남편이 'I'm from KOREA'라고 하니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자기들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중국인을 찾는다며 버스까지 정중하게 모셔왔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여행 중 이렇게 국경을 넘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때의 일을 떠 올리며 농담을 주고받곤 한다. '당신 조심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얀마 국경도시에서 미얀마의 양곤에 있다는 황금 탑을 모방하여 똑 같이 만든 높이 70m의 '츠이다껑 탑'을 보았다. 이곳 사람들의 불심은 가히 상상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다시 버스를 타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지역인 치앙

센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는 메콩 강을 보트를 타고 관광 하였다. 메콩 강은 우리의 역 전 앞 이라는 말과 같단다. 이곳 말로 메는 강(江)을 뜻한다는데 월남 전 때 미군들이 메콩을 메콩 강이라 부르고 지금도 세계의 모든 지도에 메콩을 메콩 강으로 표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긴 것이다. 이곳은 골든트라이앵글(黃金三角)로 오래 전 마약의 왕이라 불리는 쿤사가 마약거래를 할 때 현금대신 금을 받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귀비는 전체생산량의 60%가 나온다니……사실 양귀비에서 만들어지는 아편은 의약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재료라고 한다. 필요악(必要惡)이라고나 할까……메콩 강을 보트를 타고 구경하면서 우리도 압록강, 두만강을 보트를 타고 유람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기도 했다.

치앙마이로 돌아오는 도중 치앙라이라는 인구수로는 태국 제2의 도시에 있는 '랑쿤 사원'을 구경했다. 이곳으로 여행 오기 전 인터넷에 올라온 '랑쿤 사원'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었다. 이 사원은 태국최고의 회화가인 슬림차이 교수가 만든 개인 사원이라고 한다. 그가 꿈에 돌아가신 모친이 지옥에서 힘들어하며 '시주를 하여 구해 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래서 사찰을 지을 결심을 하고 이 도시 시청에 들어가 사원을 지을 땅을 달라는 청원을 하고 전 재산을 털어 지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온통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이 사원은 일명 '백색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건물 벽에 시멘트를 바른 다음 거울조각을 붙이고 하얗게 칠해서 그 칠이 마르기 전에 닦아 거울이 보이게 마든 사원인데 그래서인지 햇빛이 비치니 여기저기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가히 환상적이었다. 한 사람의 효심으로 시작된 이 사원은 이제는 불심이 있는 사람들의 시주와 수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더욱 더 아름다운 사원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숙소로 오는 내내 그 사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 거렸다.

태국에서 가장 높다는 도이(山)인타논(2,565m)의 숲 속 산책에 나섰다. 이곳 치앙마이는 자연환경이 아주 좋아서 붐비는 여느 관광지와는 다르게 공기가 맑고 여유로운 관광이라서 좋았다. 숲이 깊어서인지 그리고 수량(水量)이 풍부해서인지 많은 나무들이 이끼가 많이 끼어있고 서로서로 기대면서 등걸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도록 품을 내주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산책 길 도중에 태국왕국중 하나인 란나 왕국의 마지막왕인 인타논 왕의 무덤을 보았다.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참배를 하고 또 무덤에 낀 이끼를 닦아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왕을 기리기 위해 산 이름도 인타논 산이라 부르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산에 현 태국 왕 부부의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장수 탑이 서로 마주보며 두 개가 세워져있는 모습에서 태국국민들의 왕부부에 대한 존경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에 본 왓 프랏타 도이 수텝은 1383년에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해발1060m)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원으로 태국 불교사원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란다. 이곳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황금 탑이 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을 혼합해서 만들었다는 가이드의 설명대로 우리는 승강기를 타고 그 높은 곳을 단숨에 올라갔다. 태국에서 기도를 가장 잘 들어준다는 가이드의 믿을 수 없는 설명을 듣고 나도 그곳 탑에 20바트를 내고 연꽃과 양초를 손에 들고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었다. 이 사원이 이렇게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서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위해 힘들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약 70여 년 전에 시위차이라는 이 사원의 스님이 도로를 만들었단다. 처음 사원에서부터 호미를 들고 땅을 파서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불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도로를 만들었다니 이 도로도 불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된 도로로 바뀌었지만……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걸작들이 종교의 힘으로 만들어졌듯이 이곳의

많은 사원들도 종교의 힘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종교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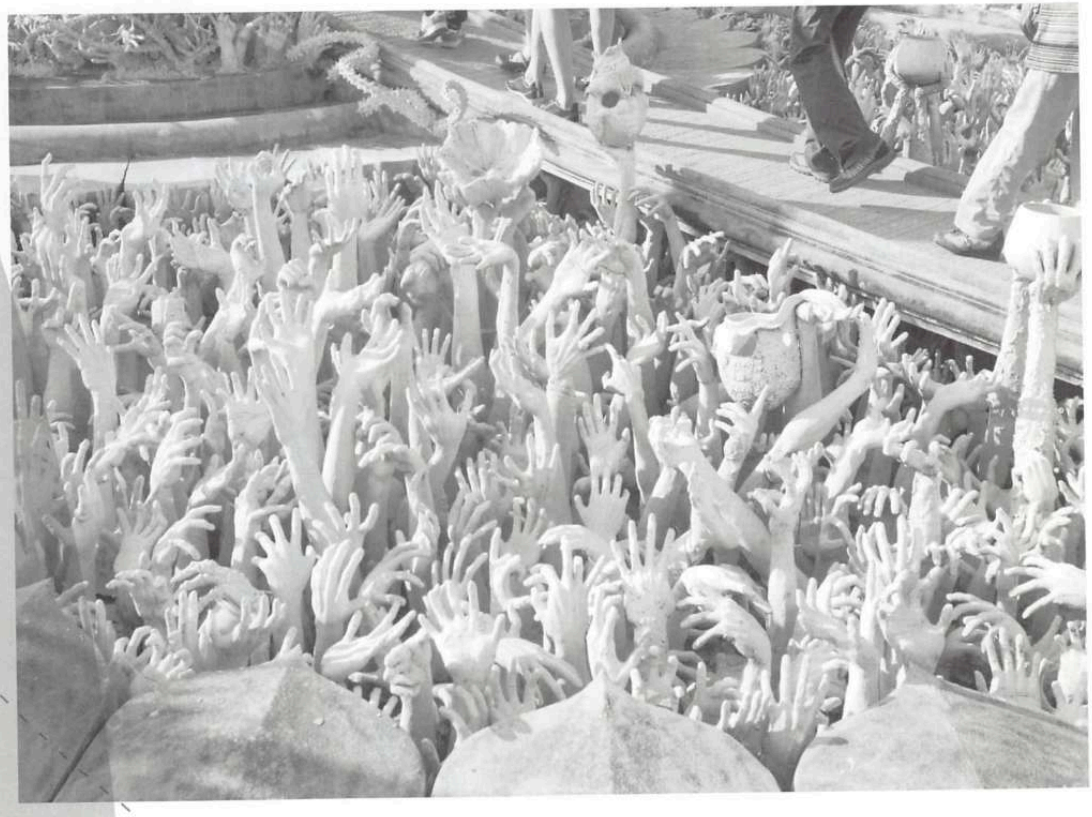
모든 일정이 끝나고 밤 비행기를 탔다. 잠은 오지 않고 그 간의 일들이 생각이 났다. 여행 내내 묵었던 호수와 야경이 아주 예쁜 그린레이크 리조트, 그 곳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 순박한 표정으로 항상 합장인사를 하며 우리를 반겼던 태국현지 가이드 Miss파, 'goodmorning'하며 인사를 건네면 쑥스러운 미소를 띄우 던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며 헤어지는 인사말을 할 때 안경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던 한국인 가이드 등,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여행이 가장 즐거운 것은 매 끼니마다 밥걱정, 설거지 걱정을 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은 아마 나 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오늘 점심은 여행한다고 냉장고를 모두 비웠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다.

집에 오니 그 새 가을이 더 깊어져 마당에는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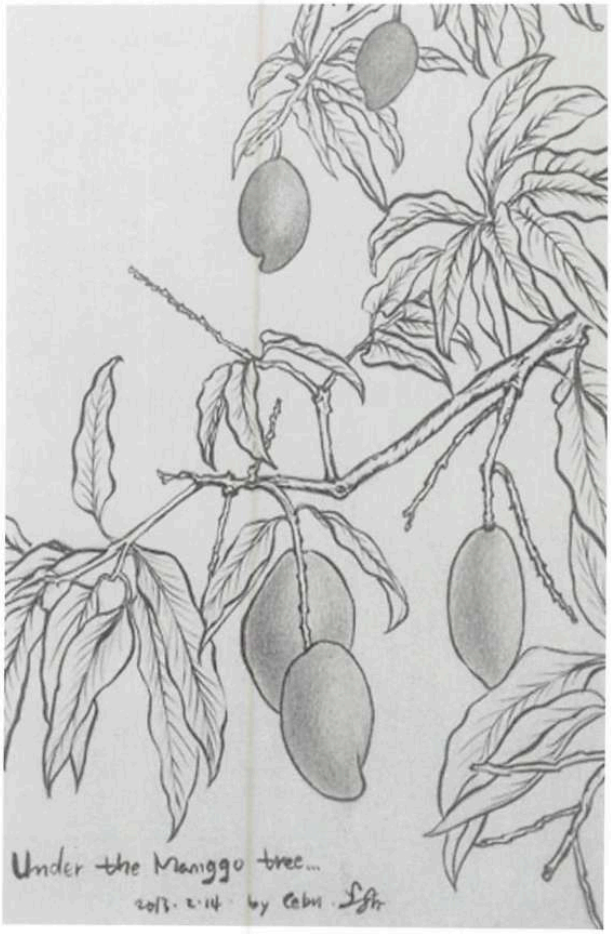
그래! 이제 일상을 돌아가 가방 속에 소중하게(?) 간직한 빨랫감을 꺼내 세탁기를 돌리자. 그리고 빨리 점심 밥 준비를 하자. (2013.11.9) ▣

츠위다껑 탑



필리핀 세부를 다녀오다

글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어린 망고〉 2013. 2. 14. by Cebu. 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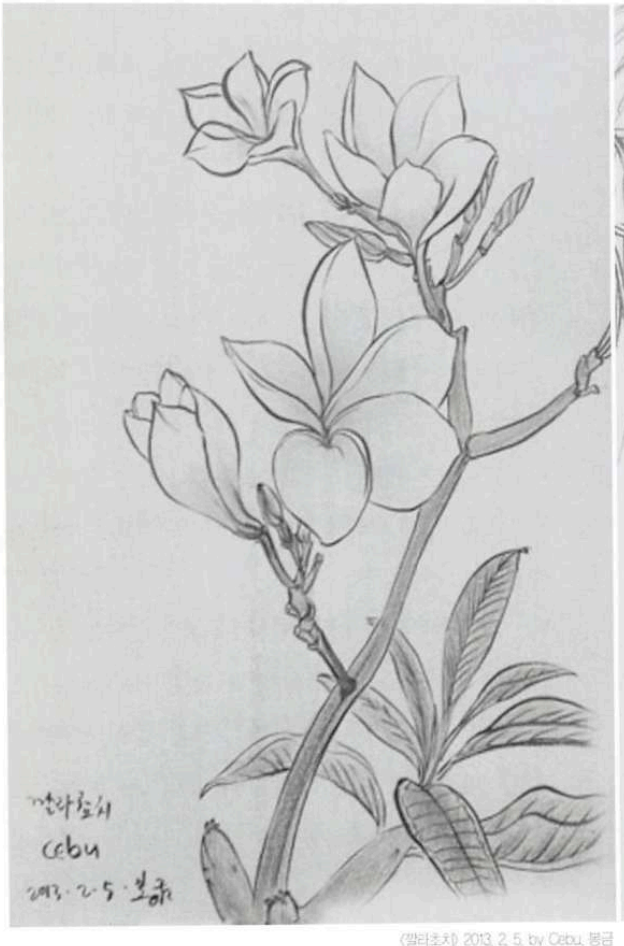
모처럼 얻은 한 달간의 꿈같은 휴가...

2월 한 달간의 일정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한국은 매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이었지만 세부는 초여름날씨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체감온도는 이미 한여름이었다. 아마도 한국에서 추위에 적응하다 와서 그런 것 같았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힐링"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기' 였다. 요즘 어깨에 오십견이 왔고, 엄지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투약과 치료 중 이었다. 또한 경추탈골로 척추교정까지.... 벌써부터 몸 여기저기가 AS를 요구하고 있었다. 언니가 세부에 간지 2년여가 되어가고 방문차 긴 휴가를 얻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세부는 휴양지로 이름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언니네의 생활이 몹시 궁금했다. 생각했던 것만큼 깨끗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네 시골 집집마다 감나무 한그루 쯤 있듯이 세부에는 망고나무 한그루씩 볼 수 있었다.

언니네 집에도 수영장 옆에 아름드리 망고나무 한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아직 자그마한 초록색의 망고들이 올망졸망 한가득 달려 있었다. 수영장 옆으로는 깔라쵸치라는 나무에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깔라초치〉 2013. 2. 5. by Cebu. 봉금



〈지원이 학교 가는길에 만나 키작은 야자나무〉 2013. 2. 7. by Cebu. 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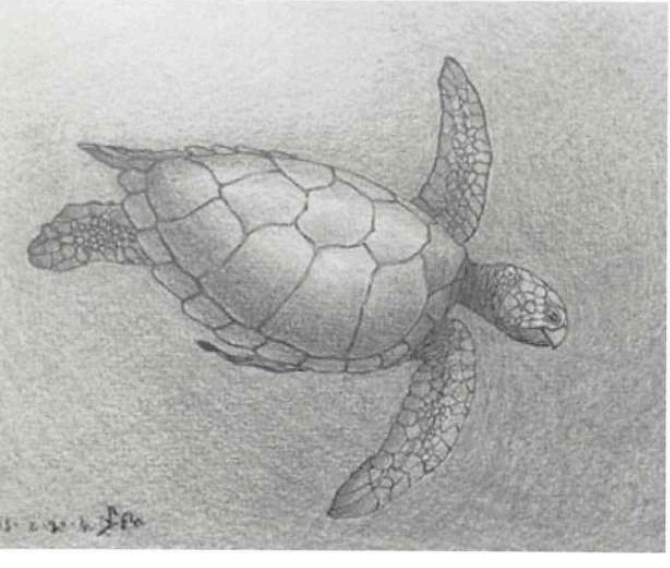
그곳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므로 여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상생활의 반복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차로 아이를 픽업하고 학원도 다니고.. 나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끼어 하루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는 한 달 동안 많은 열대과일들을 섭렵하고 골프도 배우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취득했다.









골프는 운동치인 나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고, 완전히 배우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과 저질 체력으로 곧 실증을 느껴버렸다. 그러나 스킨 수쿠버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이었다.

물속세상은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처음 오픈워터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물속에서 공기통에 의지해서 세상구경을 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였고,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그러나 곧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물고기들과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비로소 내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 왔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세부는 스쿠버하기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것 같다. 연중 물속기온이 따뜻하고, 투명하게 맑은 물속에는 수많은 수중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바다에는 내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과 위험한 것들로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였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들과의 조우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주었다.

그 외에도 세부 바닷가 길거리표 참치구이나 더위를 잊게 해주는 깔라만씨를 이용한 음료는 나에게 또 다른 맛의 즐거움을 주었다.

위부터
〈니모를 찾아서〉 2013. 2. 24. by Cebu. 봉금
〈만나고 싶은 바다거북〉 2013. 2. 20. by Cebu. 봉금



〈세부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2013. 2. 18 by Cebu. 봉금



〈길거리표 참치구이〉 2013. 2. 23 by Cebu. 봉금

더운 곳에 살면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며 한 달 간의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필리핀 하면 배로 관람하는 섬 투어나 열대 과일의 천국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세부의 물속 세상을 체험하게 되었다. 조금은 무섭고 힘든 체험이었지만 고비만 넘기면 아주 즐겁고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올 한해는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아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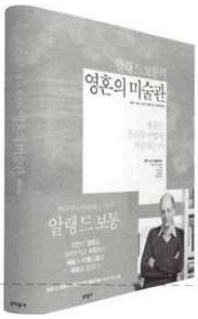
미술을 보는 101가지 통찰

〈킷 화이트 저 / 김노암 역 /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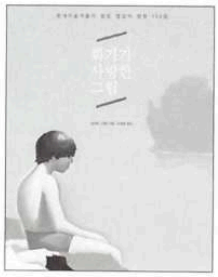
미술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짧은 메시지와 그를 입증하는 섬세한 드로잉을 통해 미술의 기술적이며 조형적인 문제에서부터 20세기 현대미술이 매달려 온 인생과 예술의 운명과 같은 철학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접하게 되는 창작과 감상을 위한 명제나 주장을 엄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작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01개라는 수는 무한히 확대되는 이미지와 사물의 세계를 상징한다. 저자는 101개의 아이디어 또는 이야기를 통해 지난 시기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전개해온 미술의 의미와 형식의 변화를 폭넓게 스케치하며 흥미롭게 보여준다.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알랭 드 보통, 존 암스트롱 저 / 김한영 역 / 문학동네〉



알랭 드 보통, 인간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 안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매혹을 말하다!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이 책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예술의 치유 기능에 대해 특유의 철학적 글쓰기를 통해 써내려 간다. 알랭 드 보통과 미술사가 존 암스트롱이 대화를 통해 직접 엄선한 빼어난 예술작품 140여점을 선보이며 인생의 고난과 사랑, 자연, 돈, 정치 등에 아울러 예술과 미술을 즐기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알랭 드 보통의 섬세하고 위트 있는 필치가 이 책에 실린 예술작품을 더욱 빛을 발하게 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삶으로 예술을 끌고 들어와 삶, 사랑, 일을 더욱 아름다고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의 가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좌절과 고단함을 항상 맛보지만 그것을 극복 할 수 있는 긍정의 힘 또한 지니고 있음을 훌륭한 예술 작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화가가 사랑한 그림 / 현대미술가들이 꼽은 영감의 원천 152점

〈사이먼 그랜트 저 / 유정란 역 / 시그마북스〉

현대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옛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화가가 사랑한 그림』. 이 책은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75명이 각각 영감을 받은 예술가의 대한 생각을 솔직히 기록한 책이다. 옛날 작가의 작품이거나 아직 살아 있는 작가의 작품을 꼽으며 영감을 주거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도 있고 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 않는 작품도 있다. 현직 미술가들이 작품을 보고 느낀 바를 솔직히 털어놓아 미술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 담겨 있다. 미술가와 작품과 맺는 친밀한 유대 관계가 느끼지는 이 책은 미술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시대 미술가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며 색다른 해석 뿐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드는 의문점, 감정,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레이첼 화이트리드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에이야 리사 아틸라는 파블로 피카소를 좋아하는 예술가로 꼽으며 자신들이 과거의 미술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이야기한다.

현대미술 100점의 숨겨진 이야기 / 다섯 살짜리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현대미술

〈수지 하지 저 / 하지은 역 / 마로니에북스〉



한스 아르프부터 앤디 워홀 까지 현대미술의 숨겨진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미술가의 작품으로 구성된『현대미술 100점의 숨겨진 이야기』. 이 책은 평단의 강한 반감을 불러온 100점의 현대 미술작품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작품이 당시 미술개념에 영감을 받아 그것을 논리적으로 확장시킨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왜 현대미술이 아이들 그림과 차별성을 가지는지 분명하게 설명한다. 한스 아르프부터 앤디 워홀까지 작품 도판과 함께 각 작품을 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 시키면서 현대미술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현대 미술이 과저 수백 년의 사실적인 미술과 어떻게 다른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 / 이성과 감성으로 과학과 예술을 통섭하다

〈전창림 저 / 어바웃어북 〉

『미술관에 간 화학자』는 과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에 관한 이야기, 미술과 함께하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명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화학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미술의 태생적 기원을 화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에이크, 밀레, 휘슬러, 미켈란젤로, 브뢰헬, 티토레토 그리고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 우리 화가들까지 조명하며 명화에 담긴 과학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물감의 화학적 질감으로 캔버스의 3D를 재현한 최초의 화가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에이크만의 섬세한 붓터치의 비법이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아마인유라는 안료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렘브란트와 밀레의 그림을 어둡게 변색시킨 화학물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등 명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인문적 소양을 키우며 그 안에서 과학적 사고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전북회화회 주소록

고형숙	561-77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 5동 1501호 (016-653-1833)
김서영	138-751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금호Ⓐ 108동 907호 (010-2610-4264)
박지예	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010-2658-7822)
박성수	560-011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5-9 (010-9992-3661)
방정엽	561-775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 202동 802호 (011-681-7127)
서진숙	560-03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53-7 로가 401호 (010-3683-2506)
안순금	560-28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번지 (010-2635-6314)
엄기석	560-76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우성중산타운 102/1503호 (010-3681-8673)
이광원	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A 3/1104 (010-3656-6292)
이명자	576-804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68-13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010-8004-5895)
이봉금	560-89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안리즈Ⓐ 101동 504호 (010-9277-7231)
이승훈	570-090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A 303/607 (010-4115-0577)
이우정	560-776 전주시 효자동3가 서곡현대Ⓐ 101/202 (010-3299-2221)
이진숙	561-360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번지 (010-4605-9876)
이철규	566-820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예원예술대학교 조형미술과 (010-4279-3775)
이철량	560-070 전주시 완산구 교동 98-1 번지 (010-3650-9849)
이환배	561-86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진흥 W-PAK 107-1101 (010-3673-1562)
윤 호	560-021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40-5번지 3F 청미술학원 (010-4654-0971)
정미헌	565-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778 (011-682-3560)
송현성	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A 5/1403 (010-6794-4568)

전북회화

2013년 통권 제20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이진숙

편집위원 | 이승훈, 이봉금

전북회화 2013년 통권 20호

발행일 | 2013. 12. 01

대표연락처 | 010-4605-9876

기획,제작 | 프린팅헤븐 T. 287-9796, 010-7748-1236

편.집.후.기

유난히 여름이 빨리 시작하더니 길고 가을은 더욱 짧게 지나갔다.
단풍잎이 그래서 더 고왔나보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더욱 마음이 바빠지는 듯하다.
어느 빈틈을 찾아볼까 고심을 해봅시다.
'여유'라고 하면 사전에서 의미는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마음의 상태이거나 물질적 시간적으로 넉넉하고 남음이 있음이라고 한다.
한해를 지나면서 너그럽거나 남음이 있는 생활이 내겐 없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군중들 속에서 뒤처지지나 않나 하는 조바심이 이는 것이다.
따라서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휴식이 나에겐 여유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이 나이에 맞게 준 것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책에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여유를 창조해 낸 분들이다.
이 책자를 읽는 독자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첫 페이지를 좋은 시로 장식해준
이재숙님 고마움을 전하고, 작업실을 솔직히 보여주신 최윤진님,
수필을 써주신 양정숙님, 독서 글을 써주신 김영숙님, 논문을 게재해 주신
김원님, 김지영님, 박성수님, 회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읽어 주시고 좋은 글은 함께 나누고 잘못이 있으면 크게 혜량하기 바라면서
다음에 지면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나이다.

2014년도 계획

- 하계MT
- 봄.여름 스케치
- 8월 서울 인사아트센터 전시확정
- 하반기 대전 교류전 예정
- 12월 총회

Magic Tree

매직트리 D I Y 가구공방

-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가구
- 소나무, 편백, 레드오크, 물푸레나무등 원목사용
- 환경마크 인증받은 천연도료 및 마감재 사용



T. 010.9452.7231【공방 회원모집 및 상담 환영】

신뱅이

신뱅이(新-)는 한옥마을에 새로 입군 밥입니다

지난 갑술년(1934) 전주 교동 98-1번지에
소박한 행랑채와 우물이 있는 아담하고 작은 한옥이 앉았습니다.
그 해엔 큰 비가 내려 경상도에서는 임정난 물난리가 있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인년
김치지기 안명자는 대목수 박철성과 함께
깊이 숨어있던 대들보와 서까래,
덜여 있던 우물을 찾아내고 숨 쉬게 하였습니다.

낡은 것 같아도 닦아내면 윤기 나고 바라보면 멋스러운 이 집을
한옥마을의 새로운 밥으로 일구어 전주음식에 김치 향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전주의 맛과 향을 담아내고,
전주한지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문화가 피어나는 신뱅이.

무병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가족이 옛 마을 솟대처럼 신뱅이를 지키주며,
이두 일마를 봄내는 입 큰 물고기가 여러분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www.greensum.com

그린섬미술학원

- 서부캠퍼스 275-4284 (도청사거리 우리은행 7층)
- 경원캠퍼스 288-4466 (관통로사거리 풍년제과 3,4층)
- 애니섬만화전문학원 287-0112 (홍지서림 옆건물 2,3층)

디자인/만화,애니/수채화/한국화/소묘/드로잉
서울대,홍익대,이화여대반/국민대,건국대반/일반대반/예술고,애니고반/예중반

2013~2004
"서울대 10명 전북최다 합격"

안전 귀가차량 전주시 전 지역 운행 〈서부캠퍼스 등원차량도 운행〉


경원캠퍼스


서부캠퍼스

2013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